

## 제 5회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 위드 코로나19와 통전적 목회 대응

-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 ▷장 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크로스로드(온라인 동시 진행)
- ▷공동주최 :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 ▷주관단체 : 교회와 사회연구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 ▷공동연대 : 가까운교회, 광교산울교회, 순환경제연구소, 광주다일교회,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인문학연구원-이음사회문화연구원,  
개척미자립교회성장연구원, 교회개혁실천연대, 농어촌선교연구소,  
사랑누리교회,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삼일교회, 성지골주민교회,  
숲속생명의원, 사회적협동조합 희년, 성서한국, 순천대대교회,  
전주열린문교회, 전주창대교회, 참든건강과학, 청량교회, 쌍샘자연교회,  
일산은혜교회, 예장합동 순천노회 환경부, 예장합동 장로신문,  
인권시민실천행동, 은혜약국, 하늘샘깊은교회,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  
한국인터서브선교회, 함평전원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이상 33곳)



■ 제5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순서

- ‘위드 코로나19와 통전적 목회 대응’

□ 생명신학포럼

1. **개회선언** / 개 회 사 이박행 목사(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환 영 사 이문식 목사(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격 려 사 노영상 원장(총회한국교회연구원 원장)  
축 사 이시영 장로(전 UN 대사)  
기 도 김정태 목사(사랑누리교회, 복교연 이사)
  
2. **주제발표** / 기후위기와 기독교의 책무  
사 회 정원범 교수(대전신대, 교회와사회연구소장)  
발 표 최영수 교수(숙대 TESOL, 국제학대학원 기후환경융합과)
  
3. **분과발표** / 사 회 김의신 목사(광주다일교회)
  - a. 신학적 응답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 b. 목회적 응답 공학섭 목사(순천대대교회)
  - c. 교육적 응답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d. 복지적 응답 이준모 목사(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
  
4. **종합토론** / 사회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 제5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목차

□ 개회식

개회사 (이박행) / 6

축사 (이시영) / 7

□ 1부 포럼 자료

1. 주제 발표/ 기후위기와 기독교의 책무 (최영수) / 9

2. 분과 발표

a. 신학적 응답 (송준인) / 21

b. 목회적 응답 (공학섭) / 26

c. 교육적 응답 (유미호) / 32

d. 복지적 응답 (이준모) / 49

□ 자료

2020 한국교회 생명신학문서 / 62

□ 특별 기고문

<신학분야>

a.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신학적 의미 (송진순) / 72

b. Post Corona19 한국교회의 갈 방향 (조성돈) / 77

c. 코로나-19와 디아코니아 목회 (김기용) / 87

d. 코로나19 전염병과 바이러스 야웨 (강성열) / 95

e. 코로나19, 공동체와 한국교회 (정원범) / 107

<설교분야>

a. 생태적 제자도 (최광선) / 126

b. 사람, 세상 살림의 일꾼 (김의신) / 134

<실천분야>

a.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 방향- (임종한) / 140

b.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이승무) / 145

c.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마을목회 사역 (이도영) / 149

d. 기독신문에 기고된 환경원고들 (송준인) / 154

e. 코로나와 친환경 규조토 (장근조) / 184

# 개회사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청지기인 인간이 돈을 자기의 모든 판단 기준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교회와 성도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뚜렷해집니다.

그동안 창조 생활영성을 실천하는 대신 내세주의적인 종교의식을 강화하는 구원교리로 무장시켰습니다. 생명 본위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온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로서 교회를 추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유리된 섬처럼 고립되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코로나로 창조신앙에 입각한 일상의 영성으로 돌아오기를 촉구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집인 지구공동체가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교회는 생태적 위기 격랑 앞에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의식 대전환과 실천 과제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생태적 회심을 미룰수록 교회와 세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고, 재물에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 환경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해야 합니다.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탄식을 듣고 창조질서에 순종하여 전 지구적인 살롬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금번 제5회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위드 코로나19와 통진적인 목회 대응”이 우리 모두가 창조주의 청지기로서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굳건한 연대를 확장해 나갈 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제5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총무 이박행 목사

## 축사



이박행 총무님 권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사 준비를 하다가 홀연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럼이야말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국 교계를 깨우치시려는 높으신 뜻의 일환으로 발족을 허락하신 모임이라는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격려를 드릴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대신 제가 그러한 깨우침의 과정과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온 인류를 괴롭혀 온 지난 1년 반 동안, 매일 끊임 없이 하나님께 드려 온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즉, 마치 구약 나오는 사정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 천명의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았음을 알려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계가 매우 심각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바로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쓰시려고 이 땅 여러 곳에 현대판 “남은 자”들, 즉 오늘날 현대 문명사회를 휩쓸고 있는 허다한 우상들에 맞서 전혀 절하지도 입 맞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므로, 바로 그들 간의 만남과 협력의 기회를 하루 속히 마련해 주십사를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얼마 전 이박행 목사님으로부터 이 포럼 개최의 소식과 권유의 말씀이 온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연히 만나 잠깐 동역했었던 이목사님은 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전남 복내 마을에서 글자 그대로 하나님 창조질서의 생태정신을 이미 실천에 옮기고 계셨던 것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바로 이번 포럼이 글자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창조질서 분야의 신실한 “남은 자”들 간의 만남을 다시 실현시켜 주시는 기회임을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마치 중세 유럽에서 오랫동안의 흑사병 말기에 종교개혁의 시대적 대전환이 당시 “남은 자들”에 의해 성취된 것처럼, 이번 포럼에서 뜻을 같이하는 “남은 자”들 간의 반가운 만남과 끈끈한 유대와 용기에 찬 협력이 마침내 오랫동안 한국교계가 너무도 등한시 해 오므로 초래된 창조질서 생태의 온갖 문제들을 드디어 극복하기 시작하는 대전환 시대의 막을 올리는 계기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영 장로(전 UN 대사)

생명신학포럼 주제발표



기후위기와 기독교의 책무





## 기후위기와 기독교의 책무

최영수 / 숙대 TESOL, 국제학대학원 기후환경융합과 교수

|                             |                             |
|-----------------------------|-----------------------------|
| I. 머리말                      | III. 기후환경 위기 관련 기독교인의 책무    |
| II.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            | 1. 건전한 사고인지 돌아보기            |
| 1. 환경에 대한 생각의 변화            | 2. 통섭(consilience)적인 모습의 필요 |
| 2. 생물다양성 등 기후환경문제 대한 인간의 자각 | 3.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하기            |
|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       | 4. 소외층, 소외국가 돌아보기           |
| 4. 대기오염 피해와 토지의 사막화         | IV. 마무리                     |
| 5. 기후 난민, 환경 난민 등 소외층 발생    |                             |

### I. 머리말

“기후위기와 기독교의 책무”라는 주어진 제목을 접하면서, 현재 상황을 나 역시도 생각할 때는 위기적이라고 느끼지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많은 분이 위기라는데 공감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기사를 보면 “기후위기”에 대해 표현하는 빈도가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왜 오늘날을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는가?

그 내심에는 실제 기후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고 그런 맥락에서 위기를 피하려면 보다 많은 분의 공감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실제상황이 기후위기인가?”에 대하여 그간의 상황을 살펴 보면서 위기 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위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실제 위기적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도 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방역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다가온 새로운 상황이다. 누구든지 집에서 외부로 나오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주변의 각종 물건을 만지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심지어 손 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여 소독제를 바르고서야 조금이라도 안심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위기 상황의 한 예로 보는데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COVID19)은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는가? 기후라고 하면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기상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상은 강수, 바람, 구름 등 대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을 표현한다. 기상과 기후는 모두 환경과 관련된 현상이다. 환경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은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적 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책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방향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우선 내가 교육받은 신앙적 울타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분들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필자가 다니는 교회는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교회 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여왔고 대학부부터는 주일학교 교사를 쉬지 않고 하면서 교회생활이 삶의 중심에 있었다. 물론 신앙생활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화됐다. 예를 들면 대학부에서 30대까지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여 주일에는 외식이나 커피 마시는 일은 외부에서 하지 않았던 점이 특히 기억된다. 물론 지금은 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주일에 외식이나 커피점 방문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신앙생활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모습이 다른 분들과 차이점을 실제 경험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4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속했던 한인교회는 단독목회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사목을 6개월 단위로 2명을 정하여 서로 협력하는 연합체 형식의 교회이었다. 외국에 유학을 와서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 등 교역자들이 20명 정도 되어서 이런 방식이 가능한 여건이었다. 예를 들면 장로교는 합동, 통합, 기장 등 여러분의 교역자가 있었고 성공회,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등 다양한 배경이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기독교 문화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상당히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회 생활은 대부분 재직회 등 각종 모임에서 비교적 침묵과 순종하는 문화에 훈련돼 있었다면 영국 생활에서 만나는 분들은 매우 자유롭게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된 내용에 따라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수범하는 모습이였다. 특히, 교회 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참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지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처음 1년 정도는 영국교회와 한인교회를 동시에 다녔다. 주일 오전에는 영국교회 오후에는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영국의 순복음, 침례, 감리, 장로교 등을 다니면서 새로운 신앙적인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방문했던 교회를 통해 교회별로 관점이 조금은 다르고, 설교에서도 성경 중심으로 설교가 이루어지는지, 성경과 함께 다양한 삶의 경험과 비전을 이야기하는지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도 하였다. 교회별로 강조점과 근본적인 배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가려는 모습과 노력에는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기독교의 책무 관련하여 교파에 따라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접근하고 인식과 태도를 변화하려는 과정에서 교회 내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동참을 끌어낼 것인가는 교회의 문화를 고려한다든지, 자연에 대해 창조주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활동의 동기부여와 필요성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교회밖에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 비교할 때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예를 들면 더 착하게 행동해야 하고, 더 희생해야 하고 사회봉사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언론 등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모습은 이런 전제로 더욱 비판의 강도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분보다는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한다. 또는 도덕적으로도 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책무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II.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

한국은 1960년대 1970년대 사회적으로는 다양화되지 못했고 지도자의 경직된 사고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지는 사회적 담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환경문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여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떤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만 이슈로 되고 사회적으로 주류화되지 못하는 여건이었다. 하지만 이미 1970년대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인간의 지나친 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산성비 피해에 따른 기후와 대기 등에 대해 염려하며 무엇인가 변화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 1. 환경에 대한 생각의 변화

유럽 사회는 이미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사회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성장을 급격히 가져왔고, 이로 인한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오염과 폐기물 등 부작용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해 염려를 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생태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계기는 미국에서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봄이 되었음에도 늘 들려오던 아름다운 새소리가 사라짐으로써 인간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살충제와 제초제가 결국 생태를 파괴하고 환경재앙을 가져온다는 경종을 울리게 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유럽 로마를 중심으로 환경 피해의 심각성과 과도한 성장이 가져다주는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면서 보호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2년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산업과 오염 자원의 약탈이 지속하면 성장의 한계에 다다라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세계인간환경회의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파괴와 천연자원고갈에 대해 우려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하고 오염물질의 파악과 규제와 함께 UNEP를 창설하도록 권고하여 큰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다.

이런 맥락은 이데올로기로서 녹색주의의 등장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이 자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간 인간 중심주의에서 자연을 인간이 누리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경종과 전체 자연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발전하여왔고, 최근에 독일에는 정부 운영의 중심에 이런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녹색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2. 생물다양성 등 기후환경문제 대한 인간의 자각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결정에 따라 1973년에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가 설립되고 생물다양성, 멸종 위기 동식물, 오존 문제 등 환경 의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우데나자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UN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주요 협약이 이루어지므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환경개선 노력과 자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

UNEP와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기후변화에 대한 상황을 연구하고 과학적 견해를 받기 위하여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설립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적 평가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후나 대기 상황은 주기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은 데이터로서 입증되지 않으면 막연한 이야기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IPCC는 과학자를 포함한 사회 경제 분야 세계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실제 전과하도록 큰 계기가 된 것은 2007년에 발간된 IPCC 4차 보고서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여할 정도로 인류에게 변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 발간된 IPCC 5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경고 때문에 인류는 2015년 만장일치로 파리 협정을 체결할 만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IPCC 5차 보고서와 기후변화에 대한 상황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소개하고자 한다.

### IPCC 5차 보고서의 서문 발췌

“인간이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며,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 전대륙과 해양에 걸쳐 관측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50년대 이래로 관측된 변화 중 상당수는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내 전례가 없던 것이었다. IPCC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인간이라는 것에 95%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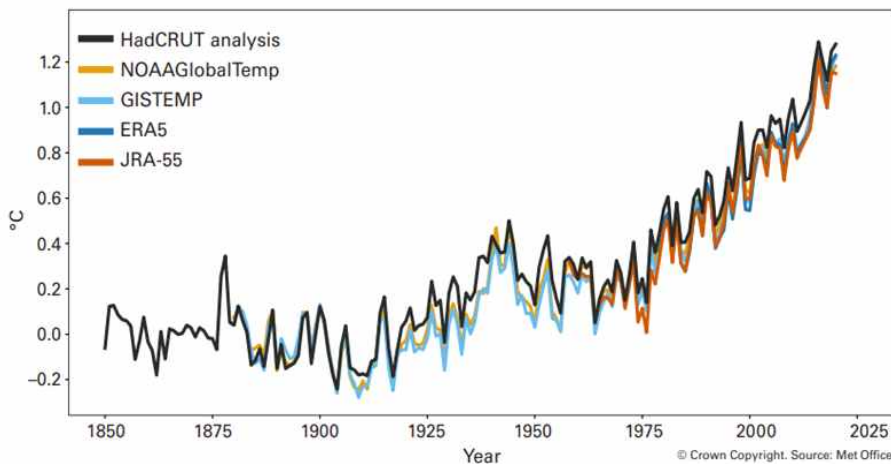
5차 보고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기후시스템에서 온도상승 명백함 - 1950대 이후, 관찰된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는 과거 천년 단위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 전례 없는 상황임
- . 대기와 해양이 따뜻해지고 있음 - 해양상층부(0~700m)가 1971~2010년에 온난화 명백
- . 눈과 비의 양은 줄어들고 해수면은 상승 - 1901~2010년에 전 지구 평균해수면은 0.19[0.17~0.21]m 상승
- . 온실가스 농도는 증가

아울러 2021년 4월에 제시한 WMO의 2020지구기후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기후변화의 기세는 가속화되어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ppm을 초과했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2 °C 더 높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현 구르테스 UN사무총장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빨리 촉박하며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위기 인식과 관련하여 파리 협정의 목표를 인용하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도까지 제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지구가 덜 영향을 받을 남은 온도가 1.5도에서 1.2도 상승했으니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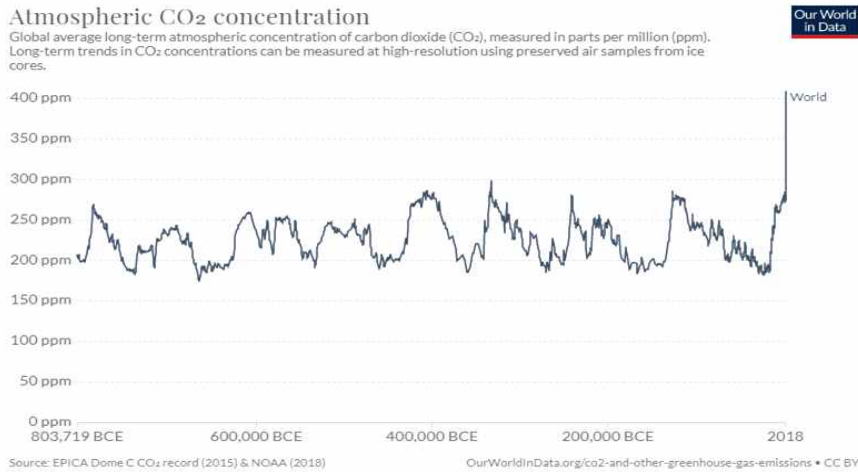
여기서 2020년 WMO지구기후보고서의 온도변화 그림을 보면 최근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경향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618](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618))

아울러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도 보면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인용하고자 한다. 여기 차트에서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 중 CO<sub>2</sub>의 전 세계 평균 농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오랫동안 대기 중 CO<sub>2</sub> 농도는 300ppm (ppm)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CO<sub>2</sub> 배출량 증가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여 80 만 년 만에 처음으로 농도가 300ppm 이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400ppm을 훨씬 넘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

#### 4. 대기오염 피해와 토지의 사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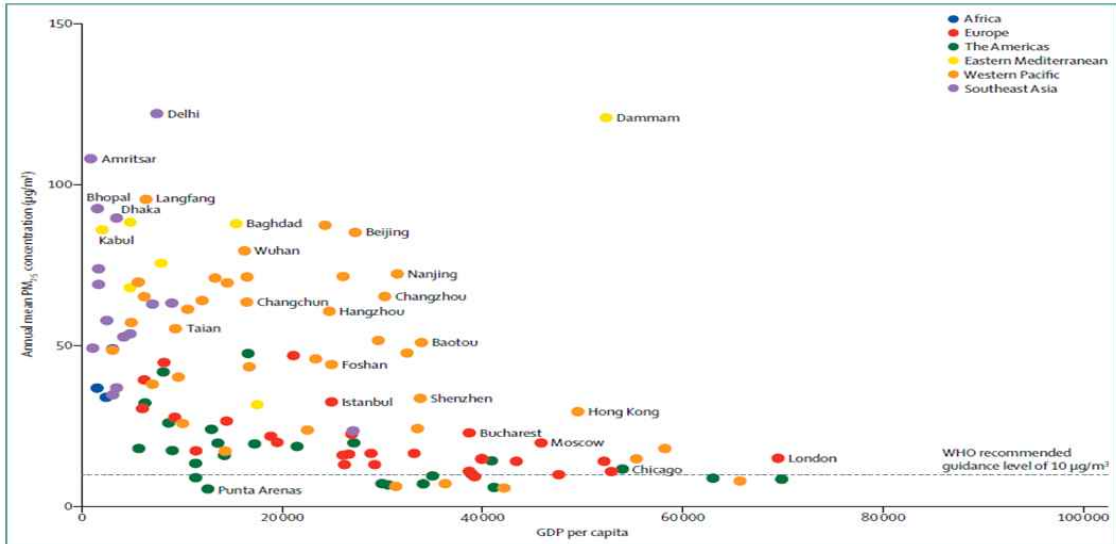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인류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연소과정과 인간이 사용하는 차량 등에 의해 대부분 일어나고 있으며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에서는 소외층에게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10월에 랜셋(Lancet)의학 저널에 실린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사망자 6명 중 1명은 대기오염에 의해 사망하며, 2015년에 공해 때문에 조기 사망한 경우가 900만 건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AIDS, 결핵,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을 다 합친 것보다 세배 많고 모든 전쟁과 폭력에 의한 사망자보다 15배 많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에 전 세계에서 공해 관련 사망이 가장 많았던 나라로 인도를 지목하였다. 공해 때문에 이른 죽음을 맞은 사람이 250만 명인 인도는 전 세계 오염 관련 사망 건의 28%를 차지하고 인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역시 저소득 계층 (2015년에 인도의 오염 관련 사망자 중 92%는 소득 중하위 계층)이다. 다시 말하면 빈곤층과 노숙자들은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오염원에 더 가까이 살고, 진료도 잘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와 깨끗한 물 부족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는 단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소외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from 25 years of inaction to a global transformation for public health).

세계적으로 보면 대기오염은 전 세계 인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환경 건강 위협으로 연간 700만 명의 조기 사망에 기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92%가 유독성 공기질을 호흡할 것으로 추정(WHO, 2016)한 바 있다.

저개발국에서는 5세 미만 아동의 98%가 유독성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원인이 되고 매년 60만 명이 사망(WHO, 2018년)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재정적으로 볼 때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조 달러의 복지손실



이 발생(세계은행, 2016)하고 있다.

대기오염 노출은 입원, 장애, 호흡기 질환, 심장병, 뇌졸중, 폐암,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 폐렴과 같은 전염성 질병과 관련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토지가 훼손되고 황폐화하여 일어나는 사막화도 인류를 위협하고 추가로 기후변화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사막화는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연적 요인으로는 가뭄, 건조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가뭄이나 건조화 현상은 고압대(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곳)에 위치하여 강우량이 잘 생기지 않은 경우나, 높은 산간 지대에 위치하여 구름이 넘지 못하는 곳의 경우에 생기기도 한다.

인위적 요인으로는 환경오염, 산림벌채, 관개, 개간 등 토지가 오염이 되거나 관개시설의 무리한 확장 경우에는 토지에 수목들이 자랄 양분 부족하게 되고 개간이나 땃감 등을 위해 산림 벌채까지 하게 되면 지표의 반사율이 높아져 급속도로 냉각화가 된다. 즉, 기존 사막의 자연적인 확대가 아닌 인간의 활동이나 기후변화로 건조, 반건조, 반습윤 지역에서의 토지가 황폐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사막화는 매년 1,200만ha (불가리아 면적), 즉 1분에 축구장 면적 36배 사막화에 노출(출처:UNCCD)되어있다고 하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5. 기후난민, 환경 난민 등 소외층 발생

세계적으로 최근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어 유럽의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난민은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예를 들면 시리아 등 중동지역 난민이 유럽으로 가려는 과정에 많은 난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잘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결국 시민들을 난민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다. 시리아의 경우에도 가뭄으로 농장을 잃은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리고 도시는 물 부족과 충분한 일자리가 없고 이로 인해 분쟁이 야기되고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 사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 있다.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에서도 사막화와 가뭄이 오래되므로 인해 살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족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결국 분쟁이 야기되고 다른 나라로 가는 난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해안가가 유실되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섬나라 시민들은 이런 위협으로 결국 난민이 되고도 한다. 예를 들면 섬나라인 투발루는 해발고도가 2m가 안 되어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섬들이 물에 잠기고 결국 살기 어려워 인근 국가로 이주해야 하는 기후난민이 되는 상황을 알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어떠한가?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극심한 기상 현상(extreme weather)이 증가하므로 인해 강추위, 폭설 등이 겨울에 발생하고,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 등이 종전 수준을 능가하는 위협이 다가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추운 날씨에도 원하는 난방을 하지 못하는 분들, 여름에 폭염에도 대피하거나 냉방시설이 없는 분들 등 이러한 여건이 확산할 여건에 놓이게 된다. 다양한 형태에서 기후변화로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기후환경 위기 관련 기독교인의 책무

### 1. 건전한 사고인지 돌아보기

앞서 이야기 한 데로 기독교는 여러 형태의 교단이 있고 각기 추구하는 방향, 교역자의 양성 방법 등이 다르므로 이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단의 모습이 “틀렸다”고 하는 방식은 최소한 지양해야 하고 “다르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궁금한 것은 코로나 초기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방역의 일환으로 입안에 소금 분무기를 사용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에 통해 알고 매우 놀랐다. 물론 언론에 의해 알게 되어 실체를 더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교역자들을 훈련 시키는 과정에 과학에 대한 상식 수준의 과목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바 있다. 물론 어느 과목이 적합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으나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는 세상의 과학과 상식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궁



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런 행동이 펼쳐질 때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토론과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청년 때에는 순종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때가 있으므로 지금도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교회에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정리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 속에는 세상 지식으로 볼 때 상식에 모자라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런 점이 극복되어야만 그 다음으로 책무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통섭(consilience)적인 모습의 필요

어문이나 인문계 학생 중에서 왜 이런 학문을 선택하였냐고 물어보면 이런 분야가 자기의 적성에 맞아서 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수학이 싫어서 그 학문을 피하려다가 이런 학문을 한다고 하는 때도 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RNA DNA 등 생물학 관련 단어들을 쉽게 접하는 경우가 있다. 대기오염을 이야기하면서 PM2.5 PM10 등 미세먼지의 크기에 관한 이야기도 접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과정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쉽게는 재생에너지(자연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화를 시작(예: 형광등의 LED 교체, 단열시공)으로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모습이 요구되어 진다. 온실가스의 농도 등 과학적인 상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생활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제 한 분야의 학문만 접하기보다는 인접 학문과의 연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상호 접촉되는 분위기를 사회가 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이에 발맞추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과학적 상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적인 과정 등 이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단지 나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같은 공기를 마시는 지역의 누군가와 협력하고 기후재난을 막으려는 데에는 광범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에서 공감하는 영역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맛을 내는 점은 참으로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입맛을 고려하는 숨은 배려와 그에 따른 재료의 선택과 노력이 중요하다.

교회 생활도 내 교회 중심으로 고립되기보다는 적어도 교회 인근 교회를 배려한다던가 그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교회와 공감할 부분이 없는지 고려해 보는 일종의 배려 즉 노력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협력의 영역은 인근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은 주변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기구와 단체와도 서로 협력하려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인근 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구제 활동이던, 환경에 기여하는 활동이던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

### 3.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하기

교회 주변을 살피는 일에는 많은 교회가 적극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속한 교회도 주변을 돌아보려는 모습이 최근에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한국은 사회적 문화가 벼농사에서 영향을 받아와서 과거부터 옆집과 협력을 중요시하여왔다. 물론 지금 아파트에 사는 도시 생활과는 다르지만 과거 벼농사의 농경문화에서 모내기과 물 대기가 이웃과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했기 때문에 늘 주변을 의식하고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문화적 배경에서 코로나가 감염되면 이웃에게 민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정부의 예방 관련 감독에도 비교적 잘 따라왔다는 주장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즉 교회로서 이웃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반성과 회개하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기후환경 변화 속에 주변과 함께 힘을 모으거나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배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4. 소외층, 소외국가 돌아보기

과거 불우한 이웃 등 주변의 돌아보는 일에는 종전에는 식료품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여해 왔다. 이제는 기후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어려운 분들은 삶의 여건이 종전보다 더 어려워진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지 형편이 어떤지에 대하여도 돌아볼 영역이 더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환경오염과 오염원 배출 공장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피해를 받은 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위해 요인을 미리 알고 해소하는 노력 또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범위를 넓혀서 선교의 현장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접하고 여러 고민과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더욱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와 지역에 지금부터 준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힘을 높이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본다.

## IV. 마무리

기독교인의 자연스러운 변화

기독교인의 책무라는 단어가 내게는 부담을 느껴져서 차라리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즉 기후환경에 대해 인식을 하므로 지구 온도상승과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을 잘 이해하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그중에 내가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채식으로 전환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 자신도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학생은 오늘날 환경적 상황을 이해하다 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육식을 중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가족 중에서 혼자 하여 여러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도 하였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초록색 텀블러를 구입해서 어디는 가지고 다닌다. 물론 교회 갈 때도 수업을 할 때도 외부에서 발표할 때도 그리고 초록색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다.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한다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을 하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

### 윤리적 논의

학교에서는 표절에 대하여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조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영역은 매우 넓다.

잠언 1장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하며 ... 라는 말씀이 다가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 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접해진다.

연구 과정에서 이야기한다면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하게 강요하는 것은 윤리 위반으로 바로 지적이 된다. 부작용이 있음에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참여하도록 동의를 받는 것도 informed consent 위반으로 엄격히 다루어진다. 가슴기 사건에서 보듯이 어느 회사가 연구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연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하여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여 우리 사회 짐이 된 사례를 알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기독교계나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책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사회적인 윤리보다 더 강조된 윤리적인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게 된다.

###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살펴보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가 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를 제시하는데 처음에는 1)빈곤 감소, 2)굶주림 극복부터 시작해서 11) ~15) 기후 환경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수단으로 가장 강조할 점은 파트너십 즉 협력을 17번에 두고 있어서 이런 협력이 기독교인의 책무로 어울리지 않는가 생각해보았다.



## 주님과 대화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는 호흡하듯이 주님과 교감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늘 느끼고 있다. 이제 우리 인류가 원인을 제공하여 우리의 자연 지구가 점점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에게 물어보고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레이첼 카슨(1962), 김은경 옮김, 침묵의 봄(Silent Spring) 에코리브르  
 최영수(2014)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한국의 대응, 서울: 성균관차이나포커스 12:26-36,  
 최영수와(2016), 신기후체제의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동화기술  
 최재천(2013) 통섭의 식탁, 명진출판  
 최재철(2020) 기후협상일지, 박영사,  
 환경행정연구회(2020) 환경행정학, 대영문화사,  
 Chasek, P(2017) 이유진 옮김, 글로벌 환경정치와 정책  
 Fitzpatrick, T(2011),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and social policy, Bristol: Policy Press  
 Harper, C(2016) Environment and Society, London : Routledge  
 Wallace-Wells, D(2019) The Uninhabitable Earth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https://www.ipcc.ch/pdf/assessment-report/ar5/syr/AR5\\_SYR\\_FINAL\\_SPM.pdf](https://www.ipcc.ch/pdf/assessment-report/ar5/syr/AR5_SYR_FINAL_SPM.pdf)  
 Lancet(2020) 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from 25 years of inaction to a global transformation for public health  
 Our World in Data (2021) Why do greenhouse gas emissions matter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  
 UNFCCC (2015), Bodies and UN Climate Change NEWSROOM <http://unfccc.int/2860.php>  
 UN the 17 Goals(2015) <https://sdgs.un.org/goals>  
 WMO(2021) State of the Global Climate 2020 [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618](https://library.wmo.int/doc_num.php?explnum_id=10618)



## 생태 정의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소고 A Theological Ethical Study on Eco-justice

송준인 / 청량교회 목사, 총신대학교 교수

### 들어가는 말

‘생태 정의’라는 말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이다. 그것은 정의와 생태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생존이 그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생태 정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다. 생태 정의는 경제적인 문제를 생태학적 복지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생태학적 문제를 경제 정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생태 정의라는 말은 경제적인 문제들과 생태학적 문제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범주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의 두 가지 측면, 즉 모든 피조물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다루는 두 가지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생태 정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와 정의를 보호하고 증진시킨다. 이 글에서 필자는 생태 정의의 의미와 영역을 검토하고, 생태 정의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생태 정의’라는 용어의 기원과 개념

#### ‘생태 정의’라는 용어의 기원

1972년에 국제연합 (UN)은 스톡홀름에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국제 회의를 열었다. 그곳에 대표단을 파견한 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90% 이상을 대표하였다. 이 회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며, 생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착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스톡홀름 회의는 한 편으로는 부유한 산업 국가에서 온 환경주의자들과 다른 한 편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한 나라들과 억압 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표단들과의 참여한 대립으로 유명해졌다. 첫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환경 보호와 자원 보존을 위해 경제 성장을 제한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둘째 그룹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스톡홀름 회의가 열리기 2년 전,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번째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린 직후인 1970년에, 노먼 파라멜리(Norman Faramelli)가 한 편으로 지구의 보존을 주장하고 다른 한 편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가난 대신에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나 환경 대신에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의 출

구를 매우 간단히 제시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수입을 재분배하는 것과 부유한 사람들이 ‘덜 쓰고 더 나누는’ (less consumption and more sharing)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 침례교단의 국내 사역부에서는 3개년 과정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3년 간의 그 과정은 1970년 지구의 날과 1972년 스톡홀름 회의, 그리고 성장에의 제한을 가장 체계적으로 논의한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 선포한 환경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몇몇 흑인 지도자들과 다른 사회 운동가들은 환경 운동이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후퇴하는 수단으로 전략했다고 불평하였다.<sup>1)</sup>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침례교회 정책 입안자들은 환경주의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의 기본적인 목표를 포용하였다. 그 정책 입안자들 중의 하나인 리처드 존즈 (Richard Jones)는 생태학과 정의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기 위하여 “생태 정의”(eco-justice)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 용어는 오웬 오웬즈 (Owen Owens)가 쓴 팜플렛의 제목이 되었는데, 그 팜플렛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조망하고 그 문제를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결부시켰다. 오웬즈는 말하기를 ‘생태 정의’라는 말은 생태학과 정의에 대한 관심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sup>2)</sup>

### 생태 정의의 개념

‘생태 정의’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그것은 두 가지 개념을 연결시킨 것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동시에, 신학적 이단과 문화적 분열을 지적하는 말이며, 제정신을 잃은 세상에 의해 찢겨진 것을 싸매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생태 정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윌리엄 깁슨(William E Gibson)에 의하면, 생태 정의는 위에서 오웬즈가 말한 것처럼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정의를 의미한다. 깁슨의 말을 들어보자.

“생태 정의는 번성하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번성하는 지구 위에서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식량이 풍족하게 생산되는 지구, 모든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과 숨 쉬기에 적합한 공기와 계속해서 공급되는 숲이 있는 지구, 대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용도에 가장 오래도록 아껴 쓸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 있는 지구여야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생태 정의이다... 인류는 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그러나 생태 정의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와 결부되어 인간이 자연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번성하는 지구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sup>3)</sup>

1) William E Gibson, 1985. Eco-justice: New perspective for a time of turning, in Dieter T Hessel (ed), *For Creation's sake*. Philadelphia, Pa: The Geneva Press, pp. 22-23.

2) William E Gibson, pp. 15-31.

3) William E Gibson, pp. 25-26.

생태 정의에 대한 깁슨의 정의(定義)에 의하면, 번성하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복지는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존에 의존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정의(正義)는 오는 세대들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번성하는 지구상에서 충분한 자원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오는 세대들의 요구도 정의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구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누려야 할 자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이며 각 부분이 나름대로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소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인간은 거기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며, 그것을 보살필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정의에는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수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의 지구상에서 정의란 언제나 생태 정의일 수밖에 없다.

디터 헤셀 (Dieter T Hessel)은 인류가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sup>4)</sup> 하나는 자연환경의 파괴요,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이다. 그래서 그는 생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실한 반응, 곧 생태학적 보전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생태 정의란 생태학적 건강과 경제적인 정의를 함께 연결하는 건설적인 인간의 반응을 말한다. 환경과 정의의 세계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하는 목적은 ‘지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며 번성하는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의 복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류가 생존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공급 받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생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생태 정의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의 신학적 통찰력이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인 사회 분석력도 고양되어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윤리적인 규범들도 명확히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정의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고 아는 바를 신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생태 정의에 대한 헤셀의 이해로부터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생태 정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다.<sup>5)</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외침 속에서 피조물의 위기를 간파할 수 있어야만 하며, 모든 피조물의 미래가 지구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정의를 실천하는 인간에게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 생태 정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망

생태 정의는 세계 역사상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과 일련의

4) William E Gibson, pp. 103-105.

5) Dieter T Hessel, 1992. *After nature's revolt*. Minneapolis, Minn: Fortress, p. 9.

새로운 가정들과 표준들과 가치들과 습관들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무한한 물질적인 진보와 끊임없이 늘어나는 소비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라는 규범, 즉 족하기는 하되 지나치지 않는다는 원리에 굴복하게 된다. 유한한 자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도 세심한 절약으로 바뀌게 되고, 계속해서 재생할 수 있는 자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청지기직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보살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규범에 의거하여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세우고 사회적 존경을 얻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경쟁심과 소비주의는 협력과 공동체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생태 정의는 세계 역사 상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금의 세대에 피조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필수적인 조망이다. 그것은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조망이다. 그것은 인간이 교만과 탐욕과 부주의함으로 이 지구와 이웃 사람들에게 끼친 악 영향을 인식하고 다시 겸손한 청지기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성경적인 신앙에 뿌리 박힌 조망이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과 위험들과 심판들과 도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다고 볼 수도 있다.

지구는 지금 현대 산업주의와 소비주의가 지배적인 소수의 안락과 방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나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 편, 지배를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충분한 식량과 자원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과 비참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신실함의 척도가 환경 위기를 맞고 있는 세상에 적합한 생활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이 세대에 생태 정의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하기까지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만이라도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생활방식을 생태 정의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생태 정의적인 생활방식은 소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더불어 체계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담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과도함이 아닌 충족함으로 나아가는 생활방식이다. 또한 그것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생활방식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유발하는 경쟁적인 개인주의를 탈피해서 상호 협력하고 도와주는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체계와 사회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줄이게 되고,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일체감과, 더 많은 친밀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과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위드 코로나19 시대와 교회의 사명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대규모의 가축사육, 환경파괴, 야생동물의 살육이나 매개로 인한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벌목, 도로 건설, 도시 확장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피폭한 식생활 등으로 빚어진 예고된 환경 재앙인 것이다. 박쥐-침팬지-사람으로 전파된 에볼라(Ebola), 박쥐-사향고양이-사람으로 전파된 사스(SARS), 박쥐-낙타-사람으로 전파된 메르스(MERS)까지, 사람과의 접촉이 뜸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접근해오는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형태로 변이를 일으켜서 전파된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COVID-19과 같은 이런 환경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애굽의 생축에게 임했던 악질 재앙(The Plague on Livestock)과 인수공통전염병인 독종 재앙(The Plague of Boils)으로 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경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향락을 좇았던 죄, 편리라는 미명 하에 환경을 파괴하고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죄,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생명을 경시하고 탐욕의 중 노릇하며 살았던 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오늘 우리는 핵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역대하 7:13-14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태 정의(生態正義)”에 대한 정의(定義)와 그 정의대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이다. 다시 한 번 생태 정의에 관한 윌리엄 깁슨의 말을 되새겨 보자. “생태 정의는 번성하는 지구 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번성하는 지구 위에서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태 정의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환경 위기에 대한 경고와 결부되어 인간이 자연을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번성하는 지구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



## 코로나19 시대 목회적 대응

공학섭 / 순천대대학교회 목사

고은 시인의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란 시가 생각이 난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보지 못한 것들이 내리막길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지나온 길을 반성하며 향후 어떻게 목회를 계획해야 할지 생각을 나누려고 한다.

### 1. 본질을 고수하는 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마을 식당들은 코로나 이전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손님 오는 것을 보고 밥을 짓기 시작한다. 소상공인들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활동하는 자들까지도 엄청난 격변을 치르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형태,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가 바뀌고, 결혼식과 명절 분위기까지 달라졌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교회 120년 역사에 이만큼 급격하게 달라진 때는 없었다. 북적거리던 주일 풍경은 사라지고 마스크를 쓴 자들이 앉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한 일이어서 모든 삶의 현상이 혼란스럽고 교회도 그렇다. 급격한 소용돌이를 겪다 보면 변형과 왜곡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교회도 본의 아니게 진리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성이 따른다.

다행히 교회는 변치 않는 캐논이 있다. 성경 속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켜야 할 도리는 계시해 두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더욱 집착해야 한다. 성경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상의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극도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 그 비결은 넓고 찢겨진 성경이다. 조각조각 흩어진 성경을 읽기만 하고도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예배 전 성경을 읽어오고 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은혜를 누린다. 교회의 문제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그렇다. 인간적인 기교를 부리려 하지 말고 성경에만 집착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코로나19시대의 목회적 해답이다.

## 2. 흠어지는 교회

코로나19가 종료되어도 예전처럼 모이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이는 것만이 능사라 할 수 없다. 주일예배 한번 잘 모이는 것만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끼리 교회당에 모여 지내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곳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은 한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흠으시기 위해 물리적인 핍박을 가했다. 핍박이 임하자 예루살렘교회는 사방으로 흠어졌다. 흠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본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었다. 흠어짐으로 주께서 원하신 바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모이는 일이 어려워졌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흠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흠어지려는 신호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를 겪으며 대형교회의 위험스러움을 배웠다. 이미 이룬 대형교회도 흠어짐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많이 모이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흠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예배당도 크게 지으려 하지 말고 건물만큼만 수용하고 남은 인원은 분립개척을 하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도록 흠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흠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

먼 거리에서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지역 교회로 흠어야 한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식을 빼앗기고 탄소 자국을 남기고 혼잡비용까지 치러야 한다. 신학 노선이 같은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이 흠으시려는 주님의 정신에 부합된다. 흠어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주일이면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지 않고 새롭게 이주한 곳에서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었다.

평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흠어진 교회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신자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신자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그럴 때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이 흠어진 교회가 될 수 있다.

찾아가는 교회도 흠어지는 교회의 한 유형이다. 재활병원, 요양병원, 마을 경로당, 공원 놀이터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흠어지는 교회의 한 형태다. 한 곳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만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어디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또 하나의 흠어진 교회가 된다.

코로나가 교회의 많은 사역을 멈추게 했다. 이전처럼 환원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교회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정리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관행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을 축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에 부합되는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재배치함도 흠으시려는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다.

또 선교 현장도 흠으시기를 원하신다. 코로나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철수하게 했다. 이를 계기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선교사들을 재배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선교 현장도 흠으시

려는 주님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 코로나의 때가 흠어지는 교회를 연습하고 실천할 적기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 목회의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복음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하여 흠으시는 선한 뜻도 담겨 있다. 코로나 19를 더 널리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

### 3.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교회

신앙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의 보살핌과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목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모일 수 없거나 목사의 설교를 대면하여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학습했다.

이제 성도와 목사가 대면할 수 있는 심방도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대면하려고 하면 피차 피곤해질 뿐이다. 이제 교회의 관심은 성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는데 두어야 한다. 성도들 역시 돌봄을 받는 일이 여의치 않은 시대이니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서도록 분발해야 한다. 자취할 때 부모가 해준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요리를 배워서 스스로 생활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상수임과 같다.

목사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데 혼자서 해보겠다는 것은 만용이다. 그렇다고 언젠가 지든지 목사를 의존하려는 신앙도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어떤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성경에 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신앙자립을 이룰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요셉은 이방 땅으로 팔려 갔다. 애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에게는 적성국가에 해당한다. 그곳엔 자기의 신앙을 보살펴줄 부모도 없고, 신앙의 인도자도 없었지만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 예배당이나 신자들의 모임에 갈 수 없었지만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다. 그는 애굽에 팔려 온 일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본 일이 없었다. 보디발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다. 소년의 때에 바벨론에 잡혀갔다. 우상숭배의 나라 심장부인 궁궐에서 반 하나님 나라적인 바벨론 교육을 받았다. 그런 중에도 다니엘은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어명에도 물러섬 없이 신앙을 지켰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런 부부였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바울과 동역하며 가르침을 받았다. 에베소로 갈 때 바울과 동행했다. 바울은 안디옥교회를 돌아간 후 에베소에 홀로 남았다. 바울의 돌봄이 없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온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 부부는 아볼로의 가르침의 내용이 세례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그를 집으로 모셔다가 복음의 도리를 가르쳤다.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분량에까지 이르렀다.

경제적 자립을 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것은 더 중요하다. 코로나 상황처럼 교회와 목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 성도들은 항상 목사의 도움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도 목사의 신앙을 능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다. 코로나19 시대를 통해 신앙자립을 이루는 성도로 세우는 것을 목회의 과제로 삼아야겠다.

#### 4. 틈새전략을 구사하는 교회

TV에서 서민 갑부 이야기를 소개한다. 서민 갑부들의 공통점은 시대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도 성업을 이루고 갑부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남다른 노력과 열정이 있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남이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쉬운 방법을 찾지 말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한다. 틈새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다른 틈새를 찾아내었다. 몸이 가는 대신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하여 쓴 서신이 로마서다. 바울은 아볼로와 같은 웅변가가 아님을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능 곧 글쓰기를 활용했다.

나는 주보를 활용하여 성도들과 소통한다. 평소에도 성도들을 대면하여 만나는 일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글로 소통한다. 글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글은 계속 남아 있으니 다시 볼 수 있고 게시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전달된다.

글로 만남은 대면할 수 없는 시대에는 더욱 빛을 발한다. 심방 때에도 만날 수 없으면 쪽지를 남긴다. 생일 카드는 내용 글이 인쇄되지 않은 것을 구입하여 손 글씨로 써서 보낸다. 봉투도 손 글씨로 쓰고 우표를 붙여 보냄으로 정성을 보탠다. 대면심방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틈새란 자기만이 잘 할 수 있는 것 또는 자기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모방해서 좋을 일도 있긴 하지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자기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목회에 접목하면 된다.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에서 보기 어려운 짱뚱어가 있다. 식사하러 오신 분들은 그걸 먹으려고 온다.

나는 지난해 코로나와 더불어 보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우리 마을 역사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다. 주어진 시간을 고스란히 사용함으로 지난한 일들을 쉽게 해낼 수 있었다. 나만의 틈새를 이용한 것이다.

대형병원 옆에 있는 소규모 의원들이 있다. 종합병원이 줄 수 없는 그들만의 장점을 활용한다. 이런 것을 두고 틈새라고 한다. 목회도 틈새를 찾아내어 목회의 지렛대로 삼으면 된다. Corona19가 목회의 방해물도 되지만 새로운 틈새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Corona19를 돌파할 틈새는 어디에든 있다. 틈새를 찾아내는 목회를 제안해 본다.

#### 5.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

어느 시대나 어려움은 있다. 교회도 시대마다 겪는 문제들이 있다. 그때마다 교회는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의 근원은 훼손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목회적 과제가 있긴

하지만 환경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다. 교회 밖에서도 기후환경의 문제를 위해 파리기후조약이 발효되었고 각 나라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야심차게 펴고 있다.

이제 교회도 나서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동안 교회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굵은 행보를 보여 왔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경험하면서도 교회의 환경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디 반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는 기후환경 개선을 위해 선봉에 서야 한다.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솔선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쓰레기 제로 시대를 선도할 책무가 있다. 환경보호는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의 일이며 목회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바다의 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을 지으셨고 그들에게도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전도의 명령보다 먼저 주신 것이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책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삼아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선교영역도 많아 달라지고 있다. 선교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후원을 한다. 그러나 선교사역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멈추어버린 선교사역을 어떻게 지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크다. 성급한 생각일지 모르나 선교사역도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후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텐트 메이커를 병행하는 자구책을 마련함이 지혜로운 일일 것 같다.

국내 목회도 해외선교영역에 버금갈 정도로 척박해지고 있다. 이미 농어촌은 선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의 경제적 자립은 요원하다.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교회도 점차 쇠퇴하고 있는데 농어촌교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본질적인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는 적어도 목사의 최소 생활비가 지급되어야 지속가능해진다.

목회자의 부족한 생활비는 노회가 감당해야 함이 질서이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다. 농어촌교회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려면 도시교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교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지 않으면 막연하다. 결국 농어촌교회의 존속은 목사의 텐트메이커 사역에 달려있다. 필자가 속한 교단 산하 교회자립개발원에서는 전략적으로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과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건전한 선택을 돕고 있다. 아울러 요셉의 창고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농어촌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신학교 교육과정에 선교 현장을 위한 텐트 메이커 사역을 위한 직업교육이 첨가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문제를 던져본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대적 부름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대대교회 사역

내가 목회하는 마을은 200호 정도의 궁벽한 농촌 마을이다. 순천시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 마을에서 환경운동 하는 것은 사치였다.

처음엔 이슬비처럼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해오던 일이었다. 결정적으로 교회가 환경운동에 나설 기회가 왔다. 순천만 습지로 연결되는 기수지역에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도 정비 사업이 시작되었다. 4대강 사업처럼 골재채취가 포함된 사업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때 환경단체들은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지역민들의 다수가 교인들이었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교회 말고는 없었다. 순천만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교회가 지역 환경지도자들의 모임과 국내 생태지도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 순천만 보존운동에 중심축이 되었다. 그 결과 오늘의 순천만을 있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태의 가치, 창조를 보존해야 할 책임을 선포하고 있다. 생태지도자 양성, 어린이들 생태교육, EM활성액 보급, 환경세미나 개최, 분리배출, 아나바다운동을 해왔다. 순천시생태위원에 참여하여 순천만 보전 정책과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노회 산하에 환경부 신설을 주도하여 환경운동을 노회의 교회들로 확대했다. 104총회는 플라스틱 없는 총회를 개최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금년에는 노회 소속 교회들에게 작은 정원을 만드는 캠페인을 벌일 작정이다.

그 결과 교회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미력하게나마 감당했음에 대해 위안을 받는다. 이로 인하여 교회의 이미지 개선, 목회 영역의 확대, 교회가 마을을 선도해 가고 있다. 반걸음 먼저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누린 축복들을 열거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바라는 것은 한국의 모든 교회마다 환경모임이 생겼으면 한다. 노회마다 환경부가 만들어지고 교단마다 환경부서가 설치되기 바란다. 환경사역은 With Corona 시대에 교회가 감당할 일이며, 목회의 한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

앞서 밝힌 대로 다섯 가지를 With Corona 시대 목회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모든 동역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다. 분명 코로나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코로나의 위기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모두를 위한 기독교 생태환경 교육<sup>6)</sup>

유미호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 아름다운, 그러나 위기에 처한 지구

지구 동산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창1:31)’시며 환히 웃으셨던 곳이다. 하나님과 거닐던 곳이기도 하다. 삶이 힘들어도 ‘주께서 쉬시면 함께 쉬므로 모두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거룩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회생되지 못할 마지막 숨을 쉬듯 험악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숨쉬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플라스틱이 땅과 바다에 쌓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창 1:22,28; 9:1)’을 누리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생물 종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고<sup>7)</sup>, 서식지 침해나 기후 변동으로 종들이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면역력이 없는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전 지구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홍콩독감(1968년)과 신종인플루엔자(2009년)에 이은 세 번째 팬데믹 선언으로,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종의 벽을 넘어 벌써 1년 넘게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원인은 박쥐가 아니라 인수 공통 감염병 대부분이 그렇듯, 인간이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 동물들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건드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구 온도상승이 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데<sup>8)</sup>, 이상 기후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하고, 그로 인해 살 공간을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 거주지나 목축지로 이동하여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뎅기, 지카 바이러스 등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의 70%가 그로 인해 생긴 것들이다. 이대로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지구 기온이 2도까지 상승하면, 지구의 회복력이 상실되고 극지방 동토 속 고대 바이러스까지 나와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구 온도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국가위기를 선포하고, 환경난민의 길을 선택한 나라들도 있다. 환경난민 수가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수보다 많아진 지는 오래다. 2050년이면 약 1억 4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100억 명의 1%가 세계를 유랑하게 될 것으로 예측<sup>9)</sup>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구의 회복력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이제

6) 이 글은 기독교교육학회의 2021 춘계학술대회 때 발표된 글임을 밝혀둡니다.

7) 유엔 "생물 100만종 이상 멸종위기...인간이 주 위협",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295366/>

8) 그린피스,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2020. 2. 25.)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2074/blog-health-climate-virus/>

9) [과학을읽다]물에 잠기는 지구-①온실가스와 환경난민,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0415184165861>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5도 특별보고서’<sup>10)</sup>를 통해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치를 1.5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지구는 더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입증해온 자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자연생태계 및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던 연구 결과도 수도 없이 발표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껏 소홀히 여겼고,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생각에 젖어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살인적 폭염과 폭풍,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숲의 절반을 태우고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타 죽게 한 호주 산불 등 기후위기의 경고등이 수도 없이 켜졌지만 소용없다. 이번 코로나19에서 보듯 우리의 건강은 물론 에너지, 먹거리, 폐기물 등 우리 삶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감은 높지 않은 듯하다.

### 위기를 인정하게 하는 기독교 생태환경교육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완충장치인 바다와 숲은 이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율이 멈춘다 해도 최소 1,000년까지 지구 기온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서둘러 지구 생태용량<sup>11)</sup>에 맞는 삶은 물론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시도해야만 하는데, 대다수가 여전히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핑곗거리를 찾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 당장 태도를 바꾸어 함께 대처해도 부족한데,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게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생태환경교육의 기본이 된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변화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선적 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막 8:17) 하시는 주님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이며 감각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게 할 필요가 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창 4:9)” 하신 두 질문을 우리 안에서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일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은 다음 네 가지 질문과 더불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찰할 경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도울 것이다. 더욱이 상황이 위급하여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움과 우울함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사랑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10) IPCC,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 채택 : <https://news.joins.com/article/23028237>

11) 코로나가 지구생태용량 초과일 3주 늦었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948212.html>

〈위기 감각을 깨우는 성찰의 예〉 12)

– 묵상말씀 : 창 3:9~13, 4:9~15

- 성찰질문 : 1. 오늘 나는 어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느꼈는가?  
2. 나는 창조의 아름다움과 땅의 울부짖음, 가난한 사람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가?  
3.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선택들은 하나님의 생명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4.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자리와 지구 이웃을 돌보는데 부족한 것은 없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 자연이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특히 공동체 안에서 하는 생태환경의 위기 성찰은 위기 감각을 살려낼뿐 아니라 변화된 행동을 하게 하며 그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껏 추구하던 ‘풍요와 편리함, 성장’에서 돌아설 용기를 내게 할 것이다. 고통 중에 울부짖으며 사라져가고 있는 생명의 소리<sup>13)</sup>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보내는 구조신호임을 알아 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삼가함으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또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임을 깨달아 ‘모두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만큼 누리겠다’는 선언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물론 위기를 인정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편리함에 주저하면서 적당히 실천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태초에 그랬듯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한 것이라는 식으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데 익숙하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오늘 주님은 “너와 네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신30:19)고 하시며, 혼자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오라고 손짓하고 계신다. “두 세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으니”(마18:20),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은 물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어 행동하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신다. 여기에 기독교교육, 아니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 모두의 필요를 알아채게 하는 기독교 생태환경교육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교육해왔을까? 교육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위기에 어떻게 응답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잘 살기’ 위한 교육을 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함께 잘 살기 위한 교육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잘 산다는 것에 생태환경적 가치가 담겨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지금까지 교육이 추구해온

12) 유미호, 코로나 이후의 생명평화, 교육교회 2020년 7.8월호, 기독교교육연구원

13) 2019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사라지는 생물종이 백만 종에 이른다. 그중 10가지 생물 종은 지구의 날 네트워크에서 인간 활동과 기후위기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뽑아 알리고 있다. 북대서양 참 고래, 아홀로틀(우파루파, 멕시코 도롱뇽), 제왕나비(군주나비), 장수거북, 큰귀상어, 아시아 코끼리, 자이언트세쿼이아, 아프리카 펭귄, 산호초, 아마존 열대림으로, 이 밖의 생물종의 멸종 관련 자료는 ‘기후위기와 생물종의 멸종 이야기(<http://blog.daum.net/ecochrist/642>)’ 참조

인간상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전 지구적 생태환경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sup>14)</sup> 사람이었을까 싶다.

생명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순간에도 그랬다. 모든 생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필요를 채우도록 만들어졌고, 이번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했다. 코로나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연을 살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기독교 생태환경교육 역시 사람만이 아니라 동식물은 물론,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온갖 것들을 내는 땅까지도 살피 삶을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일깨우는 성찰의 시간을 필히 가져야 한다.

상황이 이토록 위급해지기까지 교육이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기독교 교육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고 그를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환경의 위기적 상황과 적절히 소통하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아 그에 맞는 삶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가운데 발견되고 삶으로 드러난다. 언 땅이 부드러운 봄비에 푸른 움을 내듯,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것들에 의지해 먹고 입고 쓰고 버리는 연습을 한다면, 하루 한 번 이상씩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숨을 의식하며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들을 살핀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음 몇 가지 상황도 인정하게 할 것이다.

-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sup>15)</sup>.
-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극단적 날씨로 인간 생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sup>16)</sup>
- 기후위기는 생태환경의 위기이자 경제적 위기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후변화를 2008년 금융위기의 기폭제 역할을 한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에 준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다.<sup>17)</sup>
- 온도는 1.5°C 상승 이내로 묶어야 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60%, 2050년 배출량 제로를 성취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필요는 물론 모두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을 할 것이다. 위기에 대한 인정이 생태적 자각을 일으켜 ‘모든 생명과 함께 하는 세상을 살겠다는 의지’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14)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 (도서출판 동연, 2018 개정판)

15) IPCC 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 : 1차 보고서(1990, 확실하지 않음), 2차 보고서(1995, 원인 중의 하나), 3차 보고서(2001, 인간 책임 66% 이상), 4차 보고서(2007, 인간 책임 90% 이상), 5차 보고서(인간 책임 95% 이상)

16) 데이비드 윌러스 웰츠 지음, 김재경 역, 2050 거주불능지구, 추수밭, 2020

17) 미 연준의 경고, 기후변화로 리먼 사태급 위기 올 수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3/296272/>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두고 협력하는 이도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교육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위협이 가져온 두려움의 결과지만 이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지구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며 기후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심히 흘려듣던 이들이 강제된 조처에 1년여 넘게 강제된 멈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 자신은 물론 모두의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변화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각자의 삶은 물론 사회를 변화시킬만한 힘과 지속성이 없다. 만약 이대로 삶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백신과 치료제에 의존해 경기가 회복된다면, 이후 온실가스 배출은 전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sup>18)</sup>.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년간의 탄소 배출량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모두가 줄이는 중에도 빠르게 증가시켜왔는데, 20년간 매년 평균 2%씩 증가시켜왔다.

전체 예배는 물론 교회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을 서둘러 고민하며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대면일지라도 신앙공동체 안에서 지금의 위기를 신앙으로 마주하게 하고, 그 믿음에 응답하며 혼자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함께 피조물의 믿음을 경청하는 가운데 치유하는 행동이 따로 또 같이 일어나면, 피조물들은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의 영광의 자유’(롬 8:21)에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 모두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생활 영성 훈련

앞서 설명했듯이 모두의 필요를 채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셨던 순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줄 알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 기억을 떠올 수 있는 사람은 그에 맞춰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를 새로이 회복하면서, 코로나19는 물론 그 이상의 위기를 가져올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삶을 연습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보고,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위기에 취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나누는 행동도 하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과 발전, 그리고 산과 강과 바다를 개발함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필요를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의 사회를 꿈꾸게 하고, ‘2050 탄

18) 유엔환경계획이 2020년 12월 9일 발표한 ‘배출격차보고서2020’에 의하면 2020년 온실가스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감소, 산업 활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최대 7%까지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억제 효과는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0.01도 떨어뜨리는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의 영향 등으로 예년보다 두 배가량 빨랐다는 보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3705.html>

소중립사회'를 이루기 위한 자기 목표를 세워 최선을 다하게 할 것이다.

이제 더불어 사는 생명을 기억하며 모두의 필요를 채워가게 하는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한다<sup>19)</sup>.

■ 피조세계 안에서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Visio Divina)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은 녹색의 눈으로 성서를 묵상하면서 생태환경 문제를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깊이 깨달아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까지 깊이 묵상하도록 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하신 말씀을 붙들고, 창조세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곳에 직접 서거나, 그를 느낄 수 있는 사진 한 장이나 사물을 보면서 침묵으로 묵상하고 서로 나눈다. 그것이 서서히 자신의 필요를 넘어 가난한 자와 후손은 물론 다른 생명의 것까지 앞당겨 씬으로 지구를 지속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 돌아서게 하는 기회의 시간을 갖게 한다.

■ 창조 묵상 : '계절에 말 걸기'와 '교회 나무 갖기 및 교회숲(정원) 조성'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욥 12:7~8) 변화하는 계절을 따라 계절(자연)에 말을 거는 시간을 갖게 한다. 숲길, 물길, 마을 길을 거닐며 말을 걸게 하되, 각각의 생명들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까지 하면 창조영성이 깊어질 것이다. 가정과 교회, 마을 안에 하나님의 정원을 맛볼 수 있는 미니정원(텃밭, 화단, 모퉁이 숲)을 만들어 마을 숲과 연결하되, 주변의 식물 최소 10가지 정도는 이름을 알고 돌보도록 해도 좋다. 교우 가정과 교회의 수목을 정하여 지키고 돌보며 하나님의 정원으로서의 지구를 복원해가는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해도 좋다. 자연과 이어진다는 건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은 물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얼마나 많이 의존해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 절기를 따른 신앙실천 교육캠페인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다음과 같이 사순절, 대림절과 같이 신앙의 절기를 활용하는 신앙실천 교육캠페인이다.

1. 경건한 40일 생태영성훈련, '탄소금식' :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기도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40일의 실천으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하는 신앙의 절기인 사순절에 잘만 훈련하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훈련하는 내용은 '매주 하나씩 7주간'<sup>20)</sup> 실천하게 하는 것과

19) <http://blog.daum.net/ecochrist> 참고

20) 매주 하나씩 7주간 실천하는 탄소금식 캠페인의 실천내용은 이렇다. '1주(2/17~20) 아무것도 사지 않

‘하루 하나씩 주일을 뺀 40일’ 동안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콘텐츠가 어린이용으로까지 나와 있어(<http://blog.daum.net/ecochrist/786>), 신음하는 지구와 기후약자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영적 여정을 걷게 돕는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천천히 욕심껏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고백함으로 우리 안의 욕망을 비우며 지구의 아픔을 더는 연습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음하는 자연과 이웃 앞에 조금은 당당히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론 ‘플라스틱 감축 생활영성훈련’으로 40일을 실천할 수도 있다. 플라스틱 역시 전 세계가 깊이 신음하게 하는 것으로, 이 생활영성훈련은 원천감량 즉 쓰레기제로를 향한 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이 해마다 생명을 잃는 바닷새가 100만 마리, 해양 포유류가 10만 마리나 되고, 작아진 플라스틱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까지 오염시켜 우리 몸을 위협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창 1:22)’해야 할 물고기와 새들은 물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빼앗은 것임을 알기에 자신의 필요를 의식해 필요만큼 누리는 연습을 하게 돕는다. 40일의 실천을 함께 하고 나면, 쓰레기제로의 일상을 살게 하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플라스틱프리 카페 내지는 제로웨이스트샵(교회 리필스테이션)을 만들게 도울 수 있다.

2. 지구 이웃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50일’ : 부활주일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잇는 부활 절기에 초대교인이 이웃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지구 이웃과 함께 하는 행동을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필요한 것이 성장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적절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능력임을 알기에, 이 기간 7주간의 실천<sup>21)</sup>이 진행된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서 자유하여, 덜 가지고 덜 쓰고 덜 먹고 덜 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

3. 대림절(그린크리스마스) - 대림절 4주간 만물의 화해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묵상을 하게 한다. 우선은 나무를 베거나 꼬마전구로 전력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닌 LED 꼬마전구와 태양광충전기, 보조배터리를 준비해서 태양광 크리스마스트리를 준비하게 하고, 나누는 음식은 물론 주고받는 선물도 가급적 자연적인 것들로 준비한다.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생명이 더 호의적이게 될 것이다. 풀꽃과 나무, 혹은 씨앗을 준다면 다음해 봄 작은 정원을 만들어 돌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창조절 - 기독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기존 교회력에 성령

---

기, 2주(2/21~27) 일회용(플라스틱)금식, 3주(2/28~3/6) 고기금식, 4주(3/7~3/13) 전기사용량 줄이기, 5주(3/14~20) 종이금식, 6주(3/21~27)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7주(3/28~4/3)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21) 매주 하나씩 7주간 실천하는 ‘지구이웃과 함께 하는 기쁨의50일’ 캠페인의 실천내용은 이렇다(매년 교회력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음). ‘1주(4/4~10) 포장 없는 부활절 달걀 나누기, 2주(4/11~4/17) 일회용품 없는 봄나들이, 3주(4/18~24) 지구를 구하는 문화생활 하기, 4주(4/25~5/1) 정원숲에서 다양한 생명의 숨결 느끼기, 5주(5/2~5/8) 녹색(모두를 위한) 선물 주고받기, 6주(5/9~15) 건강한 지구를 위한 살림밥상 차리고 나누기, 7주(5/16~22) 지구를 구하는 기쁨을 함께할 공동체 만들기

하나님의 계절이 빠져 있어 근래들어 지켜지고 있는 절기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축하한다. 대개 9월에 시작하여 대림절 전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생명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sup>22)</sup>, 창조주 안에 온전히 머뭇으로 자신과 이웃을 이해하면서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한다.

5. 환경주일, 지구(묵상)주일(크리스찬어스아워) - 한국교회는 매년 6월 첫째 혹은 둘째 주일은 환경주일이다. 매해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주제를 깊이 성찰하면서 예배하고 또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개인, 모임, 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다. 지구(묵상)주일은 한 달에 한 번 첫 주일이나 그달의 환경기념일 즈음에 그 의미를 살려 창조의 때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 관련된 장소를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교회 주보나 예배 전 전체 스크린을 통해 자연스럽게 묵상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하도록 안내한다. 실천을 강조하려면, 주제에 맞는 물건을 하나씩 정해 ‘지구를 위해 없이 지내는 주일(주간)<sup>23)</sup>’로 진행해도 좋다. ‘크리스찬어스아워(Christian Earth Hour, 지구를 위한 시간)<sup>24)</sup> 캠페인을 따라 지구를 위한 기도를 생활화할 수도 있다. 그달 그달의 환경력에 맞는 주제를 알려 매일매일 기도하고 행동 하되, 마지막 주 금요일 8시에는 15분씩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최우선의 기도요 삶의 우선 과제로 삼는다.

### 모두를 위한 ‘지구돌봄서클’과 기독교 생태환경교육

지금의 생태환경 위기를 얼핏 보면 따로따로의 현상들로 보기 쉽다. 하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환경윤리’의 저자 데자르댕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연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따라서 환경문제는 윤리학과 철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sup>25)</sup>”

사실 생태환경 위기 시대의 교육은 ‘생명, 공감, 공생, 균형, 멈춤, 비움, 창조성, 풍성함, 필요, 정의, 책임감, 평화, 배려, 봉사’ 등과 같은 가치 교육 없이는 진행하기 쉽지 않다. 지금의 위기가 대부분 인류의 먼 미래보다 자신과 가족, 친구들에게 곧 닥칠 일들이고, 인간의 탐욕,

22) 50가지 나무와 들꽃 묵상(글 사진 김민수, 제작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2019 & 2020)

23) 예를 들면 일회용 컵 없는 주일, 비닐 없는 주일, 고기 없는 주일, 종이 없는 주일, 쓰레기 없는 주일, 남은 음식물 없는 주일, 전기 없는 주일, 차 없는 주일, 첨가물 없는 주일, 낭비(소비) 없는 주일, 말 없는 주일 등을 들 수 있다.

24)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환경력에 맞춰 첫 주일을 ‘지구(묵상)주일’로 지키되, 각 주제에 따른 성경 말씀과 기도문, 묵상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1월(눅12:29, 지구가족의 날), 2월(약5:10~11, 습지의 날), 3월(겔47:9/ 물의 날(3/22)/ 은총의 선물 물), 4월(눅13:19/ 종이 안 쓰는 날(4/4), 지구의 날(4/22)/ 반려식물), 5월(창1:22/ 생물 다양성의 날(5/22), 바다의 날(5/31)/ 총만한 바다), 6월(롬8:19/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녹색그리스도인), 7월(고전8:9, 롬8:21/ 비닐봉지 없는 날(7/3)/ 플라스틱프리), 8월(시37:5/ 에너지의 날(8/22)/ 침과 힘), 9월(행9:3/ 자원순환의 날(9/6), 차 없는 날(9/22)/ 에너지 전환), 10월(창1:25/ 세계 채식인의 날(10/1), 세계 동물의 날(10/4)/ 반려동물), 11월(히13:5/ 환경 착취 예방의 날(11/6),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11/29)/ 녹색구매), 12월(사11:1/ 세계 토양의 날(12/5), 성탄절(12/25)/ 그린크리스마스) - <http://blog.daum.net/ecochrist/619> 참고

25) 장미정, 지속가능한 사회와 교육(환경선교사과정 강의안,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2019)

소비와 개발을 부추기는 사회구조는 물론 착취와 확장을 중시하는 지배문화 등과 얽혀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동서고금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입장,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비롯한 현대사회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가치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새로 성찰하고 그에 바탕을 둔 실천적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식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실천을 강요(?)하기보다 생명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느껴 반응하며 소통하게 해야 한다. 소통은 생태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화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살아있는 집단지성을 갖게 해줄 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집단지성과 핵심 역량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리더십이 발휘하게 한다. 대화는 옳고 그름과 정당함으로 인한 강요와 주장 그리고 설득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 진심을 말하게 함으로써, 통제와 자율의 긴장을 내려놓고, 공유된 선(善) 즉 모두를 위한 공동의 지혜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sup>27)</sup>

아쉽게도 대부분의 교육이 주장과 확신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짙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통 능력을 갖춘 이들이 부족한 것이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는 생태환경문제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결해가는 것이 힘든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2020년부터 새로이 시작한 기독교 내 생태환경교육이 있는데, ‘지구돌봄서클’<sup>28)</sup>이다. 원으로 둘러앉아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구돌봄서클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위기 그 자체나 감당해야 할 책임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고 있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며 마음 다해 듣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함께 행동한다. 아픈 지구를 바라보며, 사랑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한다. ‘나와 우리는 물론 후손을 위해 생명을 선택하는(신30:19) 행동을 하게 한다. “긍정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나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모두가 선하고 지혜롭고 좋은 관계에 대해 깊이 갈망하고 있음”<sup>29)</sup>을 확신하면서, 함께 묻고 함께 답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미래를 책임 있고 건강하게 변화시켜 ‘참 좋았던’ 지구의 복원을 이루는 신앙공동체를 단단하게 해가게 한다.

26) 50명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생태환경위기시대의 가치사전(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엮음, 도서출판 동연, 2021. 5 발행)’과 토론툴킷 참고. 여기서 이야기되는 가치단어로는 ‘감사, 겸손, 경청, 공감, 공생, 희망, 균형, 나눔, 멈춤, 분별력, 비움, 창조성, 사랑, 풍성함, 필요, 아름다움, 용기, 정의, 지혜, 책임감, 평화, 내면적 성숙, 배려, 봉사, 신뢰 등이 있다.

27) 박성용, ‘코로나 질병과 기후재난의 시대에서 ‘대화’실천의 중요성 재 고찰(2020. 12)’ 논문 중 인용  
28) 지구돌봄서클은 2020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비폭력평화물결의 도움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원으로 둘러앉아(때론 온라인)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나누며 서로 신뢰하며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자세한 진행안내도는 [blog.naver.com/ecochrist/222096167041](http://blog.naver.com/ecochrist/222096167041)에서 참고할 수 있다.

29) 지구돌봄서클을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으로, 케이 프라니스 & 캐롤린 보이스-왓슨의 ‘서클로 나아가기’에 나오는 서클의 7가지 핵심을 인용함.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과 마을교회 교육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주신 지구의 지속성과 풍성함을 누리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랑으로 걷어 내고 부추겨진 욕망을 씻어내는 것. 그것은 코로나19의 상처를 안고, 기후변화와 종의 멸종이라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렸다.

다행히 전 세계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많은 이들이 지구의 생태환경적 위기를 좀 더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를 향한 걸음은 2030년까지 계속된다.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sup>30)</sup>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5P를 근간으로 하는데, 국제기구나 각 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시도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이 중요한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도 교우들과 더불어 삶의 각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며 서로 연결해가는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을 시도해 봄 직하다.

교회만큼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으로 가는 행보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곳도 없다. 성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p>30)</sup>를 이루어가게 하는 좋은 원리와 힘을 제시해주는 교육자료이다. 성서 안에는 ‘불균형을 없애고 우리가 사는 지구의 영속성을 높이는’ 안식년이나 희년의 전통과 같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형이 있다.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야 하는 이유도 주님이 오신 목적에 분명히 담겨 있다. “나는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요10:10)”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필요를 넘어 다른 생명은 물론 후손의 것까지 앞당겨 지구를 지속불가능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심한 가뭄과 심각한 물 오염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죽게 하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도둑이 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아마티아 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꼽는다면 선택한 대로 살아내게 돕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다행히도 코로나19와 긴급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건 생명살림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어서이다. 마을 안에서 스스로 변하여 이웃과 함께 생명 살림의 공동체를 세우는 녹색 교회들이다. 이들 교회들은 스스로 변하여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곱고루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 교회들이 마을 안에서 하는 교육은 건강한 먹을거리와 에너지, 소비와 쓰레기 등 일상의 여러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만약 마을에서 활동이나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마을 지도를 구해 마을의 수질, 토지, 소음, 대기, 쓰레기 등의 오염상태를 오염원과 같이 표시해 두면 좋다. 마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과 그 영향을 관련 사진이나 정보와 같이 기록해두는

30) 지속가능발전교육 안내서 모음 <http://ncsd.go.kr/education?content=1&post=2433>

것이 좋다. 마을 숲과 공원, 텃밭, 하천 등의 생태 공간, 마을 내 주요 시설들(카페, 생협, 중고 가게, 도서관, 복지관, 주민 센터와 구청, 지역아동센터와 초중고등학교, 재활용정거장,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환경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도 표시하되, 긴 시간을 두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생태발자국’<sup>31)</sup> 지수를 살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마을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거나 세우는 일을 하면 좋은데,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의 교육이 된다. 마을에서 사람을 길러내 직접 먹을거리를 짓거나 직거래하고,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의 자립을 이루는 등 ‘지속가능한 마을(전환마을) 만들기 활동’<sup>32)</sup>은 구성원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학교를 세워 마을 공동체를 세워갈 지도자를 뽑아 훈련할 수도 있는데, 그 교육은 ‘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며, 생태적 관점에서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좋다. 교육의 내용은 그들이 지녀야 할 생태철학과, 마을 생태 이해, 지역 에너지와 먹을거리, 지역 내 자원순환, 일상 기술에 관한 강의와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워크숍으로 구성하면 된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숲 해설가, 정원사, 마을 교사, 원예치료사, 자연 및 건강요리사, 태양광 기능사, 목수, 단열공, 생태건축가와 더불어 소통을 촉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을 익힌 이들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과 공동체 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공동체 내에 역동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관계를 회복시켜갈 것이다. 결국 마을 전체가 커다란 학교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또 마을을 지속 가능한 곳으로 전환시켜 갈 것이다.

### 지구복원을 꿈꾸며 이루어 가는 기독교 생태환경교육

요즘 교회마다 미래세대로의 신앙 전수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 신앙전수에 있어서도 생태환경교육은 필수적이다. 한겨레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2배나 높다<sup>33)</sup>. 그만큼 청소년들은 주거와 건강, 직업과 노동에 있어서 더 위협을 받는 등 기후위기를 일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미래세대 스스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은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위험사회를 담대히 마주하고,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받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단 한 생명도 소외됨 없이 받은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지구복원의 꿈을 꾸고 이루어가게 하는 신앙교육이어야 한다.

31)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나뿐인 지구를 현재 3.5개나 사용하고 있는데, ‘지구생태용량’을 초과하는 날이 4월 10일이다(전 세계적으로는 1.7개를 사용하고, 8월 8일에 지구생태용량을 초과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생활하면, 4월 10일이면 지구 생태용량을 초과한다는 뜻임

32) <지속가능한(전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의 예 (유미호 지음, 생명살림 마을교회, 나눔사)  
1) 지역 먹을거리 전환프로젝트, 2) 마을정원(텃밭)과 도농상생 프로젝트, 3) 지역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4) 쓰레기제로(자원순환) 마을 프로젝트, 5) 생태감수성 높이기 프로젝트, 6) 일상 속 환경교육 프로젝트, 7) 탄소중립 선언 및 전환마을 프로젝트

33) 한겨레신문 2021. 1. 5일자

더불어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실질적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 기후 악당 소리를 듣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게 하려면, 각자 각자가 탄소배출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 원인을 찾아 기후 행동으로 이어가게 해야 한다. 저탄소 부문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키우고, 그를 위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sup>34)</sup>

1. 모두를 위한 생태시민(생태영성) 및 생태교육 전문가 양성 : 교우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의와 배려라는 덕성을 동기로 하고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 비인간 존재에 대해서까지 책임 있는 공적 및 사적 활동을 하는 생태시민의 소양을 갖추게 하되, 가난한 자, 미래세대, 신음하는 자연에 진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별히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환경선교사, 생태리더십 아카데미, 온라인 그린스쿨, 생태영성 훈련, 생태영성의식성찰 기도, 생태리터트, 세계의 환경교육,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기독교 퍼실리테이션, 지역사회와 마을환경선교 전문가교육(마을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환경교육), 생태전환을 위한 생태시민 가치성장학교 가운데 몇 가지 과정을 연계해 이수하면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환경선교 전문가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명한다.

2. 지구복원을 위한 행동 교육 :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4분의 1은 멸종에 직면했고, 상당수는 이미 멸종했다.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생물다양성 문제에 관심을 두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행동 교육이 필요하다. 유엔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생태계 복원의 10년'으로 선포했고, 올해 총회를 통해 황량하고 오염물질로 가득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한 구체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비인간존재에 대한 시선을 바꿀 뿐 아니라,<sup>35)</sup> 기후위기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이해함으로써<sup>36)</sup>, 지구와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지켜내고 하나

34) 2050 탄소중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의 4개 업종에 대한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상위 1%업체는 10곳 이내인데,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이 전체의 87.2%에 이른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에너지와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에 속한다.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의 4개 업종이 전체 배출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35) <동물과 자연에 대한 시선 바로잡기>

- 낮 시간 산보하면서 햇볕의 따스함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고 머물라(밤이라면 작은 촛불 하나 켜두고 침묵 가운데 밤하늘을 바라보며 해돋이와 해넘이를 상상해 보라). “내 어둠 속의 빛은 누구인가?”
- 자신의 숨을 느끼며 구름을 바라보며 (가을)바람을 느껴 보라.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가?”
-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맨발로 흙을 밟아 보라. 흙을 만져 보고 흙내음을 맡아 보라. 정원에 꽃을 가꾸어 보라. 수많은 과일들과 빛깔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라. “우리가 와서 돌아갈 흙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 내 품에 안겨있는 몸집이 작고 약한 동물을 상상해보라. 강한 습격자나 격렬한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숨겨 굴이나 바위틈에 있는 토끼나 너구리를 상상해보라. 우리 밥상에 오르는 가축들이 태어나서 도축되기까지를 상상해보라. “이들 동물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들인가?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라치스코(조토 디 본도네, '새들에게 설교하는 아씨시 프란체스코 사진 참고)'의 자리에 자신이 선다면 새(동물)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

36) 유미호, '위기에 처한 돕는 배필, 동물', 교육교회 2019년 10월호, 기독교교육연구원

님 보시기 참 좋은 세상을 회복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

### 3. 오염물질을 줄이는 일상 교육

2020년 서울지역 3개 교회를 대상으로 다음 세대들이 머무는 공간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에 대해 검사한 결과, 교회 예배당과 교육공간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꽤 많이 검출됐다. 중금속 함유량이 위험 단계로 확인된 건 조사한 791건 가운데 167건, 21%에 달했는데, PVC 재질인 시트지,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 슬리퍼 등에서 중금속 검출 비율이 높았다. 유아용 작은 의자나 책걸상에서 납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바닥에 까는 매트 등과 더불어 아이들이 계속 활동하는 공간인만큼 우선순위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출입문 등에 바른 시트지와 뽀족한 모서리에 덧댄 몰딩, 어린이용 매트, 장판 같은 바닥재에 PVC 재질이 많이 사용됐다. 교회가 교우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환경 실천을 이끌어가려면, 그들의 몸과 마음(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예배당과 아이들이 머무는 교육공간이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가며 교육해볼 일이다.

4. 탄소중립 녹색교회를 위한 전환 교육 워크숍 : 2050 탄소중립의 목표를 자신과 소속 공동체의 과제로 여기고 일상과 교회 현장에서 영역별로 이루어가도록 실험하는 워크숍을 열어 진행한다. 마을교회의 과제로서 건물 에너지, 자원순환, 도시숲밭(피머컬처) 분야에서 자체 역량에 맞는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생명살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걷고 나누는 탄소사냥을 통한 환경살림나눔발전소나 제로웨이스트샵 등을 운영해보면서 모두의 풍성한 삶을 위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게 할 수도 있다.

### 끝맺는 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미 7:13)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기후위기 등 지구 절멸의 위기 한복판에서 교육하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소인 지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 정화되어 자신은 물론 모두의 탐욕을 씻어내고 신음하는 피조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sup>37)</sup>에 따르면, 생태환경교육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사에 의하면 200여 명의 교회학교 사역자 중에 '93.2%가 중요하다'(매우 중요 62.3%)라고 답변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생태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은 채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 지

37)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지구위기시대의 교회학교를 위한 설문'(2018) 조사결과

도자의 무관심은 물론 생태신학(창조신앙)에 대한 교양 부족, 생태환경교육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교사와 교육콘텐츠의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했거나 진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2021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구적 상황은 지구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가 파괴돼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있다. 우물쭈물할 새가 없다.

-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를 소중히 여기는 생활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
-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
- 환경문제에 있어 우리 가족, 우리 동네라는 한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
- 우리 세대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후손을 함께 생각하는 것.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더불어 함께 위의 네 가지 생태환경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sup>38)</sup>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낮아지는 위상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의 생태환경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동안 주말농장 및 텃밭 가꾸기, 생명 밥상 차려 남김없이 먹기, 생활 속 에너지절약 및 CO2 줄이기(교회 절전소), 자연학교 및 녹색 수련회, 계절에 말 걸기를 통한 생태 감수성 키우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프리 실천 및 교회숲(정원) 가꾸기, 숲 성경학교 운영 및 생태환경교육실천가로서의 환경선교사 양성하는 등 녹색 그리스도인을 훈련하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것은 녹색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향 설정, 즉 생태학적 회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 중심, 물질 중심, 과학기술 중심이던 마음과 정신과 행동을, 생명 중심으로 돌아서게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생태환경교육적 의미를 띤 예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은 어설픈 교육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보다 주일예배나 별도의 자연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한 달에 최소 한번은 생태 환경력에 따른 지구(목상)주일이든지 크리스찬 어스 아워(지구를 위한 시간)을 지켜 다양한 예배와 교육, 친교와 봉사 활동을 해보는 것이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이 창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지금의 위기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신앙적 대안을 찾게 해줄 것이다.

이제 팬데믹과 기후위기시대의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에 남겨진 몇 가지 숙제를 생각해본다.

첫째는, 지속가능성이다. 변화가 지속가능하려면 교회 구성원들이 자체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변화해야만 가능하다. 교회 내 구성원들이 이론과 체험, 행동을 거쳐 상호 간에 통합학습을 겪은 개인과 교회의 변화라면,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교회들의 현재 모습을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으나, 공론장서 논쟁과 경험을 나누었던 교회의 전통을 살린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것이 결국 일상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신뢰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교우들 간의 상호소통이 있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구돌봄서클’과 ‘계절의 말걸기’ 및 개교회별 ‘생명살림워크숍’은

38) 종교인평화회의가 환경보전을 위해 정한 윤리적 강령

그 길을 여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자신이 있게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숨겨진 생각과 느낌, 의지를 끌어내어 창조적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기존의 이론과 체험만으로 이루는 행동의 변화보다는 더딜 수 있으나, 단순한 지식습득이나 경험을 넘어 현 생태환경 위기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하게 해줄 것이다.

둘째는, 주제의 다양성이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을거리, 에너지, 동식물 등 환경뿐 아니라 복지, 인권, 문화, 정치, 경제, 세계화 등 다양한 주제와의 접목이 필요하다. 성서에서 예언자들은 단순히 그 시대를 비판하고 저항하고 규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신앙적 대안을 찾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태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생태환경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기술이나 자원의 개발, 정치 경제적 영역에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간 의식의 근원적 전환이 더 절실하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생태 환경교육의 고유한 역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분리수거나 특정의 식물과 동물의 보호라는 행동양식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체의 생명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분별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거대 위기 앞에서 하는 생태환경교육은 자칫 부정적 인식을 도출해 도피하게 할 수 있으니, 자연에 대한 근원적이며 생태적인 인식을 하게 하여 미래를 긍정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현 생태환경 문제의 긴급성을 생각하면 환경 각 영역별로 단기적 처방에 대한 교육도 시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근원적 삶에 대한 기본적 방향이 제시되어 실제 삶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생태영성 훈련과 기도회’, ‘생태영성 리트릿과 의식성찰 기도모임’과 같은 교육프로그램<sup>39)</sup>은 근원적 전환을 돕고 있다. 자연 안에 들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침묵을 배우고, 그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의 자기의식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돕는다. 그리고 인간만이 아닌 모두가 골고루 풍성히 누릴 공동의 세계를 보게 한다.

셋째는, 리더십이다. 현재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된 교회는 거의 없다. 담당자가 있더라도 자주 바뀌어 일회성 이벤트로 기획되는 등 인식의 전환을 위한 시도로는 부족하다.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이 더 활성화되려면, 그간 각 교단 사회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교단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단체의 상근/비상근 교육활동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 교회와 지역교회연합회 내에 기독교 생태환경교육 전문 인력(환경선교사, 살림 코디네이터 등) 풀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들 역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이로서가 아니라 생태위기 앞에서의 분별력을 갖춘 이로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갖춰가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간 환경교육을 수료하고도 활동이 미비하고, 또 연합회 차원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지 교회나 지역사회로 연계하지 못한 것은 환경교육이

39)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한국살렘영성훈련원이 함께 생태영성동역자모임을 구성하여 진행중.

단순 지식 전달과 체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육 후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훈련을 받을 수 없어 활동은커녕 연계를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점도 있는 듯하다.

교단 총회나 지역교회연합회의 성서신학원 내지는 문화센터, 교단의 신학대학교나 기독교교육학회 차원에서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감당해갈 기독교 생태리더십을 갖춘 ‘(마을)환경선교사’ 내지는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사’와 같은 지도자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해봐도 좋을 듯하다.

넷째는,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을 촉진시키는 ‘지구돌봄서클’이나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꿈꾸는 지구정원사’ 토론토구나 ‘2050 노아의 방주’ 영상과 같은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는 일과,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2018년 조사한 교회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수가 교육을 하지 못한 이유를 지도자의 무관심과 교양 부족, 그리고 교육콘텐츠의 부재를 이유를 들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미래세대들을 위한 기독교 생태환경교육교재 부분은 교단과 무관하게 ‘지구복원을 위한 10년’의 비상한 교육행동을 제시하는 연구 및 실행팀을 구성하여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또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 연계 속에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면, 교회 구성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교회들과의 관계, 마을 내 이웃 종교 및 마을조직은 물론 지자체나 국가적 차원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이다. 충분히 조사한 후 교회가 마을 안에서 생태환경 교육기관의 역할을 이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지원 내지는 협력방안을 찾아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 안에 있는 환경 관련 조직과는 마을 생태자원을 파악하는 일로 연계하되, 교회 환경감사(수목 현황 파악 포함)를 기초로 마을생태환경지도를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특별히 생태환경자원으로서의 마을숲(정원)에 대한 파악은 정기적으로 숲성경학교를 여는 등 상시적인 생태감수성(영성) 교육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더불어 생태환경복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되, 공공기관의 보호가 닿지 않는 사회적 생태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행히 점차 교회 내에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듯하다. 그 교육이 일회성 특강이나 세미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의 삶을 나누며 변화를 만들어가게 돕는 교회숲(정원)이나 플라스틱프리 카페 혹은 제로웨이스트숍(교회리필스테이션), 생태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공간을 만든다면, 교우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지구돌봄의 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인류가 교육을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본다. 자연의 섭리를 깨달아 자연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게 하려는 것 아니었을까. 기독교 생태환경교육의 전제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다양한 생명체들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고 선언했다(창1:20,22). 사람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생육함, 곧 풍성함을 명령한 것이다. 물고기뿐 아니라

익충과 해충, 그리고 잡초까지도 모두 제 몫을 하며 한데 어울려 사는 세상이 정말로 건강한 삶이요, 지구 전체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참 좋다'고 긍정적인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고 창조주의 뜻이 온 땅 위에 충만한 곳이었다. 기독교 교회는 물론 학교와 기업, 시민단체, 정부 등이 모두 합심하여,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란다.





# 기후위기와 교회의 책무 - 복지적 대응

이준모 / 해인교회 목사



## 1. 개관 :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



(동영상 시청)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2. 인천내일을여는집 기관 구성

### ●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이사장 : 이준모 목사)



● 1998년 IMF 발생/  
해인교회가 설립


● 사회복지 기관 8곳  
사회적기업 3곳  
협동조합 1곳

● 민간차원의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대통령 표창)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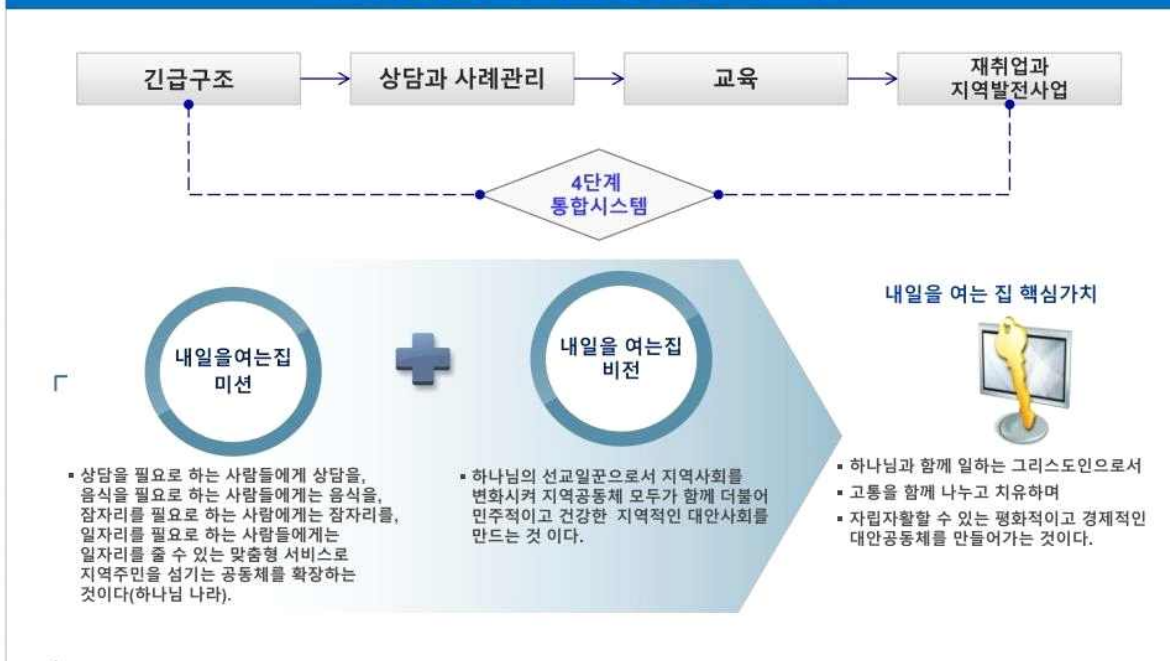
### 3. 인천내일을여는집의 사업의 추진방향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4. 인천내일을여는집과 미션, 비전, 핵심가치

#### 현장중심의 4단계 통합시스템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5. 인천내일을여는집과 민간 사회안전망

### □ 실직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민간사회안전망 흐름도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II. 코로나19와 사회복지적 대응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

## ■ 코로나19 유행으로 심화되는 불평등

-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다.
- 또한, 이번 위기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평등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OECD분석에 따르면 회원국 국민의 36%는 무소득 기간이 3개월에 달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재무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데 낮은 보호 정도와 높은 사회 접촉도로 인해 코로나19로부터 입는 타격이 더욱 심각함에 따라 '돌봄 공백' 문제가 커짐.

## ■ 철저한 방역 하에 사회복지서비스 정상 제공

- 법인 내 각 기관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
  - 기관별로 내 외부 소독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 보고 체계 수립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을 기준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인한 전염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안전을 확보
- 기관별 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용품 등 긴급 서비스 지원 강화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2. 내일을여는 자활쉼터 사업(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보호사업

숙식, 의료, 신원회복, 생활지도, 체육활동 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자활의 길을 제공



노숙인상담사업

고위험군인 거리노숙인을 발굴하고 개입하여 위기 노숙인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보호




주거지원사업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에게 임시주거지원을 통한 탈 노숙 및 자활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사업

노숙인보호사업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활인들에게 적절한 심리 및 경제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생활 등을 독려하여 자활의 기초 토대 마련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2-1. 내일을여는 자활쉼터 사업(노숙인 자활시설)

### ● 내일을여는 자활쉼터 코로나19 대응 방안



#### 물품배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거리노숙인에게  
주 5회 도시락과  
마스크 등 위생물품을  
지원



#### 노숙인상담사업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내방자 상담시  
일시보호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을 진행



#### 교육사업

생활인들의 자활을 위한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신용회복프로그램,  
금융교육프로그램,  
설명절프로그램등을 진행



#### 방역

매일 방역복을  
착용하고 생활관을  
소독하여 코로나19에  
대응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3. 인천쪽방상담소 사업(노숙인 이용시설)



#### 사례관리사업

쪽방주민을 위해  
초기상담,  
의료서비스지원,  
위기관리사업,  
긴급생계지원, 폭한기  
혹서기 집중사례관리,  
생계지원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긴급구호지원,  
자활지원,  
일자리연계사업 등  
진행



#### 긴급생계지원

질병 및 생계곤란 등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주민들에게 월세비,  
생계비, 긴급난방비, 각종  
연체료(의료보험, 전기,  
수도) 등을 지원



#### 지역사회보호 및 교육문화사업

무료급식지원서비스,  
무더위쉼터운영,  
물품지원서비스,  
편의지원서비스연료지원  
서비스 문화복지중점사업  
(가을나들이, 작은음악회,  
함동철순잔치, 감자  
고구마 심고 캐기 체험)



#### 주거복지사업

노숙인 쪽방주민 보증금  
지원 및 안심주택  
지원사업 및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의 안전한  
자립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돕는 등  
주거생활환경을 개선



#### 직업자활사업

자활공동작업장(노인  
일자리 공용)사업을  
통해 정년퇴직, 노화 등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0세 이상 쪽방주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3-1. 인천쪽방상담소 사업(노숙인 이용시설)

#### ● 인천쪽방상담소 코로나19 대응 방안



**물품배분**

'마스크 보다 먹을 것이 더 필요하다'는 쪽방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하는 사랑밭(즉석국, 즉석밥 등), 도시락, 먹거리 등을 준비하여 제공



**쪽방주민상담사업**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상담이 불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주로 전화상담으로 진행



**교육사업**

거리두기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책상 가림막을 설치하여 감염병 예방에 안전을 기하며 소규모 인원으로 코로나19 등 필요한 교육을 진행



**방역**

방역에방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을 지급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여인숙 등에 정기적인 방역 실시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4. 내일여성쉼터 사업(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보호사업**

숙식, 의료, 법률, 동반아동, 자립 등 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법적지원사업**

무료상담  
수사  
법률지원  
학습연계 및 동반등교  
비밀 전학 등



**치료회복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개별상담  
집단 미술치료  
원예치료  
삼리극  
음악치료  
요가  
문화체험  
포트아크 등



**기타사업**

소방, 전기, 가스, 화재 안전교육실시 및 폭력예방교육  
직업훈련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4-1. 내일여성쉼터 사업(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

### ● 내일여성쉼터 코로나19 대응 방안



#### 소독용품 비치 및 소독

손소독제, 소독수 등  
예방용품 비치  
예방습관 지도 및 시설  
매일 소독  
입소자 마스크지원



#### 건강모니터링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종사자 동선 확인  
방문자 열체크  
종사자 코로나 2주 1회  
체크 작업



#### 교육사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식사, 상담, 프로그램 진행  
시 가림막 설치



#### 퇴소자후원물품 지원시 드라이브쓰루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후원물품 지원 시  
드라이브쓰루 진행

사단법인 인천내일여성쉼터

## 5. 가족상담소 사업(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 상담사업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SNS 등)



#### 치료회복사업

행위자교정치료프로그램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위기가정통합관리  
112신고가정 상담



#### 교육사업

양성평등교육  
성인권교육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직원역량강화교육



#### 예방홍보사업

캠페인  
보라데이  
가정폭력의식조사  
SNS 홍보



#### 기타사업

멘티 멘토사업  
찾아가는도서지역  
이동상담  
아동학대 예방,  
상담 사업

사단법인 인천내일여성쉼터

## 5-1. 가족상담소 사업(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 ● 가족상담소 코로나19 대응 방안



집단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자 축소



상담사업

전화상담  
대면상담시 가림막  
사용



교육사업

오프라인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방역

전문업체 방역  
마스크 상시 착용  
채온 체크  
소독 및 환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6.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사업(노인일자리 지원 시설)

**보리복지부 지정**  
**인천계양시니어클럽**  
IGSC

**기본현황**

- 기관 명 : 인천계양시니어클럽 (노인복지기관)
- 설립일자 : 2004. 3. 15 (보건복지부 지정)
- 소재지 : 계양구 개암산로 102길 5 사회복지회관 2층
- 전화 : 032-555-6330
- 팩스 : 032-551-6330

2021년 사업추진현황

| 연번  | 사업유형   | 사업명        | 사업내용                                       | 배정인원  | 사업기간 |
|-----|--------|------------|--|-------|------|
| 1   | 공익형    | 노노행복누림     | 노인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 300   | 11개월 |
| 2   |        | 출산가정도우미    | 36개월 미만 출산가정의 가사지원                         | 30    | 11개월 |
| 3   |        | EM 환경지킴이   | EM 활성액을 이용한 공공시설 및 학교 환경정화 활동              | 250   | 11개월 |
| 4   |        | 아이 사랑 도우미  | 초등학교 저학년 통고교 지원                            | 40    | 11개월 |
| 5   |        | 신림지킴이      | 계양 통신로 정비 및 산물예방                           | 250   | 11개월 |
| 6   |        | 한자지도사      |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한자 교육                        | 20    | 11개월 |
| 7   |        | 하천환경정화단    | 지역 내 소하천 주변 정리                             | 100   | 11개월 |
| 8   |        | 도담도담보육지원사업 | 가정 어린이집 보육보조                               | 100   | 11개월 |
| 9   |        | 전통시장 지킴이   | 전통시장 내 청소 및 안내                             | 60    | 11개월 |
| 10  |        | 자친가보관소 사업  | 자친가보관소 주변 환경정리 및 정화 활동 홍보                  | 48    | 11개월 |
| 11  |        | 시니어안심생활방역단 |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마을가정,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 소독 및 방역 관리 | 150   | 11개월 |
| 12  |        | 술 상태 해설    | 어린이집, 유치원 술 상태 해설 및 술 체험 활동                | 30    | 11개월 |
| 13  |        | 실버감사파견     |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이접기, 동화 구연, 전통문화 교육         | 35    | 11개월 |
| 14  |        | 지역아동센터도우미  | 지역아동센터 환경정화, 급식 보조                         | 60    | 10개월 |
| 15  | 사회서비스형 | 아이틀러스      |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보조                            | 40    | 10개월 |
| 16  |        | 19안전관리단    |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사화) 등 출입차 발열체크 및 출입기록 관리 지원 | 45    | 10개월 |
| 17  | 시장형    | 한우리공동작업장   | 소평택 일가공                                    | 50    | 연중   |
| 18  |        | 아파트택배사업    |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 9     | 연중   |
| 19  |        | 어머니밥상      | 한식당 운영 (일반인 및 주문 음식 제조 및 판매, 배달)           | 30    | 연중   |
| 20  |        | 온빛마용실      | 이미용 사업(매장 운영)                              | 11    | 연중   |
| 21  |        | 희망손수레      | 지역 내 폐지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               | 20    | 연중   |
| 22  | 시니어인턴십 | 시니어인턴십     | 만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연계 사업                | 70    | 연중   |
| 소 계 |        |            | 총 22개 사업                                   | 1,748 |      |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6-1.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사업(노인일자리 지원 시설)

### ● 인천계양시니어클럽 코로나19 대응 방안



#### 교육사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자가격리 대응방법 교육,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교육,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대응방안 교육 실시



#### 상담모니터링사업

22개 사업단 참여자 1,748명 활동 현장 모니터링 실시(체온체크 및 이상여부 확인)




#### 안전관리지원사업

코로나19 유행대비 참여자 집중관리 대응방안, 시설방역관리, 업무공백대응방안, 시장형사업단 코로나19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 점검, 코로나19 대응 비상연락망 구축, 코로나19 대응 운영메뉴얼 구축



#### 방역관리지원사업

시니어안심생활방역단 운영(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 소독 및 방역관리) 비상차단 가림막 설치, 페이스섯드,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7. 해인지역아동센터 사업(아동복지시설)



#### 보호사업

성장발달검사  
불소도포  
급식교육  
안전교육 등



#### 교육사업

기초학습(국,영,수)  
한문(천자문, 명심보감)  
체육학습  
과학실험  
미술활동  
영어 특화 프로그램



#### 문화사업

놀이공원 캠프  
나들이  
영화관람  
요리활동  
체험프로그램 등




#### 정서지원사업

아동, 연고자 상담  
부모교육  
가족동반활동  
생일파티  
원예활동 등



#### 지역사회연계사업

자원봉사 등 인적연계  
하원물품 등 물적연계  
프로그램 연계  
자원개발  
단체협약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7-1. 해인지역아동센터 사업(아동복지시설)

### ● 해인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대응 방안



**예방물품 비치**

손소독제, 소독수 등 예방물품 비치하여 예방습관 지도 및 센터 소독



**가림막 설치**

센터 운영 재개 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가림막 설치



**건강 모니터링**

센터 이용 아동 및 종사자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및 종사자 동선 확인



**가정방문지도**

방문 학습지도 방문상담 도시락 배분 물품 배분 등



**가정내 프로그램**

가정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물품 제공

사단법인 인천내일어린이집

## 8. 계양구푸드뱅크&마켓 사업(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물품지원사업(푸드마켓)**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저소득층의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한 달에 한 번 식품 및 생활용품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5품목)



**뱅크&마켓 홍보사업**

홍보활동을 통한 푸드뱅크&마켓 사업의 인지도 고취와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바자회 및 사회복지 행사 등에 부스 운영 및 판넬 설치로 홍보



**물품배분사업(푸드뱅크)**

한 달에 2번 기부받은 물품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자들에게 직접 물품을 배분



**이용자간담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푸드뱅크와 마켓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모임이 어려워 전화와 푸드마켓 팸플릿을 이용하여 마켓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사단법인 인천내일어린이집

## 8-1. 계양구푸드뱅크&마켓 사업(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 계양구푸드뱅크&마켓 코로나19 대응 방안



#### 명동푸드마켓 사업

배달서비스 제공을 통한 코로나19 시대의 지속적인 푸드마켓 서비스 지원으로 소외계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물품배분(푸드뱅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충분한 배분시간(2시간)을 두고 이용자가 물리지 않도록 거리두기 후 물품배분 진행



#### 방역사업

전문업체 방역  
마스크 상시 착용  
체온 체크  
소독 및 환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1. 해인교회와 사회복지선교적 사역

### ■ 해인교회의 역사

- 해인교회는 1986년, '인천 해방, 인간해방'의 앞자를 따서 '해인교회'(解人敎會)로 지음
- 해인교회의 설립목적은 가난한 노동자, 빈민을 위해 신앙공동체를 설립(民衆敎會)

### ■ 해인교회의 선교사역

- 해인교회는 1998년 IMF 전과 후로 사역이 구분
- 1998년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민중선교(약자의 인권보호, 민중의 삶을 지원, 진보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신앙공동체 형성)
- 1998년 이후에는 실직자, 노숙인, 가정폭력피해자, 빈곤노인 등 사회복지적 사업을 전개
- 2007년 교회 이전(계양산 밑)으로 환경운동에 관심(인천녹색연합 상임대표)

### ■ 해인교회, 1998년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설립

-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회(9명) - 법인 사무국(2명)-직원(53명)-사회적기업 3곳, 협동조합(1곳)
- 해인교회와 인천내일을여는집 : 신앙공동체, 교육공동체, 생활공동체로 유기적 관계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 제5회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 종합토론



사회 /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기윤실 공동대표)

## 자료



### 2020 한국교회생명신학문서

제4회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을 마치며 작성된 문서입니다.

## 자료



2020 한국교회 생명신학문서 보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학문서”

#### 〈우리의 신앙고백〉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엡 1:22)

#### 〈코로나 19 위기 앞에서〉

1.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9만4천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한다. 1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2154만 명, 사망자도 76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540만 명, 사망자는 17만 명이고, 브라질은 확진자가 334만 명, 사망 10만 명이고, 인도는 확진자가 258만 명, 사망자 5만 명 정도라고 하니 코로나19는 “우리 시대의 완벽한 대유행 바이러스”가 아닐 수 없고, 과연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이 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2.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충격은 실로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한 달에 3,750억달러(약 444조2,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고, “2년간 누적 손실은 12조달러(약 1경4,214조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3.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동물의 서식지인 숲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괴롭히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온 인간의 잘못된 삶의 결과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문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문명전환〉

4. 하나님의 창조세계(자연)가 심하게 병들었다. 우리의 지구는 더 이상 ‘건강한 지구’가 아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21세기 말쯤에 가서 산업혁명 때보다 4~5도 정도 오른 뒤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것은 재앙적 수준이다. 지금은 매우 위중한 시기다. 성서적으로 지금은 노아의 홍수 직전의 시기다.

5. 지금 인간의 문명(文明)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초미세 바이러스에 의해 무너졌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다윗 왕의 반지 속 글귀를 기억하며 속히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꿈꾼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은 어디에도 없다. 박쥐가 평화롭게 잠자고 있던 숲속의 동굴 앞까지 불도저로 길을 뚫은 과거 우리의 일상은 결코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다. 곧 쓰레기가 될 물건을 무한히 생산하고,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며,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과거 우리의 이른바 ‘평범한’ 일상이 지금 이 재앙의 원천이다.

6. 정교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의 말처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생태적 위기’가 아니다. 지금 위기는 우리의 ‘태도의 위기’다. “우리는 지구를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무신론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태도가 본질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현재 문명의 근본 태도를 물어야 한다. 생명과 자연(창조세계)에 대한 기본 자세를 물어야 한다. 태도나 자세는 형식이나 겉모양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이고 내용이다. 본질이 바뀌어야 문명이 바뀐다.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인간과 자연의 연계성을 망각하고 사람의 생각과 에너지를 온통 소득과 소비와 경쟁에 쏟아붓도록 강요하는 문명은 대단히 예외적이다. 우리는 이 예외적이고 특권적이며 오만한 지금의 자세와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문명전환의 시작이다.

7. 지금 우리의 문명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거룩하고 신비롭게 볼 줄 아는 깊고 푸른 눈이다. 자연을 성례전(聖禮典, sacrament) 혹은 성사(聖事)로 보는 영적 눈이다. 성찬용 빵과 포도주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이 다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로마서 1:20)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집’(oikos)이다.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이룩한 소위 문명은 이런 영적 감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인간과 지구 사이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어울림’을 다시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서 문명의 전환은 시작된다.

### 〈순환경제〉

8. 코로나 발생 이후 통관 검역의 문제로 세계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서유럽에서 140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국제무역의 확장 추세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춤하게 되었다. 이런 사태는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자연이 인간사회에 가할 수 있는 충격의 수단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인간사회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코로나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 해도 다른 전염병의 지속적인 창궐에 의해 국제적 거리두기가 일상사가 된다면, 국제 분업 체계로 이어져 온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불가피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지역, 구체적으로는 유역(流域)을 단위로 한 물질순환

체계가 국제무역체계와는 정반대 방향의 대안이다. 140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역사적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고 해도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종착점을 생태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9. 지금 한국경제가 살길은 물량 중심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국제 분업 시스템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생명력은 계속 고갈된다. 특히 인적 자원 문제가 심각하다. 곳곳의 자연환경 파괴 역시 자연을 생계의 기반으로 돌보지 않는 수출중심의 성장 일변도 경제가 가진 문제점이다. 코로나는 일단 이런 구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원재료와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요하는 순환경제, 그리고 노동력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적 경제(먹거리, 교육, 문화, 주거 등)와 일터 민주주의에서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공중보건과 한국교회〉

10.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한 현재의 사회개발이 더 이상 지속하지 않다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사회 전체의 시스템에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의 확산과 더불어 모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기존 교회의 모습에 큰 위기가 찾아 들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방향을 잃었다. 탐욕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교회 세습이 이뤄졌다. 교회의 이중적인 태도로 교회의 신뢰는 곤드박질 쳤다. 비전 제시없이 교회 성장만 강조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모이지조차 못하니 이제 교회의 무기력한 모습이 코로나19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인들은 썰물과도 같이 교회를 빠져나갈 것이다.

11. 공교회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기복신앙, 교회중심적 신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신학, 공공신학을 가지고 공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과거 선교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교육, 의료, 복지기관을 사유화하지 말고 공기관으로 시민들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에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K-방역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리딩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존중, 시민 참여, 개방과 투명성, 공공성, 민관협력 등이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촛불혁명의 힘이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룩해낸 저력이 발휘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12.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저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외와 배제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공교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보건과 돌봄의 위기 앞에 교회가 나서길 제안한다. 지역공동체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경제 발전에 교회가 솔선해 나서야 한다. 각 교회마다 돌봄의 현장을 가지길 제안한다. 5명이면 돌봄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기에 돌봄협동조합을 설립해 그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현장을 찾아 이들을 돌보는 돌봄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그 지역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여러 협동조합과 협력하며,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교회가 사회의 위기 앞에 책임적으로 나서야 한다.



### 〈교회목회〉

13. 코로나19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 새로운 도전과 성찰을 하게 한다. 크게는 문명사적 대 전환을 경험하며 인류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고(New Nomal)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해 나가는가에 따라 교회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압박들 앞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가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어 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더욱 복음적 성찰과 시대를 읽어가는 밝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14. 코로나19는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주일, 예배당, 성직자 중심의 신앙에서 일상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고, 교회의 존재와 본질을 회복하도록 도전이 되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신앙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며 순응과 적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숭고한 사명과 시대와 역사 속에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복지목회〉

15.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생된 이후 한국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분야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계이다.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아래 보편적 복지를 사회복지계의 기조로 잡고 있었다. 국민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사회복지의 일반적으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국민적 정서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논의를 불러일으키더니 결국 실행되었다. 복지계에서는 상상도 못 한 일이 단순간에 일어났다. 대한민국 역사이래 전 국민이 국가에서 주는 서비스를 체험했고, 보편적 사회복지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선순환 경제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16.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공적 전달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보편적 사회복지 영역이었고, 이와는 달리 극명하게 다른 차원이 있었는데 국민의 협력과 헌신, 열정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자원봉사를 포함한 민간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한국교회는 지역의 약자를 위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 운동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약자를 위한 도움 행동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의 영역을 시급히 만들어내야 하고, 특별히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은 한국교회가 함께 해야 할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선교〉

17.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는 지금 연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구 안식년’의 해로 기억될 듯하다. 비록 강제적 멈춤이 가져다준 것이지만, 하늘과 강은 맑아졌고 목표수치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던 지구 온도 상승도 상당히 억제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요, 지나가더라도 변형되어 반복될 것이란 예측이다.

18. 온전히 멈추게 하려면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우리 중심으로 자연을 길들여온 삶을 되돌이켜야 한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코로나 19보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위기로 종의 멸종으로, 살인적 폭염과 폭풍, 가뭄과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과 식량문제 뿐 아니라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의 일로 여기고 있다. 인류에게 응급을 알리는 경고등이 수도 없이 켜졌지만 긴급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라는 위급 상황을 만나 오히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 비닐봉지와 포장재 쓰레기만 더 늘려가고 있다. 그래도 이번 코로나 19의 재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구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대응한다면 위급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서둘러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행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물종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해야 한다. 사라져가는 생물종 자체의 보존뿐 아니라 숲이나 바다 등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일이 급하다.

19.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목상하며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일상은 물론, 산업과 발전 그리고 산과 강과 바다를 개발하면서 배출해온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시스템을 온실가스(탄소) 제로를 향해 전환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물쭈물할 새가 없다. 지구의 생태용량을 기억해내고, 석탄발전과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해도 10년 내 이산화탄소를 45% 줄일 수 있고, 2050년까지 순제로를 이룰 수 있을까 말까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공존하는 법을 깨달아 서로 지지하며 연결됨으로, 코로나 19 이후의 삶을 지속시켜낼 지구 생명공동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 〈해외선교〉

20.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는 다각적이다. 그 가운데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 세상을 당신과 회복시키시며 상호 간에 새로운 통일과 질서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 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21.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은 불과 반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경제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는 늘 있던 것이지만, 사회적 규범으로서 늘 존중된 것은 아니

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기중심적 사고는 개인의 인지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서도 급격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지적 차원으로 넘어, 규범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때 이는 곧 법과 규칙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성격을 띄게 된다.

22. 자기중심성의 규범화와 제도화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간관계 안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경제적 활동을 위한 계약 관계, 둘째,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나 제도적 권위에 대한 순응, 셋째, 생태, 보건, 평화 등의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협력 등 필요에 의한 관계들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친밀성의 교제가 최소한의 규모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 이런 현상적 변화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은 고백적 규범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런 변화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의와 공의를 새롭게 드러내신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 변화 가운데서 복음의 새로운 성찰과 적용을 통해서 그동안 간과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발견하고 더 풍성하게 증거하는 계기로 삼는다.

24. 개인중심성의 규범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장이라는 복음을 주목하며, 경제적, 공공적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머물던 복음을 세상 가운데 가져가야 함을 생각한다. 특별히 성직자와 종교 중심으로 진행되던 복음증거가 평신도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인간 문화 속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소식으로 이어져야 함을 성찰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제도적인 틀을 뛰어넘어 진정한 관계성에 기초한 코이노니아를 재발견하며 세상 속에서 작은 관계로 새롭게 형성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 〈시민운동〉

25. 인간의 탐욕과 인간중심적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가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북극빙하 붕괴, 남극 오존층 구멍 등을 보며 롬 8:22의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을 떠올렸는데,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와 닿는 현실이 되었다.

26.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는 대구시의 대응을 보면서 지방정부의 혁신을 요구하게 되고, 사회적 소유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확대 등 경제구조의 혁신도 요구되며, 세대갈등의 증가와 개인주의심화, 차별과 혐오확대로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도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는 예배형식의 변화에 따른 지역교회라는 전통적 교회관의 변화가 예상되며, 전통적 교회관의 변화에 따른 신앙생활형태의 변화도 예상된다.

27. 코로나19 이후의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의제의 변화와 시민운동실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재난대응 시 민주적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상황 시 사회적 안전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보류해야 하느냐는 사회적 안전과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익숙해 있던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회의, 운동 방식에서 이미 시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SNS

방식의 회의, 운동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28. 또한 이점에서 한국교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교회 구성원 각자의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 영역의 시민운동으로 연결해서 지원도 하고, 견제도 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본다. 또한 (기독교)시민단체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으로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부문에 대해 의미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생명문명으로서의 전환을 향하여〉

29.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는 생태계를 착취하고 약탈하면서 지구의 생명체계를 파괴해온 제국주의 문명이 초래한 생태위기와 기후위기의 결과였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인간의 문명을 생명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30. 코로나 사태와 기후 위기는 인간의 문명이 생태계 파괴를 당연시해왔던 인간중심적인 문명의 결과였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풍성한 생명문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중심적인 문명을 지구중심적, 생명중심적 문명으로 바꾸어야 함과 동시에 인간의 안녕(행복)이 자연의 안녕(행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31.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문명이 무한 개발과 무한 성장,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문명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문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32.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세계관이 영혼과 육체,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온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생명문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이원론적인 지배의식을 버리고 통전적인 평등의식을 가져야 한다.

33.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도 교회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어서 기독교의 공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깨우쳐주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문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한국교회는 교회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기독교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 수행의 근본 토대가 되는 하나님나라 신학(또는 공공신학)을 추구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다.

a.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가 교회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서 사회문제, 경제문제, 기후문제 등이 선교의 과제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하지도 못했음을 깨우쳐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생명문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하나님나라 신학을 토대로 하여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참여적이고, 사회책임적이며, 역사변혁적인 사명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b.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적이고, 교회성장주의적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나 생태학적 고통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응답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현상에 대해 책임있는 응답을 하지 못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특히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의 광화문집회는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반생명적 행위였음을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자유와 평등,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꽃피는 세상,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공존, 상생의 신학을 추구해야 한다.

c.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 국가공동체, 인류공동체, 지구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친밀한 사귄을 나누는 가운데 상호관계적인 공동체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교회공동체, 마을공동체, 한국공동체, 인류공동체, 지구공동체 형성(또는 지역사회, 세계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의식, 세계시민의식, 공공의식, 공감의식, 연대의식 등의 형성)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d. 코로나 사태는 기독교가 일상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회집예배만을 강조한 잘못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1:13)는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잠 21: 3)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예배의 소중함 못지않게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의 소중함도 인식해야 한다.

e. 코로나 사태는 일부 목회자들이 코로나19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회집예배만을 고집하여 다수의 확진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잘못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목회자는 신학공부 외에도 사회현상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을 하기 위한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34.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인간의 잘못된 삶의 결과로 나타난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의식과 세계관,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 속에 있는 한국사회의 희망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 무 이박행

신학문서 집필위원회 위원장 정원범

신학문서 집필위원회 위원: 김승무대표, 김의신목사, 유미호센터장, 이승무소장,

이준모목사, 임종한교수, 장윤재교수, 조샘대표

2020년 8월 20일

※ 본 문서는 2020년 6월 4일 광고산울교회에서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열렸던 제4회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문서이다. 포럼이 끝난 이후에도 발표내용들이 좋아서 여러 교회에서 다시 들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용을 요약해서 문서로 정리하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여 신학문서를 만들게 되었다.

※ 2020년 6월 4일, 광교산울교회에서 열렸던 제4회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행사 주관단체

- 공동주최: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 공동주관: 교회와사회연구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복내전인치유선교센터
- 연대후원: 가까운교회, 광교산울교회, 광주다일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사랑누리교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성지골주민교회, 에덴정원교회, 일산은혜교회, 전주열린문교회, 천봉산희년교회, 청량교회, 청주쌍샘교회, 하늘샘깊은샘교회, 경주숲속생명의원, 새숨병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사회적협동조합 희년, 성서한국, 예장합동 순천노회 환경부, 인권시민실천행동, (사)인천 내일을 여는 집,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KECN), 한국인터서브선교회 (이상 28개 단체)

#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 특별 기고문



제5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을 위해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신학적 의미

송진순 / 이화여대 외래교수

### 1. 2050 탄소중립 선언의 배경

지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본 선언은 정부의 주도적 정책 선언만은 아니다. 한 달 전인 9월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시민사회, 기초지자체, 국회가 공동으로 요구한 것으로 이러한 요청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가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에서 10월 선언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임기 내 “탄소중립 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틀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그린 뉴딜에 이은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으나, 정부 정책의 방안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무엇이며 구체적 실현 방안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산림을 통해 흡수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을 통해 제거되는데, 이렇듯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Zero라는 의미에서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 불린다. 흔히 넷제로와 탄소중립이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IPCC에서 말하는 넷제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의 순증배출을 제로화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후중립(climate-neutral)은 탄소중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기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세계 최초로 넷 제로를

선언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국인 중국은 9월 23일에, 일본은 9월 26일에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에 복귀하면서, 바이든은 집권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하여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35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100% 전환과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량 제로를 선언했다. 세계적으로는 70여 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120개 국가가 ‘탄소제로’ 국제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한 배경에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제안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있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해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평균 온도 0.5℃ 상승은 인류에 가공할만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도 놓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지구 온도 상승이 임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상기후와 동식물의 멸종은 환경 파괴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의 심화, 심각한 안보 갈등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다.

## 2. 탄소중립을 위한 해법 및 의미

국가별로 제시한 넷제로를 향한 해법은 통상적으로 10가지로 요약된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투자, 건축물 개축, 소재의 탈탄소화,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대중교통 증가, 항공과 해운의 탈탄소화, 산림복원, 음식물 폐기물 및 쓰레기 감량, 육식감량 및 채식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12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따르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1. 경제구조 저탄소화, 2.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3.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과 4.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시행하면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중핵과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넷제로의 핵심은 탈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만큼이나 그간 불평등한 구조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른 데는 기후변화라는 물리적인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규제 무역 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 및 금융기관들의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압박이 커진 영향이 크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의 재무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을 이룩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탄소중립비전과 한국 기업의 대응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은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억 280만톤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으로 Co2 배출로는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 구조상 수출주도형 경제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미국의 애플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케아,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

하면서 납품업체와 관련 무역업체와도 제품 공급망과 제품 생애주기에 있어서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정세에서 SK그룹과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들은 RE100에 가입하거나 신속하게 ESG 기업경영 원칙을 수용하고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환 과정은 기후재앙이라는 필연적 생존 요청에 응답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라는 피할 수 없는 기업 생태계의 국제 정세의 압박이 큰 몫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화석연료가 인류 문명을 단시간에 혁명적으로 발전시켰지만, 탄소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지구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넷제로 실현을 통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밝아가지만, 오랜 시간 인류의 체질이 된 탄소사회의 자본주의 문명에서 벗어나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기술혁신, 의식구조 등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이 총체적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유진 박사(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 즉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을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화, 소비감소, 탈중개화”(decarbonization, decentralization, digitization, decreasing consumption and disintermediation)라는 5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부문별 책임 주체와 쌍방향의 온라인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은 중앙통제방식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 구조 내 돌봄을 회복하고, 시민 각자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와 관리의 주체가 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3. 탄소중립 사회의 신학적 의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전지구적 문명을 잠식하였다.6) 효율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인간중심주의와 성장주의,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 그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문명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탈탄소사회,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단지 삶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에너지 자원이나 기술 변화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이는 환경위기와 경제 체제의 붕괴를 넘어 인류 생존권과 기본권의 위협, 전쟁과 분쟁, 나아가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不正義)를 포함하는 것이다. 작금에 추진되는 그린뉴딜의 에너지 전환은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대규모의 중앙집중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 감소는 물론 수요관리에 집중하는 ‘소규모의 지역 분산적이며 시민참여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인간 활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인간 삶을 포함한 사회 체제의 전환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것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체제에서 수동적 소비자에 불과한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시민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체로 서되 공유하고 나누는 행동 양식의 전환을 통해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구 생태계를 살려내는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가? 첫째, 아가페 프로세스에서 제안한 “생명경제” 사상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일찍이 WCC는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가 낳은 부정의와 불평등을 직시하면서 “민중과 지구를 위한 대안적 세계화”(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 and Earth(AGAPE))라는 개념의 아가페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창조신학과 아프리카 영성인 ‘우분투’(ubuntu, “너는 내 운명”) 사상에 근거하여 생명을 관계적 존재로 규정한다. 생명경제 사상의 핵심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살림이 펼쳐지는 장이기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빚어지는 인간과 생명의 노예화,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와 약탈적 지배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동시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에 기대어 생명 경제로의 철저한 회개(메타노이아)를 요청한다. 생명경제 사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라는 공공선을 추구하며, 노동, 지식, 창조성이 자본을 대체하여 경제 활동을 주도하고, 개인 공동체 국가들이 협력하는 세계 경제를 비전으로 삼는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탄소중립에 기반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탈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 및 생명에 대한 재정의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정의로운 관계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신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서적으로는 하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서에 나타난 살림의 경제를 통해 그 신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다. 대규모 중앙집권적 에너지 체제는 공급지향적 전력 수급 방식으로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전력공급과 정책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리는 소외되었고, 모든 에너지원과 관련 정보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대부분 도시 에너지원은 서해안에 밀집된 대형 화력발전단지나 경북 해안가의 원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원거리로 수송하는 방식을 통해 대량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 체계는 도시가 지방을, 중심이 주변을 식민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변에서 생산된 모든 에너지는 초고압 송전탑을 통해 중심부로 빨려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방식은 일방적이고 착취적이고 수탈적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속성이 그러하듯,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 과정은 경제체제 내 은폐된 식민화의 과정으로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경제구조가 내포한 지속불가능하고 부정의한 구조에서 지속가능하고 개방적인 정의로운 구조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과 인간 노동과 삶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방식이 전환이라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요청한다. 이 점에서 소규모의 지역 분산적, 시민참여적인 경제 구조로의 전환은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방식의 에너지 정책에 기반하게 되는 것이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가져 온 지역 불균형, 양극화, 부정의한 지배구조를 극복하고 탈성장 시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인간과 지구 생태계를 위한 변환점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언과 가르침은 유대 민중이 당면한 경제적 수탈과 공동체의 와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주체로서의 새로운 결단과 함께 서로 연대하고 돌봄으로 공동체의 자립과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평등한 관계, 도시와 지역, 중심과 주변이라는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였다(눅 4:18-19). 이는 자생적인 촌락 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상호 호혜정신에 입각한 이스라엘 민족의 갱신 운동으로서 예수가 전하는 살림의 동력이었다. 그의 선포는 자유로운 주의 영, 주의 숨, 주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기름 붓고 그들과 함께하는 환대와 초대였다. 예수가 전하는 살림은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한 참여와 연대 그리고 기쁨으로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로마 제국의 위계적, 수탈적 지배 질서에 맞서는 평등과 자유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지배와 착취를 기반으로 한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다스림에 기반한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의 소식이었다.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은 팍스 이코노미카(Pax Economica)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삶의 전환을 요청함으로써 예수가 말하는 새로운 삶의 비전을 상상하게 한다.



## Post Corona19 한국교회의 갈 방향

조성돈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코로나19 시대가 되고부터 제일 와닿았던 말은 New Normal이라는 말이다. Normal이라고 하면 평범한, 일상적인, 보통의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은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한다. 특별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 루틴한 삶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 New라는 말이 붙었다. 어제를 오늘같이, 오늘을 내일로 살아가는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에 새롭다고 하는 뜻이 붙었다. 이를 이해해 본다면 그것은 전면적인 변화, 또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실상 지난 6개월여 사이에 우리의 일상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1월 하순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시대에 이르러 그 이전의 삶과는 많은 부분 변화를 맞이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전 학기 온라인 수업이라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다. 신입생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는데 캠퍼스 구경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일상뿐만 아니라 세계의 구조도 변화를 맞았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보건선진국으로 우뚝 선 것은 그러한 과정에 하나였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나라들이 순서대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미국이 대표적이고, 이탈리아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무섭게 무너져갔다. 심지어 미국은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 사망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장례로 못 치르고, 대량으로 땅에 묻히는 일이 일어났다. G7의 선진국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 당대에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는데 이렇게 전염병 하나로 무너졌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의외로 방역에서 선방을 하고, 사후 치료에도 아주 돋보였다. 초기에 대량으로 감염자가 나타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후 선진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저들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일까지 생겼다. 세상이 뒤집힌 것이다. 앞선 자와 뒤선 자가 뒤바뀌었다. 어느 학자는 이제 서양의 주도권이 무너지며 동양의 주도권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동양이라고 하지만 아마 한국과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이는 백신과 치료약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 1. 심판이 아니라 경고라

이렇게 뉴노멀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온 코로나19의 재앙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다.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중국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옮겨

오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물론 정권 관련된 이야기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로 옮겨 나가고, 특히 기독교 문화권인 선진국이 중심이 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정말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일까?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이해해야 할까?

나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경고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유대가 망하듯이 끝을 의미한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세계에 대해 포기선언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심판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한 번도 결정적 의미에서 심판은 있지 않았다.

나는 그렇다고 이 질병이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돌아서라는 경고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인수감염’으로, 즉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옮겨온 바이러스라고 한다. 학자들은 대부분 그 동물이 박쥐일 것이라고 한다. 박쥐와 인간은 실은 만날 일이 없다. 박쥐는 보통 인간이 찾지 않는 깊은 밀림이나 동굴에 산다. 그것도 그들은 낮이 아니라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박쥐에게 붙어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왔을까. 그것은 인간이 박쥐가 사는 곳까지 찾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박쥐들이 있는 밀림으로, 그리고 동굴 속으로 인간이 찾아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밀림을 개발하여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공장을 세우고, 서식지를 만들어 갔기 때문이다. 이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의 말대로 자꾸 접촉하다 보니 바이러스가 옮겨 오게 되었다.

인간은 왜 박쥐의 서식지까지 찾아들었는가. 그것은 욕망과 욕심 때문이다. 밀림까지 찾아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는 인간의 욕심과 그것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좀 더 저렴하게 먹겠다는 소비자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이고 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욕망과 욕심, 즉 더 많이 가지겠다는, 더 소비하겠다는,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겠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는, 그 욕심과 욕망이 이제 한계를 만나고 부작용을 만들어내었다. 수많은 징조가 있었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이러한 무시무시한 질병 앞에 서게 되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려면 돌아서야 한다. 또 다시 이러한 재앙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 욕망과 욕심에 기초한 천박한 자본주의와 바벨탑처럼 쌓아 올린 산업화의 결과들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무너뜨린 환경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의 풍요를 위해 황폐해진 3세계의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살면 끝내는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를 총칭해서 쓰는 말이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정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이고 메르스 코로나이다. 그런데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우리는 돌이키질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강력한 경고를 맞이했다. 이번에도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경고라는 것을 안다면 돌이켜야 한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를 회개(悔改)라고 한다. 참회하여 고친다는 의미이다. 최악된 행동을 고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더 다가오는 단어로 회심(回心)으로 표현하고 싶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다. 행동을 고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 즉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자제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고 하신 살롬을 회복해야 한다.

## 2. 회당전통의 비밀

유대교 종교 전통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 성막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꽃을 피웠다.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구축한 다윗 왕조는 지방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고 솔로몬의 영화를 앞세워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500년 이상 이어져 오던 이 성전은 587년 유대의 멸망과 함께 상징적으로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후 50~70년에 이르는 포로기를 거쳐 다시 세워졌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변화에서 포로기를 지냈던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락에 의해 성전 재건을 이루었다. 물론 여러 우여곡절로 인하여 20여 년의 세월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런데 포로기 가운데 놀라운 제도가 하나 생겼다. 회당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다. 성막과 성전 건축에서는 그렇게 꼼꼼하셨던 하나님이 회당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다. 즉 포로기라는 뉴노멀에서 이 백성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제도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성전이 주지 못했던 말씀의 전통이 생겨난 것이다.

성전은 철저히 엘리트 중심이다. 다윗 왕가와 제사장들의 종교이다. 그런데 회당은 민중 종교이다. 근본이 없이 포로기라는 뉴노멀의 상황에서 우연히 나타난 결과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회복하였는데 회당이 성전과 공존했다는 것이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 회당전통이었는데, 회복 이후에도 회당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500여 년 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그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도 회당은 살아남았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회당은 잡초처럼 살아났다. 유대 남성 10명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다는 아주 실용적인 제도에 바탕하여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면 회당 역시 쫓아갔다. 결국 2천 년 디아스포라 역사는 회당전통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심지어 기독교 역시 회당의 전통에 기대어 있다. 특히 개신교는 이러한 회당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다면 회당 전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나는 포로기를 많이 묵상하고 있다.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특히 교회

당을 떠나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성전과 회당전통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일지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포로기 이후 성전과 회당의 공존에서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정리한다.

|         | 성 전                 | 회 당                  | 온라인     |
|---------|---------------------|----------------------|---------|
| 접근성     | 중앙집권                | 모든지역(성인 10명)         | 시공초월    |
| 종교생활    | 1년 3회 참여            | 매 안식일                | Network |
| 참여성     | 대제사장 주도             | 모든 성인                | 평신도 참여  |
| 말씀 중심   | 제사 중심               | 말씀 중심                | 콘텐츠 중심  |
| 공동체     | 솔로몬 성전              | 포로들의 모임              | 가상현실    |
| 하나님의 섭리 | 건물파괴로 끝<br>(1,000년) | 역사를 이어 옴<br>(2,500년) | ?       |

### 3. 교회의 새로운 일들

#### - New Normal 1: 예배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일은 거의 모든 교회가 빠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4월 첫 주,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신천지로 인해 빠르게 퍼져나갔던 시점에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에서 의뢰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일인 3월 29일 한국교회의 61.1%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병행이 15.6%였다. 그리고 현장 예배만 드린 경우는 겨우 8.6%였다. 이외 교회에서 준 가정 예배 순서지에 따른 가정 예배가 7.4%, 그리고 각자 알아서 예배드린 경우는 7.3%였다. 즉 현장 예배만을 고수한 교회는 8.6%로, 이는 어르신들만 있는 작은 교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능한 모든 교회들은 주일예배를 온라인 생중계로 내보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강점과, 유연성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교회의 강점이 결합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2월 18일 소위 31번 환자의 등장과 함께 신천지에서 다수로 번지고 난 다음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약 1달 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다수가 되었다.

이것은 주일 성수를 주일예배의 참석으로 이해하고 있고, 주일 성수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여기고 있었던 한국교회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하며 필사적으로 버티던 교회들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듯 순식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성의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모임을 금지당한 신천지 교인들이 기성 교회로 몰려와서 코로나19를 확산시켜 해코지한다는 알 수 없는 카톡 메시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었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종교집단도 이루지 못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는 카톨릭이나 불교와 후에 비교될 때가 있을 것이다. 공공성에 우선 두고, 수직적 조직으로 일거에 문을 닫아버린 그들과 각자도생의 정신으로 핸드폰 하나로 유튜브 생중계를 이루어낸 한국교회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Post Corona19 시대에 어느 쪽이 살아남게 될지를 비교해 본다면, 이번 국면에서 각 개교회가 전투력을 배가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개신교회가 더 생존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회 리더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지나면 교인들의 예배 참석이 회복될 것인가에 있다. 현재는 대형교회의 경우는 대략 30%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형교회와 중형교회의 경우는 잘 되면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작은 교회의 경우는 많은 경우 90%까지도 회복하고 있다. 물론 최근 정부의 강력한 권고(?)로 인해 다시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때가 지나면 예배 참석 인원은 돌아설 것인가?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을 경험한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조사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40.7%가 나왔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54.6%가 나왔다. 즉 반드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더 적었다. 이런 이들이 모두 현장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는 문제가 있다. 교회당으로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주일예배를 드린 것으로, 또는 주일 성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묵도부터 축도까지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온라인의 특성상 1시간여의 예배를 모두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설교만 듣게 될 것이다. 30분 설교는 모두 들을 수 있을까. 30분을 2배속으로 15분에 듣든지, 또는 요약본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몇몇 교회에서는 설교를 3분 내지는 5분으로 요약 내지는 예고편 같은 형태로 만들고 있다. 이제 이것을 듣고 설교를 들은 것으로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예배나 설교 영상이 아니라 기독교 콘텐츠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주일 성수로 여길 수 있을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지 선택의 순간이 올 것 같다.

결국 불출석 교인과 비정규직 교인이 늘어날 것이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한목협 세미나의 결론에서 ‘이제는 교적부의 교인 목록보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방문하는 이들의 흔적이 남긴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와 헌금액보다는 흔적을 남긴 플랫폼의 데이터에 의해 가늠이 될 것이다’고 했다. 즉 신앙생활은 이제 반드시 교회 출석 여부에 달려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한 바에 있다는 의미이다. 즉 어느 순간 구독, 좋아요 숫자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 New Normal 2: 설교

현재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오프라인 예배의 실시간 중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그 수준에서 앞으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가 변하면 콘텐츠도 변해야 한다. 현재 미디어 순위를 보면 TV와 유튜브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둘의 영향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TV 보다는 유튜브가 더 영향이 있다. 그렇다고 TV와 유튜브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건 아니다. 유튜브에서 TV 프로그램을 똑같이 보내준다면 안 볼 것이다. 유튜브는 그 나름의 문법이 존재한다. 방송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이나 그 기준이 없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기도 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은 항상 그런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나타나는 떡방이나 공부 중계 등의 방송 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루하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매료되기도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유튜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다.

결국 이러한 매체에 의한 콘텐츠의 변화도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유튜브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누적 조회수를 가진 교회들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성교회가 모든 대형교회들을 제치고 1등으로, 한국교회 최초로 1억 뷰를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조회수를 이룬 이유가 교회의 설교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찬양인도자의 유명세 덕분이었다는 사실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영상은 이 교회의 한 금요예배에서 행한 찬양이었는데, 단일 영상에 1천만 뷰가 넘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만 이런 영상으로 종교적 필요를 채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이러한 온라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교회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온라인에서 개교회의 경계는 의미가 없어졌다. 하루에도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설교만 소비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라는 의미도 없다. 그렇다면 인기를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설교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스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유명세나 위치, 시설 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단지 설교와 설교자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 사람들이 몰리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유지되는 교회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이제 설교자의 자격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교단이 있고, 교회의 조직이 있기에 목사의 자격이 있고, 설교자의 자격이 있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설교의 능력만이 아니라 신앙적 인격과 신학적 소양, 그리고 목회 리더십 등이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은 교단이나 노회를 통해 심사되고 지도된다. 그리고 각 교회공동체에서 청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자격이 필요 없다. 누구나 유튜브라는 간단한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다. 유튜브의 특징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에 있다. 그들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심사를 거쳐서 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양산하는 콘텐츠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조회수를 따라 자격을 얻는다. 이같이 이제 설교나 이와 상응하는 콘텐츠는 라이선스가 보장하는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즉 이제 평신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제 이것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지만 부정적 요소 역시 존재한다.

### New Normal 3: 한국교회의 구조조정

앞으로 교회의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교인 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받지만, 경제불황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 재정 감축이다. 앞으로 교회에서 재정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감축해야 하는 순위는 어디일까? 아마 외부로 나가는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풀리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기관후원이 1순위 일 것이고, 그 다음이 작은 교회나 선교지 등으로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현재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자립교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유지가 안 된다. 결국 다른 교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교회, 즉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다른 곳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교회들을 약 10% 정도로 본다면, 대충 80%의 교회를 10%의 교회가 떠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이러한 비율이 각 노회나 지방회의 형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유효 자원의 상당 부분이 작은 교회 지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요즘 큰 교회 목사들을 만나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 작은 교회를 지원하다가 다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자 한국교회 차원에서 작은 교회 임대료 지원이나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다. 몇 달 더 버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지 몰라도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닥칠 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보자. 4차산업혁명 등으로 시장이 변동하면서 사회에서는 다양한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마켓의 등장이다. 각종 딜리버리 사업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기존 재래시장의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은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재래시장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온라인 시장의 규제이다. 이것은 최근에도 우버와 택시, 에어비엔비와 호텔 등의 대결 양상에서도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손쉬운 방법으로 우버나 에어비엔비를 금지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그런다고 세계적인 추세인 새로운 시장이 막아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사회발전이 더디어질 뿐이다.

우리도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자. 현재의 이러한 역기능적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구조조정에 있어서 현재의 기독교 NGO 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니 오히려 그 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한국교

회가 당연한, 아니 정확히 말해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신뢰성이다. 이것이 무너지고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넘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분명 지혜롭게 해야 할 부분이다.

#### **New Normal 4: EcoChurch의 등장**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급진적인 정책들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경각심에 기대어 극단적인 환경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디젤차 금지라든가, 쓰레기 생산의 극단적 규제 등이다. 서울시는 이미 2035년부터는 내연 차, 즉 디젤이나 휘발유 차의 등록 및 서울 도심 운행을 금지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은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교회는 반환경적인 부분들이 많다. 1주일에 한 번 대량으로 모이는 특성 때문에 큰 건물을 유지하고,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주일 저녁에 교회 쓰레기장을 살펴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교회는 사회의 정책에 따라 변화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만큼 민감하게 변해야 한다. 쓰레기 감량이나 디젤차를 환경차로 교체하는 것, 또는 에너지 자립이나 환경친화적 건물 신축 및 변경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New Normal 5: 사회적 리더십**

위기를 맞으면 사회적인 공동체 의식이 나타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식이 발현되고, 조직화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일본 고베를 방문한 적이 있다. 시민운동이 발전되어 있어서 견학을 갔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1995년에 있었던 고베지진이 시민운동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국가가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사람들은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시민조직들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고베에서 다양한 방면의 시민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우리도 이번 일을 겪으며 다양한 공동체 의식을 발견했다. 서로 나누며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조직화될 것이다. 좀 더 안전한 사회, 좀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몇몇 교회들은 오히려 지역에서 신뢰를 얻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역 방역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 주었다. 교회를 위해 기왕에 갖춘 방역 장비를 가지고 지역 상점들을 방역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방역도 도왔다. 또는 어려울 때 마스크 모으기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본 교회도 있었다. 앞으로 가능한 것은 학생 돌봄 서비스 등이다.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마을 운동 등에 참여하면 교회가 지역에서 사회적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마을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 New Normal 6: 비대면 사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사회에 자리 잡은 비대면 사회의 일면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은 그러한 사회적 여건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개인주의화된 이들이 공동체를 찾는다라는 것이다. 2017년에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청년들이 청년부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공동체(55.5%)와 친교(40.1%)라는 것이다. 또 청년부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51.8%가 공동체를 꼽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이다. 요즘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주의, 공동체에 대한 반감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공동체를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교회에 희망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라는 공동체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들은 개인에 대한 존중을 먼저 앞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영역이 존중되는 전제에서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 즉 해방된 개인의 연대로 공동체를 본다.

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서는 낯설 수 있다. 교회는 정해진 답에 익숙하고, 그 신학에 따른 사고를 하고, 규정 되어진 윤리적 삶을 사는 자들의 연합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려 한다.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틀만을 유지한 채 억압받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온라인 공동체까지 포함하는 정의가 필요하다.

일부는 교회가 대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동체라고 하느냐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온라인 상에서, 때론 핸드폰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현실에서도 충분히 Reality를 경험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SNS에서 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기반된 공동체의 재정정이 필요하다.

## 4. 나아가며

포스트모던에서 자주 쓰던 말이 ‘가장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은 없다’이다. 이제 이 시대에는 어쩌면 ‘가장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은 없다’가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이 기왕에 진행되던 변화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라고 변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변화의 물줄기가 움직이는데 합판 하나 들고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변화된 물줄기를 막을 힘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물줄기에 올라탈 수 있는 부력이다.

나는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던 한국교회에 활로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위기에 대해 좀 더 철실히 대응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마치 포로기를 거치며 회당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한국교회 역시 새로운 역사를 맞을 것이다.



## 코로나-19와 디아코니아 목회

김기용 / 영등포산업선교회 노숙인 복지 시설장

인류는 창세 이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전염병에 시달려왔다. 이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전파하면서 변이되었고 인류 대재앙으로 결과지어지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맞는 세계 대유행 질병의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있다. 교회는 전방위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남들보다 더욱 크고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 위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극복하여 희망으로 나아갔다. 코로나-19 시대 속 교회 역시 자신에게 닥친 위태로운 상황들을 그대로 맞이하며 묵묵히 견디는 동시에 적극 대처하여 성도와 사회의 영과 육의 상태를 돌보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디아코니아 목회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 1) 닫힌 시대 속 열린 목회로서의 디아코니아

세계화로 열린 시대를 살던 지구촌은 2020년 초 전 세계로 급속 확산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닫힌 세계’ 속 ‘닫힌 시대’를 살게 되었다(비대면 비접촉의 Un-tact 및 On-tact 사회). 국가 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며, 대중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고, 사람 간 왕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류는 실낙원 이후 세계화를 살았고 각종 전염병의 위험 속에 생명을 위협받아 왔다. 계급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았고, 지금의 시대 역시 소위 ‘나와 다른’ 사람과 집단에 대해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물리적 제한을 두어야만 하는 시대가 갑자기 도래했고, 이를 ‘뉴 노멀’(new normal)로 습관화하기까지 적응하여 체득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교회 자체의 생태 변화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갑자기 변화한 만큼 교회역시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닫힌 시대 속 가장 급격한 변화는 예배 공간 활용의 융통성 마련 및 예배를 드리는 기술적 방식의 마련이다. 한국 교회는 신속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점차 거리두기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것이 닫힌 시대의 ‘닫힌 교회’인가하는 데에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러한 예배의 형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 중에도 예배 실황을 온라인 송출하였으며, 병원 채플 등에서는 거리를 두어 예배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결국 교회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예배'의 방식에 위기가 닥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배 방식의 변화는 디아코니아(사회복지) 목회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배의 디아코니아적 고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회는 닫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열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은 어둡고 닫힌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삼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문이 열렸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이 부여 및 활성화되었다. 부활하신 그 일회적 사건은 이 세계가 항속적으로 소망 중에 있게 되었으며 선교를 통해 영생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즉, 교회는 부활 신앙을 통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갖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한 열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오늘까지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삶의 순간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 중 나아가게 되는 지지대가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신앙인은 전쟁이나 식민시대에 놓여 압박한 종말론을 따라 생활하기보다는, 백세 시대에 높은 기대수명을 가진 상황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교회는 작금의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 속에서 갑작스럽게 재난의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세계적 환경 가운데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에 응전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한국교회가 지나온 짧지만 격정적인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와 신앙을 수호하며 고난을 극복해 왔다. 일제 식민시대, 한국전쟁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과 보릿고개, IMF 구제금융 등의 경제적 곤핍 등도 이겨내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근현대 사회를 이끌었고, 그것은 신앙에 근거한 생활 속 이웃사랑의 명확한 표현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고난 상황에서 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웃으로서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그동안 교회가 해왔고 여전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이다.

이렇게 이웃에게 열려 있는 신앙의 자세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화 한다. 이는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패러다임을 요구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지금까지의 신앙 습관과 관습과 전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하여는 한국교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성도가 재무장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2) 구체적 실천 방안

섬김(디아코니아, 어원: 디아코네인 - 섬기다, 공제하다)은 상호작용이다. 목사와 성도는 서로를 섬긴다. 이는 먼저 의사소통(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으로 그 기반을 갖추게 되고, 대개는 정책으로 구조화되며 이에 따라 실천하고 시행한다. 목사는 심방하고 상담하며 교육한다. 이 과정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는 전문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목사는 영적 권위를 갖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영적 권위는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서 나온다(잠 1:1-7).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신앙생활이 나태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깨어 주의해야 한다. 만인사제설에 따라 한편으로 누구나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 소견을 가질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목사와 성도의 역할은 구분되기 때문에 성도는 적극적으로 목사의 영적 권위에서 비롯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단힌 시대를 살아갈수록 성도는 더욱 열린 마음과 자세로 영적 돌봄을 받기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목사는 이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꾸준히 자극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에 무작정 교류와 접촉이 없는 비대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며, 교회는 교통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교류는 물적으로 교제하는 일과 밀접하다. 따라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구분의 대상이 아니라 조정과 균형을 맞추어 이루어야 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다. 이는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섬기는 상호작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의 성경구절에 나타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2-47)

그렇다고 교회는 자신의 속성과 사정을 내세워 사회질서에 반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회 구성단위 중 가장 정결하고 윤리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위 ‘유통성’이라는 명분으로 편법을 하거나 호가호위 식으로 권위를 이용하여 무리수를 둘 수 없다. 따라서 물리적인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 사이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걸친 대응 방안으로 활용이 되는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디아코니아 목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신앙의 원리는 규범화하여 준수하되, 그 시행 방법은 시대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 일은 만나야 하는 일이다. 성전에 모이는 일은 대면으로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물건을 통용하는 일은 최소한의 대면으로 가능하다.

위 사도행전 말씀 전체의 핵심은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한 교회공동체가 지향하는 하나님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경험적 결과의 모델과 교훈이다. 결과적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는 하나의 공통된 지향점을 갖는 신앙의 공동체로 기능하여 교회 내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구원의 한 목적을 이루도록 이끌고 따르게 된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일은 교회 내에서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도 화목하고 화합하는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날 그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음식을 먹는 일도 각자의 취향이 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으며 육식을 해야 체력이 유지되어 이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서로 그룹을 짓는다. 어느 정도의 양보와 희생은 불가피하지만 대개 식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된다. 교회 공동체 활동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교회공동체 내에서의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 일은 물리적 비대면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이에 대한 일률적인 지도는 그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사적 모임을 4인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회 내 모든 구역 등의 소그룹이 명징(明徵)하게 준수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 소그룹 리더는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교회 행정에 배려와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그룹 모임으로서 구역예배 모임이 활성화됐다. 코로나 시대에 이것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신앙 활동이다. 비록 구역 모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지와 목표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꾸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관계자가 안내 사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면 좋다. 교구장, 구역장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다만, 대면 교육 시에는 선제적으로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비대면 활동이 수시로 이뤄져야 하므로 목사는 전달체계(화상회의, 각종 SNS 체계, 전화, 이메일 등)를 적극 활용하여 관계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역 및 소그룹의 성향과 취향을 존중하여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게 한다. 어떤 그룹은 전통적인 형태의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다(“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활동). 어떤 그룹은 모이지 않고 교회 내 성도 및 각 기관 혹은 외부의 시설이나 기관과 연계하여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대면을 해야 하는 자원봉사는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에 들이는 에너지와 자원 등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 후원품(“물건”)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있다면 보다 원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뢰도 있고 검증 받은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반드시 물건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말씀은 오늘날 성도의 헌금이 기부금 내지 후원금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후원품과 후원금은 비용적 측면에서 서로 같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상호 신뢰로 교류하며 교감하는 일이다. 다만 후원품은 고정적이며 후원금은 유동적이다. 후원품은 서비스 공급 기관에 업무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후원금은 서비스 수급에 유연성을 확보하게 하여 수혜자로 하여금 만족도를 높여주고 서비스 공급자에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따라서 후원품은 항속적인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어 좋고, 후원금은 가변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좋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처럼 예배와 목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속으로 더욱 가깝고도

깊숙이 들어가 디아코니아(사회복지) 목회로 대변되는 마을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할 수 있다. 우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성도가 예배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각종 미디어와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 경건을 훈련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교육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없고, 또 일반 사회복지 시설이 접근할 수 없는 고감도 영적 돌봄의 사회적 목회가 가능하다. 이것을 그동안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사업 등으로 명명하였으나,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사랑하는 디아코니아로 재정의 할 수 있다.

## 결론

디아코니아 목회의 주체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이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 자신의 역할이 있다. 이 둘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이끌고 따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점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가 있고, 이를 위해 기여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향한 신앙행위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도는 서로 간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곧 목회의 현장이다. 교회 성도가 곧 지역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울타리는 그 경계가 없다. 다만, 교회 안과 밖에서의 신앙의 사고와 활동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 내 신앙의 언어와 밖에서의 그것은 달라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 기억해야 할 점은 신앙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하고 불변하다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약 2:8)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려야 하고, 말씀 교육도 있어야 하며, 여러 깊이 있는 신앙의 언어로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그 1차적인 신앙의 원리가 쉬운 언어로 풀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언어적 행위 내지 행위의 언어이다. 교회 내 인정과 존중의 언어가 교회 밖에서 이웃사랑으로 표현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일이다(약 2:9).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경제적 상황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7).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는 차이와 구분이 있지만,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마 25:14-30).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구성원 간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 교회 밖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교회 안이 교육과 훈련의 장이라고 한다면, 교회 바깥은 경험과 실천의 살림터이다. 훨씬 다양하고 극대화된 삶의 환경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 밖 실천의 현장이다. 교회 안에서 먼저 신앙의 기본원리가 철저히 학습되고 이를 체득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성서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며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적절하

게 시행해왔다. 그것은 오늘날 학교, 병원, 각종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으로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질과 역량이 갖춰져 있다. 교회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그것대로 행하고, 역력이 닿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동행할 수 있다.

독일의 교회는 수십 년 전 교회 쇠락의 원인을 자성하며 자문했다. 그 결과 디아코니아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이는 대사회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것이어서 전체 이탈 교인의 절반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다. 한국 교회도 이미 디아코니아 목회를 활성화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기반과 가치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더욱 확고히 해가고 있다. 다만, 이는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꾸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교회는 거버넌스의 주체이다. 공공 - 경제 - 민간, 이 세 영역이 서로 원만하고 원활한 협조를 이루기 위해 '민간' 영역의 교회가 개방성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이며,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과는 차별성을 갖는 고유한 활동이다. 따라서 교회의 경제활동은 사회 환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나아가 이는 나머지 두 영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 속에서 발전해갈 수 있다.

교회는 스스로 소외된 자가 된다. 기업의 경영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순도 높은 윤리성(영적 가치)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자그마한 잘못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극단적인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이다. 교회는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를 함께 극복할 영적 능력을 얻는다. 세상의 잣대와 가치로 교회는 운영될 수 없다. 교회의 영적 가치는 우리 사회 속 주변부에 살아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발견되며 상승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사회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실천적 능력이 교회 안에서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디아코니아 목회의 주춧돌이다. 교회의 준비된 실천적 능력은 오직 말씀, 복음, 기도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목회를 하며 그러한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섬기며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고전 15:31).

**이 원고는 현재 집필 중인 저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무단 전재 및 인용을 삼가 주십시오.**

#### 참고문헌

계재광. “종교개혁 정신과 선교적 교회론 정립에 대한 연구.” 『신학논단』 89(2017), 7-45.

김기용. “삼일운동에 끼친 시민사회로서의 개신교의 영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2(2019), 443-466.

- \_\_\_\_\_. “서서평의 사회선교로 본 상황화 선교와 한국교회.” 『선교와 신학』 50(2020. 봄), 131-158.
- \_\_\_\_\_. “장애는 장애인인가? - 장애인 사회정책의 디아코니아적 해석과 전망.” 『신학사상』 187(2019. 겨울), 341-63.
- 김기원. “칼뱅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상.” 108(2018), 281-314.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편저. 『디아코니아·사회선교 정책문서 자료집』.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6.
- 몰트만, 위르겐 저·박봉량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메시아적 교회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 \_\_\_\_\_. 신학의 방법론 - 나의 신앙 여정
- 미션21. 2018.07.19.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열쇠는 바로 디아코니아 실천.” 6.
- 미션21. 2018.08.10.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함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인간이 제 역할하며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5.
- 박영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 12:15): 공감교회론의 철학적·교회론적 기초 다지기.” 『신학과 선교』 53(2018), 41-81.
- 박정수. “위기의 교회론과 목사직: 마태의 ‘제자담론’을 통한 신학적 성찰.” 『신학과 사회』 27/2(2013), 143-174.
- 박철우·박윤재·여인석·김일순. “제중원에서 초기 의학교육(1885-1908).” 『의사학』 8/1(1999), 33-55.
- 박형신.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시민사회론, 선교적 교회론.” 『신학과 실천』 48(2016), 519-545.
- 서동수. “골로새서 1:13-20에 나타난 우주적 교회론.” 『신학논단』 87(2017), 151-180.
- \_\_\_\_\_.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심층-구조적인 교회론.” 『신학논단』 92(2018), 187-220.
- 서정민. “제중원 선교공동체의 성격: 연합, 연대성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30(2002), 239-263.
- 쉐퍼, 게하르트 슈트롬, 테오도어/ 한국디아코니아신학회 역. 『디아코니아와 성서』. 서울: 한들출판사, 2013.
- 신동원. “공립의원 제중원, 1885-1894.” 『한국문화』 16(1995), 181-260.
- 신재의. “제중원 신앙공동체 연구: 제중원의 선교사적 역할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53(2002), 21-28.
- 엄묘섭.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문화와 사회』 3(2007), 7-45.
- 오성욱. “교회와 사회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밀뱅크(John Milbank)의 근(根) 정통주의(Radical Orthodoxy) 관점에서 한국적 신학 비평적으로 읽기: 사중복음신학, 토착화 신학, 그리고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0/4(2016), 177-221.
- 유태주. “서서평 선교사의 섬김 신앙을 이어받은 강택현 학장의 신앙과 교육,” 임희모, 김기용, 유태주, 소성섭. 『서서평 선교사의 섬김의 영성과 실천가들 - 서서평 연구논문 7집(2020)』. 전주: 서서평연구회, 75-110.
- 임희모.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동·동남아시아 중심』.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1.
- \_\_\_\_\_. “서서평(Elisabeth J. Shepping, R.N.) 선교사의 성육신적 선교.” 『선교와 신학』 36(2015), 173-204.
- \_\_\_\_\_. 『서서평, 예수를 살다』. 서울: 도서출판 케노시스, 2018.
- 장승익. 『디아코니아 신학 선언: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8.
- 전철. “디트리히 본회퍼의 관계적 교회론 연구: 현대사회 안에서의 본회퍼 교회론의 의미.” 『한국조직신학논총』 38(2014), 343-371.
- 정원범.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기독교의 사회선교.” 『기독교사회윤리』 27(2013), 335-368.
- 차정식. 『하나님 나라의 향연: 신약성서의 사회복지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 총회백서발간위원회 편. 『총회창립 100주년 기념백서: 개혁하고 꿈꾸는 100년의 사회선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 최현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있어서 카리타스(Caritas): 교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25(2014), 231-268.

- Collins, John N.. Diakonia studies.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Erbstößer, Martin. Sozialreligiöse Strömungen im späten Mittelalter. Geißler, Freigeister und Waldenser im 14. Jahrhundert. Berlin: Akademie-Verlag, 1970.
- Eurich, Johannes. "Nächstenliebe als berechenbare Dienstleistung: Konsequenzen der neuen Wohlfahrtspolitik für das theologische Selbstverständnis und die Restrukturierung der Diakonie," in: Johannes Eurich / Wolfgang Maaser, Diakonie in der Sozialökonomie: Studien zu Folgen der neuen Wohlfahrtspolitik, Band 47. Leipzig: VDWI, 75-99.
- Eurich, Johannes / Barth, Florian / Baumann, Klaus / Wegner, Gerhard. Kirchen aktiv gegen Armut und Ausgrenzung: Theologische Grundlagen und praktische Ansätze für Diakonie und Gemeinde. Stuttgart: Verlag Kohlhammer, 2010.
- Hentschel, Anni. Diakonia im Neuen Testament: Studien zur Semantik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olle von Frauen.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_\_\_\_\_. "Diakonie: Sprachverwirrung um einen griechischen Begriff," in: Glaube und Lernen. Theologie interdisziplinär und praktisch zum Thema Diakonie, Jahrgang 29, Heft 1. Göttingen: Edition Ruprecht, 2014, 17-32.
- Irsigler, Franz / Uhrmacher, Martin. "Leben und Sterben in St. Jost: Aus der Geschichte eines Trierer Leprosenhauses," in: Verein Trierisch im Selbstverlag(Hg.), Neues Trierisches Jahrbuch 55. Trier: Druckerei Schwind GmbH, 2015, 11-26.
- Kim, Kee-Yong. "Soziale Hilfeleistungen für ein menschenwürdiges Leben von Kindern in Südkorea. Theologische und politische Reflexionen zur Bekämpfung der Kinderarmut unter Einbezug der Bildungsperspektive. Teil 1." Dr. phil. diss.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2016.
- Klieber, Rupert. Bruderschaften und Liebesbünde nach Trient: Ihr Totendienst, Zuspruch und Stellenwert im kirch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Leben am Beispiel Salzburg 1600-1950. Frankfurt a.M.: Peter Lang GmbH, 1999.
- Oeming, Manfred. "Gott und Gewalt im Alten Testament Unzeitgemäße Betrachtungen eines Exegeten," in: Nobert Ammermann/ Beate Ego/ Helmut Merkel (Hg.), Frieden als Gabe und Aufgabe: Beiträge zur theologischen Friedensforschung. Göttingen: V&R unipress, 2005, 67-86.
- Staub, Tobias. Diakonisches Hilfehandeln als Vertrauensbeziehung. Eine institutionenökonomische Analys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iakonischer Finanzierungsstrukturen. VDWI 51.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3.
- Schweers, Volker. Bruderschaften in Coesfeld um 1500. Münster: MV-Verlag, 2012.



## 코로나19 전염병과 바이러스 야웨(40)

강성열 /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 1. 서론

우리는 지금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일상(normal)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21세기의 흑사병이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겨난 급격한 변화를 일컬어 문명사적인 전환을 뜻하는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ease) 개념으로 또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들과 지역 발생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와 경기 침체 및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심화 등의 불안정하고 불편한 일상생활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빌 게이츠(B. Gates)의 말처럼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보다 훨씬 무서울 수도 있는 코로나19가 예측 불가능한 변종 바이러스를 통하여 끊임없이 진화함으로써 그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는데다가 치사율 역시 만만치 않게 높다는 사실<sup>41)</sup>이다.

3월 11일에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태를 뜻하는 팬데믹(Pandemic)으로 규정된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계 위기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염병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장식 가축 산업과 육식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자원낭비적인 생활방식 등이 자연 훼손과 환경파괴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것이 마침내는 동물들을 숙주로 하는 미생물들을 자극하여 질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다.<sup>42)</sup>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및 이로 인한 고통의 심화는 인간의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신학적 판단이 어떠한 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순

40) 이 글은 2020년 12월에 출간된 다음의 책에 실린 것이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회심』(서울: 동연, 2020), 21-42.

41) 2020년 11월 2일 현재 전 세계 219개 국가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는 4,6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사망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면역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될 수도 있는 코로나19는 1346년부터 1350년 사이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5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흑사병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참조: 김서형, 『전염병이 휩쓴 세계사』(서울: 살림, 2020), 158.

42) 코로나19 사태를 생태중심 문명으로의 전환과 한국교회의 자기성찰 계기로 삼자는 기독교 단체들의 성명 참조: <http://www.kidok.com>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759>

쏟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떠했을까? 구약성서 역시 전염병<sup>43)</sup>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 언급하는 바,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자연재해일 수도 있다. 본고는 그러한 것들을 역사비평적인 측면보다는 문학비평적인 측면에서 살피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야웨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우리 시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전염병에 국한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무엇보다도 야웨 하나님이 단순히 심판이나 자연재해로 전염병을 사람과 짐승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이 곰팡이나 박테리아 내지는 바이러스 자체로 규정되고 있음을 호세아 본문(호 5:12)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전염병 현상과 야웨 하나님의 정체성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이러한 세계사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전염병 재앙을 통한 심판과 징계

구약성서는 질병에 대해 언급하는 많은 본문들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본문들 못지않게 많은 다양한 질병들이 실제로 존재했다.<sup>44)</sup> 구약성서는 그러한 질병들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많은 전염병들에 대해 언급하는 바, 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며, 두 번째는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과도 같은 극심한 시련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되, 그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맥락에서 전염병이 언급되기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두 번째 경우와 같은 맥락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전염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낱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데베르’와 ‘네게프,’ 그리고 ‘막게파’ 등의 셋이 그러하다. 이 중에서도 ‘네게프’와 ‘막게파’는 ‘나가프’(“치다, 때리다, 접촉하다”)를 어근으로 가지고 있는 전염병 낱말들이다.<sup>45)</sup> 물론 이 세 낱말이 항상 전염병(pestilence)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재앙”(plague)을 뜻하기도 한다.

구약성서에서 전염병이 야웨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의 도구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본문은

43) 개역 개정판은 개역의 “염병”이라는 표현이 “염병한다”는 욕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것을 전부 “전염병”으로 수정한다고 했지만(개역에서는 민 14:12에서만 “전염병”이 나오고 나머지 모든 본문들에서는 “염병”으로 번역함), 여전히 “염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본문들이 일부 남아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레 26:25; 민 16:46; 47, 48, 49, 60; 25:8, 9, 18; 26:1; 31:16; 신 28:21).

44) 구약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질병들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보라: R. K. Harrison, “Disease,”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1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847–854; Bernard Palmer (ed.), *Medicine and the Bible* (Exeter: Paternoster Press, 1986); Max Sussman, “Sickness and Diseas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6–15.

45) Sussman, “Sickness and Disease,” 8–9.



출애굽기이다. 출애굽기 5:3에 의하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 정도 광야로 보내주어 야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면서, 만일에 자기들이 그렇게라도 야웨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전염병(‘데베르’)이나 칼로 자기들을 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고백한다.<sup>46)</sup> 모세의 이러한 발언은 전염병이나 칼로 인한 사망자 속출로 인하여 노동력 감소라는 큰 손실을 보기 싫거든, 사흘 정도만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의 하나님 야웨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그렇게 해야만 파라오가 전혀 노동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에 대한 출애굽기의 두 번째 언급은 다섯 번째의 가축 죽음 재앙을 다루는 9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야웨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경우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 위에 심한 전염병(‘데베르’; 개역 개정판, “돌림병”)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시는 바(9:3), 이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한다. 야웨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데베르’)에 붙임으로써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시편 78:50이나, 야웨께서 사람과 짐승 모두를 전염병(‘데베르’)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에스겔 14:19, 그리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등을 비롯한 모든 가축에게 전염병(‘막게파’; 개역 개정판, “재앙”)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스가랴 14:15도 동일한 사실을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가축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죽음(9:19)의 형벌을 안겨주는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는 야웨께서 왜 전염병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 나온다. 만일에 그가 치사율이 대단히 높은 전염병(‘데베르’; 개역 개정판, “돌림병”)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다면 이집트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으리라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파라오에게 야웨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9:15-16; 참조. 롬 9:17).

민수기에서는 전염병 언급 본문이 적지 않게 나온다.<sup>48)</sup>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신 야웨께서는 그들을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데베르’)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14:12). 비록 모세의 간절한 중재기도와 탄원으로 그것이 철회되긴 했지만 말이다(14:13-20). 그러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16장)에서는 야웨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려 1만 4천 7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으로

46) 이 구절은 3:18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전염병과 칼에 대한 언급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J. P. Hyatt,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3), 90.

47) J. I.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7), 64.

48) 민수기 11:33은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심히 큰 재앙”(‘막카 랍바’)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야웨께서 진노하여 심히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설명에 비추어볼 때, 그 재앙은 전염병 재앙이 아니라 음식물 독성 재앙(food poisoning)임이 분명해 보인다: T. R. Ashley, *The Book of Number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3), 219.

멸하셨다(49절).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는 민수기 16장은 전염병을 칭할 때 46절과 47절에서는 ‘네게프’(개역 개정판, “염병”)를 사용하며, 이어지는 48절과 49절 및 50절에서는 연속적으로 어근이 똑같은 ‘막게파’(개역 개정판, “염병”)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전염병 심판은 민수기 25장 이후의 본문들에서도 발견되지만, 그곳에서는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과 바알브올 숭배가 가져온 전염병 재앙을 ‘막게파’로 설명한다(25:8, 9, 18; 26:1; 31:16; 개역 개정판, “염병”; 시 106:29-30; 개역 개정판, “재앙”).<sup>49)</sup> 이 전염병은 2만 4천 명<sup>50)</sup>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함으로써, 16장의 반역 사건 때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암시한다. 시내 산 언약과 관련된 복과 저주의 규정 역시 언약 규정에 불순종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테베르’; 개역 개정판, “염병”)이 임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또는 적군의 공격에 직면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피신한 성읍들에서 멸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신 28:21<sup>51)</sup>; 레 26:25), 의학 수준이 한참 뒤떨어지던 구약 시대의 전염병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무서운 질병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인구 조사 강행으로 인한 전염병 재앙이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무엘하 24:13, 15(=대상 21:12, 14, ‘테베르’; 개역 개정판, “전염병”; 대상 21:22, ‘막게파’; 개역 개정판, “전염병”)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아스돗(삼상 5:6)과 가드(삼상 5:9), 그리고 에그론(삼상 5:12)에 임한 독한 종기의 재앙<sup>52)</sup>은 나중에 그들이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6:5)을 만들어 속건제로 드린 것으로 보아 설치류(rodents)와 관련된 전염성 질환으로,<sup>53)</sup> 5:6(“망하게 하니”), 10(“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11(“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에서 보듯이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이었음이 분명하다.<sup>54)</sup> 6:4 본문이 “전염병”을 뜻하기도 하는 ‘막게파’(개역 개정판, “재앙”)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음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산헤립이 이끌던 앗수르 제국의 병사들 18만 5천 명이 아웨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왕하 19:35=사 37:36) 역시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 사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sup>55)</sup>

49) 여호수아 22:17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언급하면서 전염병 재앙을 ‘네게프’(개역 개정판, “재앙”)로 표현하고 있다.

50) 바울은 고린도전서 10:8에서 이 숫자를 2만 3천 명으로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51) 이 전염병은 바로 다음의 22절이 언급하는 일곱 가지 다른 질병들을 추가로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D. L. Christensen, *Deuteronomy 21:10-34:12*, Word Biblical Commentary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2), 684.

52) 개역 개정판은 “독한 종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오펠’(tumors, 히브리어 원문은 ‘오펠’의 복수형)을 5:6에서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리고 5:9, 12; 6:5 등에서는 “독한 종기”로 번역하고 있는 바, 5:9, 12; 6:5의 번역(“독한 종기”)이 원문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재앙”이라는 낱말이 없기 때문이다.

53) H. W. Hertzberg, *I & II Samuel*,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54-55; P. Kyle McCarter, Jr., *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0), 123.

54) 참조. J. Wilkinson, “The Philistine Epidemic of 1 Samuel 5 and 6,” *Expository Times* 88 (1977), 137-141.

문서 예언자들 중에서는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아모스가 가장 먼저 전염병 심판에 관해 언급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에 주어진 것보다 같은 치사율 높은 전염병(‘데베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칼에 의해 청년들이 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큰 재앙이었음을 강조한다(암 4:10). 그런가 하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레미야는 전염병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예언자로 나타난다. 특히 그는 남왕국 백성을 향한 야웨 하나님의 심판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데베르’)”(14:12; 21:7, 9; 24:10; 27:8, 13; 29:17, 18; 32:24, 36. 34:17; 38:2; 42:17, 22; 44:13)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전염병 재앙이 칼이나 기근 못지않게 치사율이 높은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칼이나 기근에 대한 언급 없이 전염병(‘데베르’)만을 따로 심판의 도구로 언급하는 본문들도 예외가 아니다(21:6; 28:8).

그런데 전염병 재앙에 관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에서 한 가지 주목할 특징은, 그가 희년 규정의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여 전염병을 칼이나 기근과 마찬가지로 의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34:17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지배층이 야웨께 순종하지 않고 제각기 “형제와 이웃”(15절에서처럼 더 이상 “노비”로 칭하여지지 않음)에게 “자유”(freedom, ‘드로르’)를 선포해야 할 희년 율법(레 25장)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 까닭에, 야웨께서 이제 역으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freedom, ‘드로르’)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들이 6년 된 남녀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기에, 이제는 도리어 야웨께서 심판의 도구들인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얘기다. 다른 본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표현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상황의 역전을 암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수사학적인 변형일 수도 있다.

전염병 재앙이 치사율 높은 심판의 도구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심판 신탁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에스겔(5:22, 17; 6:11, 12; 7:15; 12:16; 14:21; 28:23; 33:27; 38:22)의 예언 메시지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포로기 이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하박국은 야웨 하나님의 현현에 관해 묘사하는 중에, 전염병(pestilence, ‘데베르’; 개역 개정판, “역병”)과 재앙(plague, ‘레쉴프’; 개역 개정판, “불덩이”)을 나란히 언급(합 3:5)함으로써, 전염병이 재앙과도 같이 상당한 치사율을 보이는 질병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포로기 이후의 제2성전 시기에 활동한 스가라는 야웨께서 내리실 전염병(‘막게과’; 개역 개정판, “재앙”)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 백성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고 말한다(스 14:12; 참조. 왕하 19:35).

### 3. 전염병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55) Sussman, “Sickness and Disease,” 9.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Herodotus)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쥐(mice)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보아, 어쩌면 본문이 말하는 앗수르 병사들의 대규모 사망은 쥐로 인해 발생한 전염병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John Gray,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0), 694.

전염병이 앞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압제와 속박의 땅 이집트에 임할 재앙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신정론적인 상황에 처하여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의인의 불행한 처지를 묘사하는 데 전염병 표상이 사용되며, 야웨께서 전염병에 걸린 것과도 같은 고통과 재난의 상황에서 그를 구원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을 비롯한 몇몇 본문들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염병이 죽음을 목전에 둔 것과도 같이 암울한 상황을 표상하는 것임을 은유적인 언어(metaphorical language)로 설명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야웨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2절), 그러한 신앙고백을 새 사냥꾼의 올무(the fowler's snare)와 치사율 높은 전염병(the deadly pestilence, ‘데베르’)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은유적인 표상을 통하여 확증한다. 비록 자신이 올무에 걸린 새와도 같이,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자와도 같이 죽음 직전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야웨께서는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틀림없이 자신을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한 것이다(3절).<sup>56)</sup>

또한 같은 노래에서 시인은 야웨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전염병(‘데베르’)이나 백주에 덮치는 재앙, 곧 죽음에 처한 것과도 같은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6절). 시인의 이러한 설명은 야웨께서 악한 영들(evil spirits)의 활동 기간인 밤이나 낮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57)</sup> 학자들에 따라서는 5절과 6절이 동의적(同意的)인 평행 관계(synonymous parallelism)에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5절 상반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the terror by night)와 6절 상반절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the pestilence that stalks in darkness)을 평행 관계에 놓으며, 5절 하반절의 “낮에 날아드는 화살”(the arrow that flies by day)을 6절 하반절의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the destruction that lays waste at noon)을 평행 관계에 놓으면서, 5절 하반절의 “화살”을 가나안 지역에서 재앙과 전염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던 레셰프(Resheph)의 상징물인 화살을 가리킨다고 봄으로써, 5절과 6절이 전체적으로 보아 악귀들(demonic powers)로부터의 구원을 은유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up>58)</sup>

이것과 조금은 시각이 다르지만, 전염병이 악행이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자연재해로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야웨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기도문에 의하면, 솔로몬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데베르’; 왕상 8:37) 등의 자연재해들(natural calamities)<sup>59)</sup>이 발생하거나 적국의 포위 공격 내지는 재앙과 질병으

56) Marvin Tate, *Psalms 51-100*,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0), 454.  
 57) A. Weiser, *The Psalm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2), 608-609; Tate, *Psalms 51-100*, 455; M. Dahood, *Psalms II (51-100)*,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3), 331; Tate, *Psalms 51-100*, 455.  
 58) Weiser, *The Psalms*, 608.  
 59) 이곳에 언급된 자연재해들은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들이다: Gray, *I & II Kings*, 224; G. H. Jones, *1 and 2 Kings*, vol. I,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닥쳐올 경우에 자기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야웨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야웨께 간구한다(왕상 8:37-39). 이와 평행을 이루는 본문인 역대하 6:28-31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전염병(6:28, '데베르') 포함 기도문을 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열왕기와 평행을 이루면서도 내용을 조금 달리하는 역대기의 한 본문 역시 전염병 재앙으로부터 이루어질 야웨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언급한다. 그 첫 번째 본문인 역대하 7:13-14에 의하면, 야웨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경축하는 성전 낙성식을 마침으로써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무리한 솔로몬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그가 성전 건축 직후에 드렸던 기도문(왕상 8:37-39)을 우회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전염병(7:13, '데베르')에 관해 언급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함으로 야웨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므로써, 전염병 재앙을 철저하게 인과율 신학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구체화한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에는 전혀 없으나 역대기에만 있는 한 본문 역시 전염병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해 언급한다.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기도문이 그렇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에 직면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한 후에, 성전 새 뜰 앞에서 온 회중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 직후에 드렸던 기도문의 일부(왕상 8:37-40)를 상당 부분 수정<sup>60)</sup>하여 인용하는 바, 역대하 20:9에 그 기도문의 핵심이 잘 압축되어 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전염병('데베르')과 기근을 비롯한 온갖 재앙이 그 땅에 임했을 때 자기 백성이 성전 앞에서 환난 중에 야웨께 부르짖으면 그가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도했음을 상기시킨다. 야웨께서는 그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구원 신탁을 선포하게 하시고, 레위 사람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중에 '브라카'(blessing) 골짜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대하 20:14-30).

#### 4. 전염병의 근원, 바이러스 야웨

전염병에 관해 언급하는 이상의 모든 본문들을 분석해 보면, 전염병을 인과율 신학의 차원에서 재앙과 심판으로 간주하는 본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전염병 재앙이 야웨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까닭은 그 본문들이 한결같이 "야웨께서"(출 5:3; 민 14:23; 신 28:21; 삼하 24:15; 대상 21:14; 슥 14:12, 18) 또는 "내가"(레 26:25; 대하

Eerdmans, 1994), 203.

60)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하나님의 거주 공간에 관한 것과 인칭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왕상 8:39)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열왕기는 하늘을 하나님의 거주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대하 20:9) 야웨 하나님의 성전 임재 개념을 선호하고 있으며, 열왕기상 8장 본문이 3인칭 남성 복수(they)를 사용하는 반면에, 역대하 20장 본문은 "우리"(we)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Sara Japhet, / & // *Chronicles*,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790. 열왕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쌍무 계약)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는 반면에(왕상 8:53), 역대기는 다윗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보증과 약속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다(대하 6:42)는 차이점도 주목할 만하다: W. Brueggemann,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신지철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0), 91, 97-99.

7:13; 암 4:10; 렘 14:12; 21:6, 7; 24:10, 27:8; 29:17, 18; 34:17; 42:17; 44:13; 겔 5:17; 12:16; 14:19, 21; 28:23; 33:27; 38:22)라는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야웨 하나님이야말로 전염병의 근원이요 주체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시편에서는 전염병 재앙을 내리시는 야웨 하나님을 3인칭으로 칭하는 본문(“그는/그가”)이 발견되기도 한다(시 78:50; 91:3).

물론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염병(‘데베르’)이 선포되었음을 밝히는 본문(렘 28:8)도 결국에는 야웨 하나님이 전염병의 주체임을 밝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염병(‘데베르’)을 일컬어 “야웨의 칼”로 칭하는 표현(대상 21:12)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야웨 하나님을 주어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야웨 하나님이 전염병의 주체요 근원임을 암시하는 본문들도 적지 않다(민 16:46, 47, 48, 49, 50; 25:8, 9, 18; 26:11; 31:16; 삼하 24:13; 왕상 9:37; 대하 6:28; 20:9; 시 91:6; 렘 21:9; 27:13; 28:8; 32:24, 36; 38:2; 42:22; 겔 5:12; 6:11, 12; 7:15; 숙 14:15).

그뿐만이 아니다. 출애굽기 9:3, 15은 “야웨의 손”<sup>61)</sup>이 전염병을 일으키게 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손”(hand)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드’가 때로는 야웨 하나님의 “권능”(power)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바,<sup>62)</sup> 출애굽기의 이 두 본문에 나오는 ‘야드’는 “권능”보다는 “손”의 의미가 더 강하겠지만, 둘 중 어떤 낱말로 이해하건 간에 야웨 하나님이 전염병의 주체요 근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둔 후로 아스돗과 가드에 독한 종기 형태의 전염병이 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무엘상 5:6, 7, 9은 “야웨의 손”이 그 일을 행했다고 진술하며, 에그론이 사망의 환난을 당할 때도 사무엘상 5:11은 “하나님의 손(‘야드’)이 매우 무겁게 임했다(very heavy, ‘카베드 므오드’; 개역 개정판, “엄중했다”)고 보고함으로써, 야웨 하나님이야말로 블레셋에 임한 전염병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윗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견된다. 야웨께서는 인구 조사를 강행함으로써 불신앙과 교만의 죄에 빠진 그에게 그의 선견자인 갓을 통하여 7년 기근<sup>63)</sup>과 3개월 전쟁 도피 생활 및 사흘 전염병 등의 세 가지 형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제안하시는데, 다윗은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에게 형벌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앞의 두 가지 방식보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벌의 영향이 드러나게 될 사흘 전염병을 선택하면서, 야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야웨께서는 긍휼이 크시니”)에 그 형벌의 범위가 결정될 전염병 재앙을 일컬어 야웨의 손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한다(삼하 24:14).<sup>64)</sup> 그의 이 말은 결국 7만

61)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폭넓게 평행 자료들이 나오는 이 표현은 구약성서 안에서 재앙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P. Kyle McCarter, Jr., //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511.

6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 J. M. Roberts, “The Hand of Yahweh,” *Vetus Testamentum* 21 (1971), 244-251; P. D. Miller and J. J. M. Roberts, *The Hand of the Lord: A Reassessment of the “Ark Narrative” of I Samue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7); P. R. Ackroyd, “יָד,”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 (Grand Rapids: Eerdmans, 1986), 393-426.

63) 역대상 21:12에는 “3년” 기근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NIV와 NRSV는 70인역을 따라서 맛소라 본문의 7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있다.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염병 재앙이 야웨 하나님의 손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요, 따라서 야웨 하나님이야말로 전염병의 근원임을 암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웨 하나님이 전염병의 주체요 근원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은 호세아 5:12이다. 이 본문은 호세아서의 제2부인 4-14장에 속한 것인바, 4-14장 단락에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의적인 범죄와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고발과 비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및 회복과 구원 등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 셋 중에서 뒤의 두 가지, 곧 하나님의 심판 및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앞으로 있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라면, 맨 처음의 메시지인 고발과 비판은 이스라엘의 현재에 초점을 맞추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규범적인 과거를 그러한 고발과 비판의 기준 내지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적인 과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맺으신 시내산 계약과 그 계약에서 비롯된 율법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온갖 구원 은총 역시 규범적인 과거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계약 위반과 계약 파기(6:7)로 압축되는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는 앞서 여러 차례 살핀 바 있는 우상 숭배(2:5[H 2:7]; 3:1; 4:17; 8:4-6; 9:10 등)와 풍요제의 참여 행위(4:11-14)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탈선은 야웨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것은 야웨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은 야웨의 백성이 아니라는 심판 선고로 이어졌다(1:9).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율법을 무시했다는 점이다(4:6; 8:1, 12). 계약 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십계명을 멸시한 행동(4:2)이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권력을 가진 지상의 인간 왕을 세움으로써 야웨 하나님의 왕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8:4; 9:9, 15; 10:9; 13:11)을 지적할 수 있다.<sup>65)</sup> 이에 한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서 강대국의 무력에 의존하는 태도(5:13; 7:11; 9:3; 11:5; 12:1 [H 12:2])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호세아는 특히 이 세 번째의 죄와 관련하여 5:12 이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브라임”)이 자신의 생존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군사 동맹에 목을 거는 태도를 비난하면서, 그들과 유다 족속을 아울러 벌하시는 하나님을 매우 특이한 언어로 표현한다. 야웨 하나님이 그들에게 줌(‘아쉬’=moth; 시 39:11 [H 39:12]; 욥 4:19<sup>66)</sup>; 사 50:9; 51:8)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라캅’=rottenness; 합 3:16; 잠 12:4; 14:30) 같다는 표현이 그렇다(12절).<sup>67)</sup> 이것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미약하게 여겨지는 줌과 썩이는 것의 활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사람의 뼈까지 썩게 만들 정도로 확실하고도 강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야웨 하나님을 곰팡이 균이나 박테리아에 비교한 것으로, 구약

64) Tony W. Cartledge, *1 & 2 Samu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Helwys, 2001), 705-706; Brueggemann,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24, 63-64.

65) J. D. Newsome, *The Hebrew Prophets*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37-38; 구덕관, 『구약개론(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09-110.

66) 개역 개정판과 표준 새번역은 동일한 낱말을 “하루살이”로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67) 욥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두 낱말을 사용하는 바, 욥기 13:28에서는 이 두 낱말의 순서가 정반대로 언급되어 있다.

성서 안에서 가장 기괴한 비유법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 북왕국과 남왕국은 제각기 자신의 질병(sickness, ‘홀리’)이나 상처(wound, ‘마조르’)–대적의 공격을 받아 정치적으로 곤궁해진 상태(사 1:5–6; 램 30:12–13)–를 깨닫게 된다. 디글랏 빌레셀의 공격을 받거나 시리아–에브라임 동맹군의 공격을 받았으니 그 상처가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나라 중에 호세아의 메시지 수령 대상인 에브라임의 경우, 자신에게 닥친 병이나 상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내려지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특히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그의 도우심을 바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시의 국제 정세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앗수르에게 있다고 판단하고서는 앗수르의 야렘 왕, 곧 디글랏 빌레셀에게 특사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왕하 17:3; 참조. 7:11)에 의하여 확인된다(13a절).<sup>68)</sup>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응급조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자 했던 앗수르 제국조차도 그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할 것이다(13b절).<sup>69)</sup> 왜냐하면 야웨 하나님이야말로 온갖 질병과 상처의 뿌리가 되는 곰팡이 균이나 박테리아 자체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으로 인하여 생겨난 질병과 상처는 강대국 앗수르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과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야웨 하나님은 넓게 보아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이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의존하고자 하던 강대국 앗수르의 군사력조차도 야웨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질병과 상처를 고치지 못할 것이요, 오직 야웨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6:1–2).

## 5. 결론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하여 다시금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정부에서도 한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3단계까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다. 특히나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섬겨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서 무리한 다중 집회와 밀착 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은 1:12)라고 말했던 요나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의 철저한 반성

68) H. W. Wolff, *Hosea*, Hermeneia, tr. Gary Stansell (Philadelphia: Fortress, 1974), 115; R. B. Chisholm, 『에언서 개론』,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532. 남왕국의 아하스 역시 많은 예물을 바쳐 디글랏 빌레셀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왕하 16:7–8).

69) 이곳의 본문 단락은 에브라임을 계속해서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칭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13절 하반절에서만은 2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칭함으로써 호세아가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Stuart, *Hosea-Jonah*, 105.



과 참회를 요청하는 엄중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중대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비상한 결심과 각오로 새로운 일상(new normal)<sup>70)</sup>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71)</sup> 이에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피고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야웨 하나님이야말로 전염병의 주체이시면서 근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건 그와 무관한 자연재해이건 관계없이 말이다. 호세아가 5:12에서 밝힌 것처럼, 야웨 하나님은 온갖 질병의 뿌리가 되는 곰팡이나 박테리아 내지는 바이러스 자체이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러한 결론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질병이나 전염병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은 철저히 창조주이신 야웨 하나님의 역사 주권 아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믿는 야웨 하나님의 역사 주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21세기의 흑사병이라 할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과 그로부터 비롯된 환경 파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숲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동물들의 주거 공간 축소를 초래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밀접 접촉 가능성을 높여주는가 하면, 인간의 육식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장식 가축사육 문화가 가축들의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여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한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착취하고 파괴했던 지난날의 자연 파괴적인 반생명 문화를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더불어 호흡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친생명적인 문화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상당 부분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셋째로, 한국교회는 부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점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 까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생명과 안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하였고, 대면 예배와 모임을 생명으로 하는 교회의 본질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면 예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설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할지라

7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열아홉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다음 책을 참조: Jason Schenker,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현 옮김 (서울: 미디어숲, 2020).

71) 여러 학자들의 글이 실려 있어 깊이가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나온 다음의 책이 참고할 만하다: 안명준 외 17인 공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다함, 2020).

도,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에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비대면 언택트(untact) 시대에 걸맞은 목회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의 수단일 수도 있는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접촉(contact) 문화를 개발하는 일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분명해진다. 물론 이에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순응하는 한편으로, 교회 자체로도 건강한 방역 체계를 잘 운영하여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과제를 계속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이 포함된다.

넷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는 악독한 병원균이 아닐 수 없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함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아예 중단됨으로써 경제적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교회도 대면 예배의 중단과 온라인 예배의 지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았다는 점에서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과 마찬가지로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런 때일수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과 대형교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유여한 것을 가지고서 약한 이웃들과 교회들을 섬기는 철저한 자기희생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높고 낮음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구덕관. 『구약개론(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김서형. 『전염병이 휩쓴 세계사』. 서울: 살림, 2020.  
 안명준 외 17인 공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다함, 2020.

Ackroyd, P. R. “7,”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V (Grand Rapids: Eerdmans, 1986), 393–426.  
 Ashley, T. R. The Book of Number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3.  
 Brueggemann, W. 『다시 출추기 시작할 때까지』, 신지철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20.  
 Cartledge, Tony W. 1 & 2 Samu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Helwys, 2001.  
 Chisholm, R. B. 『예언서 개론』, 강성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Christensen, D. L. Deuteronomy 21:10–34:12, Word Biblical Commentary.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2.  
 Dahood, M. Psalms II (51–100),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3.  
 Durham, J. I.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7.  
 Gray, John. I & II King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0.  
 Harrison, R. K. “Disease,”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1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847–854.  
 Hertzberg, H. W. I & II Samuel,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54–55.  
 Hyatt, J. P.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3.  
 Japhet, Sara I & II Chronicles,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Jones, G. H. 1 and 2 Kings, vol. I,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4.

McCarter Jr., P. Kyle. 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0.

\_\_\_\_\_. II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4.

Miller P. D. and J. J. M. Roberts. The Hand of the Lord: A Reassessment of the “Ark Narrative” of I Samue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7.

Newsome, J. D. The Hebrew Prophets.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Palmer, Bernard (ed.). Medicine and the Bible. Exeter: Paternoster Press, 1986.

Roberts, J. J. M. “The Hand of Yahweh,” *Vetus Testamentum* 21 (1971), 244–251.

Schenker, Jason.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현 옮김. 서울: 미디어숲, 2020.

Sussman, Max. “Sickness and Diseas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6 (New York: Doubleday, 1992), 6–15.

Tate, Marvine. Psalms 51–100,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0.

Weiser, A. The Psalms,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82.

Wilkinson, J. “The Philistine Epidemic of 1 Samuel 5 and 6,” *Expository Times* 88 (1977), 137–141.

Wolff, H. W. Hosea, *Hermeneia*, tr. Gary Stansell. Philadelphia: Fortress, 1974.

<http://www.kidok.com>)<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759>



## 코로나19, 공동체와 한국교회<sup>72)</sup>

정원범 / 교회와사회연구소장

- I. 들어가는 말
- II.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반응
  - 1. 성찰을 거부하는 반응
  - 2.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는 반응
  - 3. 의미와 본질을 찾는 성찰의 반응
  - 4. 원인과 문명전환의 과제를 찾는 반응
- III. 교회의 회심1: 대안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 1. 콘스탄틴주의적인 교회 벗어나기
  - 2.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교회: 대조사회 공동체
  - 3. 대조사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 교회
- IV. 교회의 회심2: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공동체 교회
  - 1. 공공성을 잃어버린 교회 벗어나기
  - 2.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교회
  - 3. 사회적 경제를 선교과제로 삼는 교회
- 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지난 10월 26일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 상황 등에 대해 TBS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sup>73)</sup>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기준 46만 5천 319명으로 사흘 연속 하루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6천 570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천 23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 수는 1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는 유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2천 명을 넘어섰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는 강력한 '봉쇄' 조처에 나섰습니다. 스페인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경계령을 발동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화관, 헬스클럽, 극장을 폐쇄하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계속 악화되는 상황으로 존스 홉킨스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각으로 24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8만3천71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중서부 일부 지역에선 의료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너무 많은 국가에서 신

72) 이글은 부산장신대 세계선교연구소가 출판할 예정인 『코로나19와 한국교회 회심』(서울: 동연, 2020)이라는 책에도 “코로나19, 공동체와 한국교회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실리게 될 원고임.

73)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409557&seq\\_800=20402134](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409557&seq_800=20402134)

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은 위험 경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월 18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이 834만 3,14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인도(749만 4,551명), 브라질(522만 4,362명), 러시아(139만 9,334명)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 수도 미국이 22만 4,2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브라질(15만 3,690명), 인도(11만 4,064명), 멕시코(8만 6,059명), 영국(4만 3,579명), 이탈리아(3만 6,474명) 순으로 나타났다.”<sup>74)</sup>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4천 230만 명,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115만 명이라는 숫자는 코로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단지 보건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한 달에 3750억 달러(약 444조 원)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사무총장은 “주요 20개국(G20)만 해도 경기부양책으로 10조 달러 이상을 썼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폰 자급의 3배 반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sup>75)</sup> 한마디로 경제적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국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의 교회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교회는 추락하고 있는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2장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정리하고자 하며, 3장과 4장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대안으로 첫째는 콘스탄틴주의적인 교회를 벗어나 교회의 본래 모습, 즉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대조사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과 둘째는 시대적인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공공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벗어나 생태적인 삶과 사회적 경제를 선교의 과제로 삼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반응

### 1. 성찰을 거부하는 반응

지난 8월 28일, 경향신문 사설은 “코로나 반성은커녕 대면 예배 고집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이라는 제목 하에 “2차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주된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2차 확산의 최대 진원지인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의 반사회적 행태(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를 발생시킴)는 말할 것도 없고 적잖은 교회 지도자들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들을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8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

74)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819212863690>

7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550.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550.html)

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교계에선 거세게 반발하였다. 특히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부산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800여 지역교회에 공문을 보냈고,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수도권 중형교회의 최모 목사는 8월 31일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교회 탄압”이라고 분개하며 “목회자들이 (정부에 맞서)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sup>76)</sup>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의정부시의 이모(43,여)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 종교인들이 진정 맞느냐”고 비판했고, 양주시의 전모(40, 여)씨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을 주면서까지 왜 모이는 것이냐? 꼭 사람들이 모여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냐”며 성토했으며,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예배 모임이 칼이 돼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비판하였다.<sup>77)</sup>

뿐만 아니라 교계의 비판도 줄을 이었는데 손봉호 교수는 기윤실 홈페이지에 “대면 예배만 예배란 주장은 성경적 근거도 없다”라며 “일각에서는 현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고 비아냥거리는데 한국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모독이다.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코로나19의 폭발적 재확산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sup>78)</sup>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방역을 방해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림으로 인해 정부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엄청난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일부 교회 관련 단체들의 몰상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교회가 방역 방해집단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예배 금지와 종교탄압으로 몰아가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일부 기독교단체들은 즉각 그 행동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성도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지침을 따라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대다수 교회들의 뜻을 왜곡되게 일반 사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비상식적이며 반사회적인 방역 방해집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화될 경우 이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행동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웃사랑의 종교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 시점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인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온라인 예배라는 긴급 처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7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894>

77) 위의 글.

78) <https://cemk.org/17741/> 참고: 요4:21-24, 롬12:1

합법적인 정책에 협력하는 것은 성경과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의 위기 앞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과 단절하며 보다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2.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는 반응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중 가장 뚜렷한 것이 비대면 사회(언택트 시대)로의 진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으로 즐기는 문화예술까지 비대면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경제를 비대면(언택트) 사회, 비대면 문화, 비대면 소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청어람ARMC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805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5명 중 57%(464명)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32%(258명)가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고 했으며, 온라인 예배 없이 현장 예배로만 진행하는 경우는 6%(55명)에 불과했다. 즉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에 90% 가까운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9)</sup>

이렇게 80% 이상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기술과 장비, 인력이 부족해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자료를 전국의 모든 교회와 나누기 위해 자체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해 오던 교회들이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과 함께 ‘교육자료 나눔 운동’에 나섰다. 현재는 14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육자료(온라인 설교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부터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주중 신앙교육, 사순절 절기 프로그램 등의 자료)는 연구원 페이스북([facebook.com/Putsceri](https://www.facebook.com/Putsceri))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sup>80)</sup>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도, 회의도, 소비도 비대면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언택트 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흥미롭게 예배도 드리고, 재미있게 신앙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3. 의미와 본질을 찾는 성찰의 반응

청어람ARMC에서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하는 설문 중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가장 신경 쓰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고 묻는 질문을 보면, 전체 응답자 805명<sup>81)</sup> 중 27%(224명)가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섬김, 봉사라고 응답했고, 25%(208명)

79)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12>

80)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26276>

는 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교훈 제시, 22%(178명)는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운영과 혁신, 22%(177명)는 예배를 비롯해 신앙의 기본기 회복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적잖은 교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교훈, 신앙의 본질을 제시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목회자들도 설교나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의미와 신앙, 예배, 교회의 본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우선 안중덕 목사의 ‘코로나 감염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이다.<sup>82)</sup>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는 코로나19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였고, 김경진 목사(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전염병을 허용한 것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독단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려는 경교”<sup>83)</sup>라고 하였다. 또한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sup>84)</sup>

지금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말합니다만, 아직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강화되거나 혹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익혀

81) 응답자 805명 중 일반 성도는 71%(576명), 목회자는 23%(188명)이었고, 가나안 성도는 5%(40명)이었다.

82) <http://www.kookminnews.com/news/view.php?idx=28976>

83) <https://www.chosun.com/opinion/taebyeongro/2020/09/14/MDBAT3AU6NB5DFN3UHNIYJHHYI/>

84)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64144>



나가야 합니다. 이 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풍량이 심하여 배가 심하게 요동할 때는 배 안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바다에 버려야 하는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여, 본질에 더욱 충실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당분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역도 못 하고, 교제도 못 하고, 봉사도 못 하는데,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만 아니면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것들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 삶에 침투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예배의 현상이었습니다. 온라인 일지라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러지는 자리면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교회는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결국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지 인간의 모임이나 사역, 프로그램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예장통합 교단 소속 목회자 1,1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목회 실태 및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를 묻는 질문에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21.2%)’, ‘교회의 공적인 역할 강화(12.9%)’, ‘온라인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6.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sup>85)</sup>

#### 4. 원인과 문명전환의 과제를 찾는 성찰의 반응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한다. 최재천 교수도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인간에 의한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의 원인이라고 하였고<sup>86)</sup>, 제레미 리프킨도 “코로나19 위기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sup>87)</sup>라고 하였다.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원인을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새로운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세계관, 생태 중심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도 문명 전환의 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의 사례를 들 수 있다. NCCCK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88)</sup>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구분하며 ‘회복’을 상상하던 시기를 지나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 인류적 생명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의 문명 세계를 발전시켜온 인류를 향해 “멈춰라, 성찰하

85) <http://www.dailywrn.com/15787>

86)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2020), 25-30.

87) 제레미 리프킨 외, 『오늘부터의 세계』 (서울: 메디치미디어, 2020), 19.

88) <http://kncc01.kode.co.kr/newsView/knc202008170001>

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생태적 회심과 문명사적 전환을 요청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말론적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시대로의 회복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변혁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필자도 제4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의 기조발제에서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코로나19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문명전환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sup>89)</sup>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명문명으로의 일대 전환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대역병을 포함하여) 코로나19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우리의 의식과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코로나19는 인간의 잘못된 삶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가르쳐준다. 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문명은 살리는 문명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생태계를 착취하고 약탈하면서 지구의 생명체계를 파괴해온 제국주의 문명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인간의 문명을 생명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② 코로나19는 인간의 문명이 생태계 파괴를 당연시해왔던 인간중심적인 문명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풍성한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인간중심적인 문명을 지구중심적, 생명중심적 문명으로 바꾸어야 함과 동시에 인간의 안녕(행복)이 자연의 안녕(행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③ 코로나19는 인간의 문명이 무한 개발과 무한성장,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문명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④ 코로나19는 우리의 세계관이 영혼과 육체,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고 후자에 대한 전자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온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이원론적인 지배의식을 버리고 통전적인 평등의식을 가져야 한다.

### Ⅲ. 교회의 회심1: 대안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 1. 콘스탄틴주의적인 교회 벗어나기

지난 7월 초, 정부가 교회 내 소모임을 제한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주장한 바 있던 한교총은 8월 18일 입장문에서 “최근 몇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교인들과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통로가 된 것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고,<sup>90)</sup>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교회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89) 정원범,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코로나19의 교훈,” 「제4회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 자료집」, 10.

90)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84>

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져야 할 교회가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라고 사과했다.<sup>91)</sup>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 7월 24일 이후, 교회에서의 감염은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기타 감염 위험을 높이는 종교 행위를 자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안일한 태도로 코로나19 이전의 행위들을 답습한 교회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심각한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인정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하였다.<sup>92)</sup>

얼마 전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던 전광훈과 극우 기독교 세력에 대해 개신교계 내 진보·개혁 성향의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개신교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전광훈과 극우 기독교 세력은 사랑과 화해가 본질인 기독교를 차별과 혐오의 종교<sup>93)</sup>로 바꾸더니 이제는 극도의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사죄> 1. 우리는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과 번영만을 추구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사죄합니다. 2.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물질을 추구하는 탐욕을 사죄합니다. 3. 전광훈과 같은 무리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설치고,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사죄합니다. 4. 한국교회가 방역당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못했음을 사죄합니다.”<sup>94)</sup>라고 고백했다.

한국 근대화와 사회변혁의 원동력이었던 한국 개신교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한 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된 이 현상을 존 하워드 요더는 콘스탄티누스주의라고 하였다. 콘스탄티누스주의란 교회와 세상(사회, 국가)와의 동일시 또는 융합의 현상을 말한다.<sup>95)</sup>

기장 총회는 교회발 코로나 확산 사태를 ‘전광훈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극우적 정치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전광훈 현상'은 한국교회의 민낯이었다”라고 하였고, 배덕만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전광훈, 한기총, 반동성애 운동,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극우적 개신교 진영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근본주의·침미주의·반공주의의 화학작용으로 탄생한 독특한 기독교 현상이다”<sup>96)</sup>라고 분석했다. 이런 설명들은 모두 대부분 보수화된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또한 세상의 대세로 잡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과

91) 위의 자료.

92) 위의 자료.

93) 기장 총회는 전광훈 현상을 보면서 "분단 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돼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다.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였고, "'전광훈 현상'을 배태하고 비호하거나 또는 방관해온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잘못을 통렬하게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4)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2>

95) 정월범, 『교회다운 교회: 참된 기독교 영성의 회복』 (서울: 동연, 2016), 26.

96)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74>

다를 바 없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콘스탄틴주의적 교회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 2.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 대조사회 공동체

본래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 사역의 일체의 유일한 의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었고,<sup>97)</sup> 예수님은 자신이 모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대조사회(Kontrastgesellschaft) 또는 대척사회(Gegengesellschaft)로 이해했다.<sup>98)</sup> 로핑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예수는 모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막 10:42-45가 이미 말해주듯이) 대조사회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민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나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여 세상에서 여느 사람들이 예사로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살며 달리 상종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예수가 모으려는 하나님 백성이야말로 대안사회라고 일컫기에 손색이 없다. 이 사회 안에서는 이 세상 권세들의 폭력구조가 아니라 화해와 우애가 지배해야 하는 것이다.<sup>99)</sup>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그렇다고 한적한 벽지에서 구원을 대망하는 경건자들의 영적 공동체만도 아니다. 온 실존으로 -따라서 온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상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어야 할 그런 이스라엘이다.<sup>100)</sup>

교회는 지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며 드넓게 빛을 비추는 도시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수긍될 수 있는 사회질서의 삶을 사는 공동체다. 세상을 위한 교회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신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안에서 번영해서는 안 되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sup>101)</sup>

요컨대 교회란 한마디로 이교 사회(세상)와 근본부터가 철저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질서로서 세상과 날카롭게 맞서는 대조사회 공동체라는 것이고,<sup>102)</sup>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다.<sup>103)</sup> 결국 “교회란 일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대조사회로서 존재“해야 하며, ”교회 전체가 대안적 성격을 띤 사회라야 한다“는 것이다.<sup>104)</sup>

97) Gerhard Loh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왜관: 분도출판사, 1996), 56.

98) 위의 책, 204, 207.

99) 위의 책, 102.

100) 위의 책, 207.

101) 위의 책, 119.

102) John Howard Yoder, *The Polotics of Jesus*, 신원하,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7), 101-102; Gerhrd Loh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220-221, 268.

103) John Howard Yoder, *The Polotics of Jesus*, 신원하, 권연경 역, 『예수의 정치학』, 376.

104) Gerhard Loh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210, 227

### 3. 대조사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 교회

로핑크에 따르면 예수님과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종적으로 달성될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일, 곧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세우는 것이었다.<sup>105)</sup>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sup>106)</sup>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sup>107)</sup>에 순종하면서 대조사회의 삶, 즉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하나님의 백성들)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가리키는 징표가 된다.<sup>108)</sup> 이런 점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세상에 대한 대조사회가 되는 것이다.<sup>109)</sup> 교회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조사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로핑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또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그 까닭에, 교회가 세상으로 변해서는 안 되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sup>110)</sup>고 말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 즉 대조사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로핑크의 설명을 도표로 정리해보자.<sup>111)</sup>

| 세상(세상의 사회들)             | 교회 =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
|-------------------------|--|
| 일반 사회, 이교도 사회, 세상의 지배질서 | 교회 =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조사회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창조'로서의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질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사회질서 |
| 한때는 / 어두움               | 지금은 / 빛<br>"한때 여러분은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 가십시오"(엡 5:8, cf: 딤후 3:3-6, 골 3:8-14)                            |

105) Gerhard Loh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174.

교회공동체로 사는 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섬김이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이렇게 말한다: 1. 공동체는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2. 공동체는 신앙의 응답이다. 3.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4. 공동체는 다가오는 하나님나라의 징표이다. 5. 공동체는 사랑과 일치로의 부르심이다. 6. 공동체는 희생을 의미한다. 7. 공동체는 신앙의 모험이다.(김난예, 정원범, 『공동체 영성의 향기』 (논산: 대장간, 2019), 205-206.)

106) 위의 책, 57.

107)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의하여 장악되는 바로 그만큼 - 그 실존의 모든 차원에서 - 달라질 것이다."(위의 책, 128)

108) 위의 책, 124.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야흐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현재의 일이 되고 있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의 일이 되고 있다.(위의 책, 125)

109) Gerhard Loh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242.

110) 위의 책, 242-243.

111) 위의 책, 69-282.

|   |   |
|---|---|
| <p>옛 사람 / 옛 사회</p>  | <p><b>교회 = 새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b></p>   |
| <p>옛 사회, 이교도 사회의 인간:<br/>분노, 걱정, 악의, 모독, 욕설, 거짓말</p>                          | <p><b>그리스도인 = 하나님의 새 사회의 새 인간</b><br/>자비,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사랑<br/>(골 3:8-14)</p>   |
| <p>지배욕, 권력욕에 사무친 세상의 사회 /<br/>지배와 권력의 추구<br/>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p>                 | <p><b>교회 = 지배관계, 지배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 지배의 단념, 지배욕이 배제된 사회</b><br/>“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지배관계가 없어야 한다.”<sup>112)</sup>(막 10:42-45)<br/>“교회가 그 권위를 걸핏하면 지배에 의하여 확보하려 한다는 것은 교회 본연의 모습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비극의 하나다... 진정한 권위는 지배를 단념하고 무력해졌을 때라야 빛이 난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박힌 분의 권위다”<sup>113)</sup></p>  |
| <p>끝없는 적대(대립)관계, 계급사회, 여성차별 사회</p>  | <p><b>교회=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징표</b><br/>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갈 3:26-29, 고전 12:13,)<sup>114)</sup> “새로운 창조로서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징표로서의 공동체”<sup>115)</sup></p>  |
| <p>신분의 차별, 특권이 있는 사회:<br/>유대사회는 옆에 언급된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등한 인간 가치를 부인하며 상종조차 거부함</p> | <p><b>교회= 차별과 특권이 없는 사회</b><br/>압도적인 성령의 체험을 통해 모든 사회적 차별의 지양되고, 모든 사회적 장벽들이 철폐되고 특권과 천대가 배제된 새로운 화합의 공동체(요엘 3:1-5, 행전 2:17-18)<br/>“예수는 화합된 사회인 이스라엘을 원한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식자도 무식한 사람도, 갈릴래아 시골 사람도 예루살렘 도시인도, 건장한 사람도 병자도, 의인도 죄인도 상종한다. 아니, 더욱 꼬집어 말해야겠거니와 바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지치고 짓눌린 사람, 병자, 죄인, 세관원, 창녀, 사마리아 사람, 여자, 어린이들을 위하여 편든다.”<sup>116)</sup></p> |
| <p>혈연 가족</p>  | <p><b>교회 = 새로운 하나님 가족, 새로운 가정</b><br/>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형제애를 나누는 예수님의 새 가정<br/>“요컨대 당시에는 공동체에 자기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야말로 자기네 자신의 경계선들을 타파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방된 새 가정의 구조가 모범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sup>117)</sup></p>   |

|                    |   |
|--------------------|---|
| <p>폭력이 난무하는 세상</p> | <p><b>교회 = 폭력의 단념, 비폭력의 새로운 사회질서의 가장 중요한 표징</b><br/> “폭력을 수단으로 해서 권리를 쟁취해서는 안 된다. 폭력으로 권리를 쟁취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감수해야 한다.”<sup>118)</sup><br/> “교회라는 메시아 백성 안에서는 이미 폭력이란 없다. 거기서는 모두가 ‘평화의 아들들’이 되어 있다.”<sup>119)</sup></p> |
|--------------------|---|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었고,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곳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그러나 고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아니 고대교회는 철저하게 대조사회였다. 그들은 바울서신 등에서 언급되었던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 요구들<sup>120)</sup>을 실천했던 교회였다. 먼저 유스티누스의 기록을 보자.<sup>121)</sup>

전에는 음란한 일들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순결에만 충실하는 우리들입니다. 교묘한 요술들에 휩쓸렸었지만, 이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자하신 하나님께 성별된 우리들입니다. 돈과 재산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었지만, 이제는 가진 것을 공동의 일에 이바지하고자 내어놓고 누구든지 아쉬운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하면서 우리의 동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생활 관습들이 달라서 한 번도 공동유대를 유지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후로 이제는 밥상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사는 우리들입니다.

디오니소스도 어떤 편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sup>122)</sup>

우리의 형제들은 대부분이 넘치는 사랑과 친절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병자들을 거두어들여 세심하게 보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중을 들었으므로 병자들과 똑같이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죽어갔습니다. - 다른 이가 앓는 병에 전염되면

---

112) 위의 책, 92.  
113) 위의 책, 203.  
114) 위의 책, 158-168.  
115) 위의 책, 168.  
116) 위의 책, 153.  
117) 위의 책, 183.  
118) 위의 책, 101.  
119) 위의 책, 290.  
120)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십시오(롬 12:10), 서로 합심하십시오(롬 12:16),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롬 15:7), 서로 충고하십시오(롬 15:14),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롬 16:16), 서로 기다리십시오(고전 11:33),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십시오(고전 12:25), 서로 사랑으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갈 6:2), 서로 위로하십시오(살전 5:11), 서로 건설하십시오(살전 5:11),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살전 5:13), 서로 선을 행하십시오(살전 5:15),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십시오(엡 4:2), 서로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엡 4:32), 서로 순종하십시오(엡 5:21), 서로 용서하십시오(골 3:13),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약 5:16),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약 5:16), 서로 진심으로 다정하게 사랑하십시오(벧전 1:22), 서로 대접하십시오(벧전 4:9), 서로 겸손으로 대하십시오(벧전 5:5), 서로 친교를 나누십시오(요일 1:7), 위의 책, 170-171.  
121) 위의 책, 261.  
122) 위의 책, 264.

서, 다른 사람의 병에 자기도 걸리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공통을 넘겨받으면서 -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은 가장 튼튼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 이교도들의 경우는 사정이 판이했습니다. 그들은 병들기 시작하는 사람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라도 팽개치고 달아났고, 반쯤 죽은 이를 길바닥에 던져버렸으며, 시체를 매장도 하지 않고 마치 오물처럼 버려두었습니다.

아리스테데스는 그의 「호교론」에서 고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sup>123)</sup>

오 황제여, ...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만유의 창조자요 직공장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 그분에게서 그들은 계명을 받았으며, 그 의미대로 기입하여 놓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간통과 음행을 자행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제시하지 않으며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다하며, 판관이면 정의에 따라 판결합니다. 사람 모습의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남이 자기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를 자신도 남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은 불결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능멸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 열심히 자선을 베풁습니다. ...

노예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 권유하여, 자기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합니다. 또 과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차별 없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들을 학대자에게서 해방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쉬움 없이 내어 줍니다.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들이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사실 그들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을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보면, 그는 재력대로 장례를 주선합니다. 또 그들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나 궁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모두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주고 될 수 있다면 그를 풀려나게 합니다. 또 그들 속에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먹고 남는 것이 없다면 이틀이나 사흘씩 단식을 하여서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고대교회가 당시의 부패한 이교도 사회와 얼마나 철저하게 대조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였던가를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 8월에 기독교 8개 언론(CBS, CTS, CGN, GoodTV, C채널, 국민일보, 극동방송, 기독교신문)과 코로나19 설문조사 TF팀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개신교) 인식 조사’를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종교별 신뢰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3%가 개신교에

123) 위의 책, 266.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sup>124)</sup>

한국교회는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로핑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더없이 큰 봉사는 아주 간단하다: 즉 교회가 참으로 교회가 되는 그것이다.”<sup>125)</sup>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불신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경과 고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조사회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실제로 세상을 위한 대조사회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V. 교회의 회심2: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공동체 교회

##### 1. 공공성을 잃어버린 교회 벗어나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점점 더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교회가 교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둘째로, 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서구교회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공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적인 진리로 선포하였기 때문이고(신앙의 사사화), 그에 따라 교회의 공적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서구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역시 그동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고 “개인의 영적 구원이라는 좁은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나서 복음의 진리성을 공적으로 증언하고 공적인 영역의 문제들에 대하여 공적 진리로서의 빛에 비추어 책임 있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sup>126)</sup> 다시 말해 한국교회는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공공신학적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교회는 코로나 확산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요청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지역 주민의 우려를 외면하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교회의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해 왔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공성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교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교회

최재천 교수가 말한 대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인간에 의한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먼저 그동안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는 생태적인 삶을 살지 못한 데 대하여 회개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생태계 파괴에 일조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칼 아메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127)</sup>

기독교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계약을 인간중심적으로 축소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을 경시하는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였다. 기독교는 자연의 짐승, 물고기, 새, 풀과 나무

124)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20>

125) Gerhard Loh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정한교 역,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278.

126) 류태선,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서울: 한들출판사, 2011), 10.

127)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9

등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에서 배제하였으며 그들을 단지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자연의 훼손과 파괴는 물론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센트마이어 역시 “말하자면 19세기와 20세기 초 개신교 신학은 전반적으로 자연과 관계를 끊었고, 그로 인하여 자연을 마음대로 처리하고자 했던 산업주의의 정신을 사실상 허용했다.”<sup>128)</sup>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생태계를 파괴해가며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현대 문명을 향해 지금이라도 방향과 태도를 바꾸려는 경고”로 알고,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살아낼 것을 결단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때 2050년이 되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지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sup>129)</sup> 될 정도로 심각한 생태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용휘는 이 위기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sup>130)</sup>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남획하면서 생긴 재앙, 즉 환경파괴에서 비롯된 환경재앙이다. 그런데 코로나 외에도 생태 위기는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종 다양성 소멸, 열대림 파괴, 사막화, 토양침식, 홍수와 가뭄, 폭염과 한파, 지하수 고갈과 오염, 산호초 파괴, 쓰레기 매립지 확대, 독성 폐기물과 살충제 및 제초제,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한 땅의 황폐화, 핵폐기물, 미세먼지, 천연자원의 고갈, GMO 농산물 등등 이루 다 헤아리기도 힘들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이다. 최근의 세계적인 홍수와 가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는 대부분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최근 유럽은 150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약 3만 5천 명이 사망했으며, 인도는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약 1,500명이 사망했다. 중국과 브라질, 파키스탄은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며 영구동토층이 감소하고 있으며, 제트기류의 이상과 바닷물의 열 순환이 방해받고 산호초가 멸종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 수림대와 아마존의 밀림도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난 100년간 약 1도가 상승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2006년 발표된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C 오를 경우, 안데스산맥 빙하가 녹으면서 이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던 약 5,000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으며, 매년 30만 명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지구의 온도가 3°C 오를 경우 아마존 열대우림이 붕괴되고, 최대 5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며, 4°C가 오르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가 사막으로 변하고 북극 툰드라의 얼음이 사라져서 추운 지방에 살던 생물들이 멸종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5°C 오를 경우 히말라야의 빙하가 사라지고, 바다 산성화로 해양 생태계가 손상되며, 뉴욕과 런던이 바다에 잠겨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평균기온이 6°C 오를 경우 인간을 포함해서 현재 생물종의

128) H. Paul Santmire, *The Travail of Nature: The Ambiguous Ecological Promise of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5), 122.

129) David Wallace-Wells, *The Uninhabitable Earth*, 김재경 역, 『2050 거주 불능 지구』 (파주: 청림출판, 2020)

130)

<https://ecosophialab.com/%EC%83%9D%ED%83%9C%EC%A0%81-%EB%AC%B8%EB%AA%85%EC%9C%BC%EB%A1%9C%EC%9D%98-%EC%A0%84%ED%99%98%EC%9D%98-%EC%8B%9C%EA%B0%84-%EC%BD%94%EB%A1%9C%EB%82%98-19%EB%A5%BC-%ED%86%B5%ED%95%9C-%EC%8B%A4%EC%A1%B4/>

90%가 멸종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를 쓴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미래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표면의 30% 이상에서 극심한 사막화가 동반된다고 한다. 지구 곳곳에서 산불, 폭염, 가뭄, 침수 등의 이상기후를 겪을 것이고, 강우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엘니뇨 현상이 만연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기후재난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기후 난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폭염이 1년에 100일 이상 지속될 것이고, 전 세계 곡물 수확량이 80%가 감소할 것이며, 더불어 만성적 물 부족 문제에 처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식량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UN은 2050년에 기후난민이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생존에 취약한 빈민층이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IPCC(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가 2도 상승하는 경우 1.5도 상승할 때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인구가 약 1억 5,000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한다.

이처럼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한 결과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을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 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위해 생태적인 사명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 3. 사회적 경제를 선교과제로 삼는 교회

미국의 정책연구소(IPS)가 지난 3월 조사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 한 달 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오히려 3,800억 달러(약 467조 원) 늘어났으며, 이 기간 억만장자 중 최소 8명은 코로나19에도 보유자산을 10억 달러(1조 2천억 원)나 늘렸다고 한다. 이런 보고서를 낸 연구소장 척 콜린스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억만장자는 더 부자가 됐다.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31)</sup>

우리나라도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양극단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한 기자에 따르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장기화로 많은 자영업자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를 발판 삼아 부를 축적하고 있는 정 반대적인 상황인 것이다.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따르면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가구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로소득이 3.3% 줄었다. 반면 상위 20%는 2.6% 늘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비지출에서도 양극단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상위 20%는 소비가 3.3% 감소하였지만 소득 하위 20%는 10% 줄었다.”고 한다.<sup>132)</sup>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이런 양극화 상황은 교회로 하여금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적

13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NWPOPOK>

132)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1>

과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본다. 사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양극화 상황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세계교회협의회가 말한 대로 “자본에 집중하는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물, 모든 인간을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린다.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적 풍요를 우선시하므로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탐욕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시킨다. 그것은 죽음의 경제이다.”<sup>133)</sup> 최근에 김누리 교수도 “첫째, 자본주의는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 자본주의에서는 사물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둘째, 자본주의는 사회를 파괴합니다. 사회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일종의 정글로 만듭니다. 셋째, 자본주의는 무한히 자연을 침탈하고 파괴합니다.”<sup>134)</sup>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했고, 코로나 상황이 보다 심화시키고 있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목적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면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진 조직들”이다.<sup>135)</sup> 말하자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뢰, 협동, 공감, 자립, 연대, 호혜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sup>136)</sup>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승자독식의 사회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를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의 원인과 그 폐해,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하나님의 경제)는 만민이 풍요한 생명을 누리며, 풍요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의 경제, 인간의 존엄, 창조세계의 보존을 중시하는 생명의 경제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137)</sup>

## V. 나가는 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한다.<sup>138)</sup>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고, 헨리 키신저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판단은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수만 명,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염병들은 과거에 기존의 사회,

133) WCC, 김승환 역, 『경제세계화와 아가페운동』 (도서출판 휴과생기, 2010), 16

134)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엔셜, 2020), 147-149.

135) 고동현 외,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6), 62.

136) Chris Marshall, *Biblical Justice: A fresh approach to the Bible's teaching on Justice*, 정원범 역, 『성서는 정의로운가』 (춘천: KAP, 2016), 57-66.

137) WCC, 『경제세계화와 아가페운동』, 16-17, 20-21.

138) 유발 하라리, 토머스 플드먼, 헨리 키신저 등

경제질서를 바꾸어 놓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의 몰락과 시민계급의 성장을 가져왔고,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옮긴 천연두(원주민의 90%가 목숨을 잃음)는 남미 원주민 문명을 무너뜨리면서 대항해시대를 불러왔고, 급기야 유럽의 금융 질서를 바꾸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발병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영국은 몰락했고, 미국이 신흥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는 세계 경제 재편이 시작됐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는 말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 즉 인류의 삶을 건강하고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라고 본다. 과연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문명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장윤재 교수는 “언제 인류가 자신의 도덕적 결단으로 스스로 문명의 길을 바꾼 적이 있던가! 그럴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sup>139)</sup>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인간은 위기를 만나 뭔가 긍정적인 세상의 변화를 일궈낸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보건의 의료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브라질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를 신설했으며, 태국은 90년대 말 불경기를 겪으며 공공 의료보험제를 시작했다.

이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인류가 현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야기된 여러 위기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생명문명으로의 일대 전환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교회 역시 지속가능한 생명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139)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제4회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자료집」, 15.



## 생태적 제자도

눅 9:23~25(참고; 마 16장, 막8장)

최광선 / 덕신교회 목사

### 1. 주제: 생태적 제자도

오늘 주제는 생태적 제자도이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온몸으로 배웠고, 그 후 스승의 길을 따라 걸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의 핵심이 담겨 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날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주님을 따름”이다.

“자기부인”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관계 단절, 죄의 근원)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자기부인이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부인과 동의어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십자가는 주님의 길이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제자의 길이며 위대한 과업이 된다. 그리스도교는 역사의 과제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과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위기이다. 우리 시대의 십자가라 할 수 있다. 생태적 과제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한국교회는 유월 첫 주일 예배를 “환경주일”로 지킨다. 그 이유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피조세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생태적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창조세계와 맺었던 방식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의미한다. 생태적 제자도는 예수님이 자연과 맺었던 방식, 예수님이 자연을 바라보셨던 그 눈을 닮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 하겠다.

### 2. 스승과 제자: 데니스 교수님 (St. Michael's College 생태신학교수)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인가?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다. 다음 달 말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하는 <세계정신문화심포지엄>에 <코로나19시대의 영성>이라는 주제발표를 요청받았다. 그 발표를 위해 논문을 한 편 써서 제출했다. 글을 준비하면서 데니스 교수님의 가르침을 참고 삼았다. 글을 쓰는 동안 교수님이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제자는 단순히 학문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삶도 배운다. 데니스 교수님을 스승으로 마음에 둘 모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분이 보여준 삶의 자세였다. 교수님께서 2013년 안식년으로 순천에 방문하셨을 때, 순천을 너무나 좋아하셨다. 저희 모친을 만나고는 자신의 어머니와 매우 많이 닮았다고 하시며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다. 지난해 초에는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Blue Jays에 입단한 것을 기뻐하며 아이들에게 류현진 Jerseys를 사서 보내 주셨다. 그분을 생각하면 제자는 스승에게 공부만 배우는 사람이 아닌 삶과 인격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인 것을 떠올리게 된다.

### 3.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소망을 두며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따르기 원하는가? 오늘 우리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주어진 시대 상황에 응답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 원하는가?

## I. 생태위기

### 4. 생태위기 현실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문제는 기후급변으로 인한 생태위기이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세계적으로 1.69억 확진하였고, 351만 사망하였다. 한국은 13.9만이 확진, 1946명이 사망하였다.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생태파괴라고 지적한다.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1.2도씩 상승했다.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환경파괴, 밀림 파괴 등의 결과이다. 캐나다를 상징하는 북극곰은 최상위 멸종단계에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가 6번째 대멸종에 들어갔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다. 매년 만종이 사라지고 있고, 이는 평균 멸종 속의 1000배에 이른다고 한다. 기온이 6도씩 상승하면 우리 인간도 멸종을 맞이할 것이라 예측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일은 삶의 질이 아닌 생존 그 자체가 되었다.

### 5. 생태위기와 그리스도교 응답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앞에서 정직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첫째, 생태위기와 그리스도교 신앙은 관계가 있는가? 2013년 미시건대 John Clement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인 또는 비종교인보다 생태의식이 낮다고 한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생태의식이 낮을까? 그리스도인은 왜 아무런 의식 없이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못 생명종이 죽어 가는데 둔감하며 반응하지 않을까? 예수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닐까? 자신이 원하는 예수,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 틀에 갇혀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이해하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고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백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숨과 같은 생명의 영으로 고백한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인 못 생명종이 멸종을 맞이하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둔감하고, 응답하지 않고, 의식조차 낮은 것일까?

둘째 질문은, 이처럼 심각하게 지구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 현재 소비 중심적 상업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세사학자 린 화이트는 이미 1967년 “생태위기의 뿌리(The Roots of Ecological Crisis)”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생태위기의 근본적 뿌리는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의 실패라 진단한다. 특히, 기독교가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생태파괴의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상당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생태신학과 영성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 6. 생태의식을 일깨우고,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 재설정의 스승은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생태의식을 깨우는 스승이 있는가?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를 재설정할 때 그 방법을 배울 스승이 있는가?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며 삶을 인도하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는 제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길을 찾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이다. 제자는 스승을 부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전부를 걸고 따른다.

## II. 생태적 제자도

### 7.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파괴적인 국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역할을 하였다. 성경은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라 말씀한다.

딤후 2:8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히 3:1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자는 스승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다. 오늘 생태위기 앞에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실까?

### 8. 산상수훈 6장 중심으로

자연과 맺는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다양한 가르침과 태도가 있다. 그중에서도 산상수훈 6장을 교훈 삼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바라보기를 원한다.

마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9. 영성훈련과 창조세계의 경이로움



예수님은 창조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을까? 나는 복음 관상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를 원했다. 40일 영신수련과 70일 영성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2003년 토론토대학 리지스 칼리지에 진학하여 영성훈련과 영성을 공부했다. 그곳에 나를 추천하셨던 ○○○교수님은 “영성은 책상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몸으로 닦고 훈련으로 체득해야 하는 공부”라 하셨다. 학위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변화를 위한 공부를 하라는 가르침이었다. 공부하는 동안 학문적 탐구와 영성훈련을 병행하였다. 나는 필프에 있는 영성센터에서 40일 영신수련(2005)과 70일 영성지도자 과정(2011)에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매년 8박 9일 리트릿과 생태 리트릿 등에 참여하였다. 일과는 대부분 침묵과 복음서를 이용한 복음관상기도, 그리고 면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성과들이 많았다. 침묵을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신앙을 한층 성장하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다.

그 기간에 나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채플에서 기도하기보다 필프의 넓은 들, 강, 그리고 초지를 걸곤 하였다. 나는 영성센터가 위치한 필프의 들녘을 사랑하였다. 그곳의 들녘을 너무 좋아해서 새벽이면 침대에서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동트기를 기다려 여명이 밝아오면 들녘을 향해 뛰어나갔다. 새 소리, 바람 소리, 땅의 촉감이 좋았다.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사슴들이 좋았다. 사슴이 들녘을 뿔 때 내 영혼도 함께 뛰었다. 그곳에 있는 나무들, 새들, 심지어 아침에 들녘을 메운 안개까지도 내게는 하나님의 현존이었고 은총만 드러내는 거룩한 땅이었다.

필프의 들녘에서 나는 하나님과 땅과 그곳의 모든 만물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임을 경험하였다. 새벽 들녘의 자유로운 영혼 사슴은 내 영혼의 자유를 보여주었고, 새들은 찬양의 스승이었다. 안개 가득한 날, 발부리에 부딪힌 작은 돌은 안개 너머 태양이 있음을 가리키는 분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어느 해 큰 바람에 부러진 버드나무가 있었다. 그 이듬해 방문했더니 그 나무는 싱싱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게 상처를 보듬고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영성지도자 과정을 함께 했던 동료들은 나를 “거북이 친구(turtle’s friend)”라 불렀다. 나는 종종 강가와 늪 근처로 가서 거북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고, 내 나뭇속에서 거북이가 등장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거북이들이 햇볕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은 내 안에 빛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가리키곤 하였다.

영신수련을 참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석사 이후 박사과정에 대한 선택과 분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 나는 필프의 들녘에서 종종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신비를 맛보았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의 창조세계는 기도에서 현실로 다가왔다. 창조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장엄함은 나를 더 깊은 기도로 이끌어갔고, 그것은 창조세계에 대한 나의 소명처럼 다가왔다. 영성 훈련을 마친 후 나는 창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장엄함을 공부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지원했다. 그 분야가 생태영성이었다. 필프의 들녘은 내가 박사과정에서 생태영성을 전공한 이유가 되었다. 나는 영성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를 바라는 친밀감을 쌓아갔다. 그럴수

록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다.

## 10. 갈릴리의 꿈

아름다운 갈릴리,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복음이다. 오늘 하늘의 새와 백합화를 말씀하시는 장소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어느 산이다. 예수님은 산을 매우 좋아하셨고, 가장 귀한 말씀을 그 산 위에서 들려주셨다. 산상수훈이 펼쳐지는 곳은 어떤 곳일까? 르낭(산업화, 도시화 이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는 가버나움 근방의 게네사렛(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앉아 있다. 거기서 호수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다. 이 호숫가는 예배당이요 농부와 어부들은 회중이다. 갈릴리는 이제 막 봄에 접어들었다. 마치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공기는 향기롭다. ... 그 주변 나무에는 연푸른빛이 돌아나고 갖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움트고 있다. 예수의 바로 앞에는 호수의 드넓은 정경이 펼쳐진다. 그 옆에는 봄꽃이 찬란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날 호숫가의 풍경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 바로 그날 만들어주신 듯하다. 예수는 이 ‘축복의 산’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한다. 그가 꿈꿔왔던 것이 여기에서 언어가 되었다. 이제 예수는 자신의 말을 통해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땅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 (르낭, 442-3)

갈릴리 예수님의 꿈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펼쳐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선물 받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눔으로써 이 땅과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 “예수는 이 도취시키는 듯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라고 묘사한다. 예수님이 걷고 걸었던 그곳 “주변은 아늑하고 아름다워 세계 어디를 가도 여기만큼 절대적 행복을 꿈꾸기에 알맞은 곳은 없다.”라고 일러준다. 르낭의 묘사를 상상해보라. 르낭은 “웃음을 머금은 듯하면서도 웅대한 이 자연이 예수가 배운 것 전부였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꿈꾸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염려와 근심 많은 인생들에게 꽃과 새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라고 초대한다.

## 11. 예수님이 창조세계를 바라보는 눈빛

예수님이 창조세계와 맺는 방법은 그의 눈빛에 잘 드러난다. 주님의 눈빛을 떠 올려보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의 꽃과 새와 꽃을 바라보는 눈빛은 매우 의미 있다. 공중의 새를 보라(엠브레포, to look, to consider, gaze, with special interest, love, concern)와 들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카타만타노, to learn thoroughly)는 철저하게 배우라는 뜻이다. 근심과 염려가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새와 들을 꽃을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보라”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창조세계는 예수에게 관상적 바라봄(contemplative gaze, 잔손의 용어)의 주체로 그는 새와 꽃들을 “오랫동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버

거하르트가 관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예수님을 꽃을 단순히 바라보지 않고, 관상하고 계신다. 관상의 눈을 가진 이에게 백합화는 단순한 꽃을 넘어 하나님의 경이로움, 은총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관상의 눈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돌봄을 드러내는 새와 꽃을 바라보라 한다.

## 12. 예수님의 창조세계 - 하나님 사랑, 자비, 공화를 가르치는 선생님

예수님은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어울릴 줄 아는 위대한 시인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연에 의해 움직였고 사로잡혔다. 그분은 창조와 피조물,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하늘의 새와 들에 핀 백합꽃을 보게 한다. 새와 백합화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설교하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라. 예수님이 바라본 천지만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가득한 세상이다. 예수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가득했다. 그가 들려준 하나님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헤아리는 분이며 공중의 새와 들꽃, 참새 한 마리까지 공화와 자비로 돌보는 분이시다(참고 마 6:28, 10:29, 눅 12:6, 12:27).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의 꽃 그리고 그 언덕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모두 한 눈으로 들어온다. 그곳에 존재하는 모두는 거룩한 주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새와 꽃과 호수와 산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동료들이다. 함께 주님 앞에 있으며, 공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는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정복하라 요구하지 않는 분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자연에서 가져오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교하실 때도 씨앗, 겨자씨, 가라지 등 농부의 일상과 들녘에서 그 비유를 가져왔다. 그분은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 소명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24)”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는 자신의 소명을 자연의 언어를 통해 청중들에게 전달하셨다.

## 13.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자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 산, 들녘, 광야로 물러가셔서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사렛과 갈릴리를 걸었던 예수의 교실은 자연이었으며, 교과서는 창조세계였다. 갈릴리를 걸었던 예수는 자연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인간 중심적이지도 않았다. 그분은 시냇물, 들판, 태양, 바람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동식물과 친교를 누리며, 나사렛을 걸었던 예수였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분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이다(참고 생태주의자 예수).

### III. 결단과 헌신

#### 14. 생태위기 시대의 제자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본회퍼)이다. 본회퍼의 “나하플게(nachfolge)는 누구의 뒤를 잇다, 모방하다, 닮은 것”을 말한다. 제자는 스승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모든 삶 전체를 걸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말씀하신다. 내 삶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가 제자이다. 생태위기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결단해야 하는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동영상을 보며, 우리 각자 개인은,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지 생각하여 보자.

〈동영상 - 기환연 회색에서 녹색으로〉

#### 15. 예수님에게 창조세계와 맺는 친밀한 관계를 배우고 실천하자

동영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창조세계, 신음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 모두 예수님에서 시작하자.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누렸던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기를 기도하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을 따라 걷자. 그분이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는 창조세계를 창조주의 빛 안에서 바라보았고, 창조세계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으며, 창조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주교재로 사용하였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생태 운동가나 생태 사상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시인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읽는 순수한 영혼의 지혜자이다. 그는 광야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드러낸 예언자요 신비가였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길이며, 스승으로 생태위기를 넘어 새로운 생명의 시대로 이끌 참된 주님이시다. 참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온 창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이끌어 간다. 나는 기도 중에 창조세계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경험을 하였다. 러시아 〈이름 없는 순례자〉에 나오는 한 구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변화되었고 나는 그들을 새롭고 기쁜 방법으로 보았다. 나무, 풀, 지구, 공기, 빛,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은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며,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름 없는 순례자)

#### 16. 맺음말

성도 여러분, 생태위기 시대의 희망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창조세계와 친밀한 영적 관계를 형성할 때, 생태위기는 극복되고 우리는 모든 창조세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이며, 우리

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괴된 창조세계를 돌보는 생태적 제자로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걷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걷는 분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생태위기 앞에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 사람, 세상 살림의 일꾼

김의신 / 광주다일교회

창세기 2장 4~8절

### 들어가는 이야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사는 유동중(84) 할아버지와 강연순(83) 할머니 두 분만 사는 집에 귀한 손님이 들었습니다. 집 뜰에 있는 열린 우편함 속에 작은 새가 등지를 틀고 작고 예쁜 알 여섯 개를 낳은 것입니다.

연약하고 위태롭게 보이는 그 알을 위해 노 부부는 우편 배달원에게 우편물을 다른 곳에 놓아 달라 부탁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부탁도 해 놓습니다.

그분들 곁에 살면서 이 이야기를 쓴 시인 박남준은 이 나이 드신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작은 새도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작고 여린 동식물을 본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은 그 만물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다고 성경 첫머리에 선언합니다.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지 만물은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성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늘 자연을 둘러보고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였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고, 들의 핀 백합화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잘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은 꽃 하나에 위로받고, 둥그런 나무에 기대어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풀 위에 누워 주님의 은총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눈여겨보면 하나님 지으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참 소중한데...

도시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감수성이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불감증입니다.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일상의 예민함으로 연결되고 -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놀람과 감사가 없이 -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처럼 - 무덤덤한 마음으로는 -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힘겹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등나무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과 계단을 오르며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를 차마 앞지를 수 없어 조심스럽게 뒤를 따르는 배려와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용히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 13세기 신비주의 기독교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의 말을 소개하면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된 날,

나는 하늘을 보아도 눈물이 났고, 꽃을 보아도 눈물이 납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눈물이 났고, 물소리를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책을 보면서도 울었고, 걸으면서도 울었고 일하면서 울고 혼자 있을 때도 마냥 울었습니다. 주체 할 수 없는 눈물을 통해 나는 물이 되어 내 굳어진 몸을 빠져나가고 주님의 손길로 또 다른 내가 창조됩니다.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거칠고 악착같이 변해 버린 내가 주님의 따뜻한 숨결로 하나님이 지으신 첫 모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 놓고 산책 한번 할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 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 여름의 푸르름은 얼마나 짙었는지

- 그렇게 많은 빗줄기를 버텨낸 가을 들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 채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의 마음은 방 안에 갇혀 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이야기 중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온 창조의 이야기는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노련한 화가가 여유롭게 작품을 완성해가듯이 매우 섬세한 손길로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만 창조주 하나님을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처음 세상을 지어 가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시고, 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치시고 쉬시고...” 반복해가면서 창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만든 완성된 작품에 이 작품은 내가 만든 것이다, 확인하고 인장을 찍듯이 ‘좋다’ ‘좋다’ ‘심히 좋다’를 여덟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지어진 순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읽은 2장에서는 창조의 의미와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강조이기도 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조 후 하나님께서 세상 살림의 일꾼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6절 말씀은 사람이 생기기 이전의 세계를 좀 더 잘 보여줍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을 읽기 전에 접속사 하나를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길로 땅의 흙을 모아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표현이죠.

마치 하나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와 같아 보입니다.

앞에 있는 1장 11, 12절을 보면 땅의 흙이 어머니가 되어 만든 또 다른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을 어머니로 하여 나무와 꽃과 풀들이 태어납니다.

어쩌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 또한 땅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생명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보면 땅을 어머니로 삼아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우리 사람들과 동물 식물 들은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서로 돕고 지내야 하는 연결된 존재임이 당연함



니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안개만 자욱한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손수 그분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잘 돌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맡겨 주신 일은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 그대로 / 초목을 무성하게 하여 세상을 푸르게 하고, 안개 자욱한 세상이 함께 어울려 뛰고 놀며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일, 그와 같은 생명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숨결까지 불어넣어 주시면서...

### 생명 가득한 행복한 동산.

그 일을 위해 10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죄송하고 무안하게도...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황폐하고 안개만 가득한 세상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을 때 만도 못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더 푸르고 아름답고 생명을 살림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를 바라셨는데, 인간 자기만 잘살자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함으로 더욱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일일이 그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인간의 건강을 지구의 건강과 분리할 수 있을까요?”

### “이 땅이 황폐한데 인간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세 먼지 자욱하고,  
지구 온도는 매해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은 보이게 녹아가고 있고,  
동물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야생동물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고,  
새와 벌은 샅을 나무와 꽃을 찾지 못하고,  
깊은 바다 생물까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더이상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절박함과 황폐함 속에 우리 인간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꺼지지 않고 몇달이 타오르는 불길이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나치게 많아진 태풍과 줄기차게 내리는 폭우로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구멍 난 오존층으로 생기는 피부질환을 햇빛차단제와 피부 연고로 막을 수 없고 뜨거워지는 지구를 냉방기로 식히는 일도 이제는 그 한계에 달했고, 이제는 겸허하게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더 늦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을 때 코로나가 주는 ‘잠시 멈춤’의 지혜로 하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피조물로 형제 자매가 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 행복을 누리야 할 때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일갈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저주하리라  
농부와 토종 종자와 우애의 공동체를 다 망치고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을 이토록 고갈시키고  
막대한 빚더미만 떠넘긴 어른들을

더 이상 남겨둔 미래도 없이  
삭막한 도시와 번쩍이는 기계 더미와  
역습하는 기후와 복수하는 대지만을 남겨준  
어른들을 증오하며 공격하리라”  
(박노해, 그날이 오면)

영어로 **재난**이라는 단어 **Disaster**는 분리를 뜻하는 디스와 별을 뜻하는 에스터의 합성어입니다.

‘재난은 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즉 창조 세계가 과편화되고 하나님이 서로 함께 연결해서 지어 살게 하신 피조세계가 각각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더욱 풍요로워져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무지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참 죄송할 뿐입니다.

###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피조물로, 땅을 어머니로 둔 형제 자매와 같은 관계를 갖고 창조 후 첫 명령이요 부탁인 창조 세계와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우리가 재생 용지를 써서 주보를 만들고,
- 초록장터를 통해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 교회와 생명망을 짜고,
- 검소한 식탁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을 하고

- 일회용 대신 가능한 다회용 물품을 쓰고,  
- 가을에 마을 주민과 함께 아나바다 바자를 하는 것도 모두 분리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고자 하는 애씀입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해볼 계획입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교회 안에는 북카페 한쪽에 **리필 스테이션**과 같은 작은 매장을 두고 한번 쓰고 버리는 양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지키는 일을 더 해볼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에서 시도한 일입니다.

교인들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선교를 다녀왔답니다.

선교하는 가운데 느낀 것 하나 - 나이지리아의 어려운 이들이 영양결핍으로 힘들어하는데 자신의 교회 많은 교인들이 비만, 과체중으로 있음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플랜을 시도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이 제사 후에 나오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함으로 더욱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낸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첫해 1년 동안 물론 교인 수가 많기도 했지만 모두 합쳐서 11만 킬로그램의 체중을 감량합니다. - 감량한 킬로그램을 선교비로 환산해서 나이지리아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작게는 바른 생활과 바른 먹거리를 통한 건강한 삶의 회복이지만,

더 크게는 이 세상의 가난과 가난한 국가와의 연대와 격려, 그리고 신앙인으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 방향-

임종한 /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인하의대 교수

#### 1. 코로나 19 이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진 19세기 말 그 당시도 조선에선 콜레라라고 하는 감염성 질환이 유행했었다. 콜레라로 인한 급성 장염과 탈수로 죽어갈 때 그 고통이 엄청나서 그 당시엔 콜레라를 호열자라고 불렀다. 호랑이에 살점이 찢겨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질환이라는 뜻이다. 이 당시 선교사는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물과 음식을 끓여 먹고, 손을 깨끗이 씻도록 위생 수칙을 배포하고, 가족까지 버린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기독교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소외되고 사회에서 버려진 이들을 돌보는 섬김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어떠한가?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이 송두리째 위협을 받을 때 일부 교회가 교회에서의 예배를 고집하면서, 교회에서 대한 대사회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을 했다.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는 충정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나,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신천지교단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다.

코로나 19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기독교 선교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온 특별히 보건의료와 돌봄 분야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 2. 향후 보건의료 돌봄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

첫째, 사회적인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높아, 노인가구에서 건강 불평등 구조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5세이상 노인들의 의료비도 건강보험 지출의 40%를 넘어 가파르게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오히려 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여러 요구를 있지만, 정작 자기가 살아오던 지역에서 이들 의료와 여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긴 어렵다. 기존의 여러 서비스는 대개 분절되어있고, 연계 혹은 통합되어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를 받아보려 해도 전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 가족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니,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인 까닭에 부모가 아프더라도, 집에서 병 수발을 들긴 쉽지 않다. 가난한 가족들은, 특히나 빈곤 노인가구는 의료정보에 더 접근하지 못하고, 평소에 건강관리가 되지 않은 채, 천식, 당뇨 등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에서 혹은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요양병원에서 건강이 취약한 고령층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까닭에, 이번 코로나 19와같은 글로벌 유행병으로 요양병원 고령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의 피해가 또한 컸다. 상당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아팠을 때도 실수가 없다. 아팠을 때 실수 있고 아팠을 때 기본 소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인 실상이다. 청도 대남병원 103명의 입원자 중 확진자가 101명으로 발병률이 무려 98%이다. 이중 사망자가 7명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오랫동안의 감금을 통해 황폐화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점차 신체 기능을 잃게 돼 활력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신병원인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 대응의 방향을 탈수용화로 분명히 정하고, 지역에서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반인권적인 요소를 지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둘째, 교회는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의 위기 앞에서 교회는 아주 무기력했다. 사회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려 모일 수도 없었다. 예배공동체와 시민공동체가 분리되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정하지 못했다.

사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원론적이거나 구체성이 없어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교회는 세계에서 규모가 큰 교회가 준비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철저히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일상에서의 예배와 경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철저히 무기력할 뿐이다.

개인들은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될 것인가? 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두셋이 모이더라도 사회적

인 약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협력과 공존하는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배제와 소외가 없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수많은 시도와 헌신을 해온 것이 기독교 사회운동의 큰 흐름임에 비하여, 90년 이후 정치적인 민주화 이후, 사회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서 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방향을 잃었고, 교회 세습, 지역사회 헌신과 기여의 약화 속에 한국교회는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고령화와 빈곤노인가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할까?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정의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빈곤이 가져오는 끔찍한 현실앞에 존엄한 삶에 대한 절실한 요구 속에 나온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다. 이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불평등을 완화시켜주고 감염병의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했던 유럽의 선진국가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커뮤니티 케어(통합돌봄)에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의 수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조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들 돌봄 수요에 맞추어 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발굴하고, 서비스의 질과 역량 강화를 적극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회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사회적 약자의 건강 돌봄에 나서야 한다. 교회가 디아코니아 사역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도 지역 돌봄의 좋은 방안이다.

셋째, 한국 사회와 교회는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을 가야 해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증상이 가볍고 전파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위생 수칙(손 씻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줄이기)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 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환자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다행히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차분히 대처해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은 코로나 19 감염증 극복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 그 혼란 사재기 한번 없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봉쇄를 하지 않고서도 시민들의 자발성과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 이를 해낼 수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유대가 우리 사회가 가진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성숙한 시민들이 각 사회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사회 구조를 개혁시켜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로 내리고, 지방정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로 보건의료조직이 공공성을 높일수 있고, 민주적인 가치를 지니게 한다.

넷째, 사회구성원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공적인 의료보험체계를 더욱 공공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위기 상황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던 것도 그 예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인구당 병상 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대응에 큰 힘이 되었다는 식의 분석 기사를 내 보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감염병 대처에 실지 역할을 한 의료시설은 공공의료 부문이었는데, 권역별로 공공의료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도 아직 많다.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전국민의료보험도 이번 코로나 19에 진가를 발휘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현재 (6월 13일 기준) 확진 환자만 10,418명이 발생한 대구에 국가 지정 음압병상이 10개에 불과하다. 국가 지정 격리병실이 경상남도 전체에 4개, 경상북도에 3개, 전라남도에 4개뿐이다. 음압병실 설치비용은 국가 지정 병상의 경우 3억 원이고 유지비용도 높아 평소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압병실은 민간에선 유지하기 어렵고, 공공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실태는 어떤가? 병원마다 대개 10개 미만 소수의 음압 병상을 가지고 전국의 환자를 분산 수용해 치료해오고 있다. 당연히 감염병 환자들과 일반 환자 치료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지정 음압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격리치료실만 있지, 종합적 감염관리에 적합한 시설은 아니다.

공공기반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 유럽과 일본 등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적자가 나더라도 전문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나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은 10.4%에 불과해 OECD 꼴찌로 민간의료의 의존도가 아주 심하다. 의료의 시장지향성이 가장 두드러진 미국조차도 공공병원 병상이 25.8% 수준이다. 특히 응급의료, 감염의료의 경우 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민간에서 해당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긴 어렵다. OECD 국가에서 공공병원의 비율이 평균 73%이다. 이 수준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20

~30% 정도로는 공공의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재활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은 제도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 질병의 발병 원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또 조기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건강관리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차 의료에서, 일정한 의료진에게 계속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통해 환자에 관한 각종 진료 정보가 체계적으로 누적되고 이어져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 의료기관을 자주 바꾸고, 명의를 찾아다니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수시로 생겼다가는 없어져 버리는 의료기관들, 이와 함께 사라지는 진료기록들, 동일 질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처음부터 문진과 각종 검사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나라 동네 의원 시스템의 조건에서 의료의 ‘지속성’ 개념을 떠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에게 요구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등의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지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자 개인이 방임적 상황에서 스스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차 의료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소위 동네 의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관계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고, 환자의뢰체계의 부재로 인한 병원 의료이용에서의 혼선과 낭비, 의료전달체계의 미숙한 발달로 인한 의료기관의 중벌을 뛰어넘는 무차별적 경쟁 등으로 낭비 조장적인, 비효율적 의료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들은 잘 갖추어지고 제도화된 일차 의료 시스템, 즉, 주치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전문의 중심의 현행 우리나라 동네 의원 체계보다 더 효율적이다. 동시에 국민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야 일차 의료의 정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공고히 확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은 양질의 포괄적인 일차 의료의 작동하지 않고, 전문과목 중심의 분절화된 일차진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차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제공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일차 의료의 재구성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의를 두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원 의사들이 주치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이승무 /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응지농정소”라는 국왕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농사가 수고로운 이유는 구역은 넓은데 힘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농리를 알지 못한 자는 항상 ‘사람은 많은데 땅이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은 구역은 넓은데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백성이 땅이 적은 것을 병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정자(程子)가 정전(井田)에 대하여 논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내는 데는 항상 서로 알맞게 한다.” 하였으니, 어찌 사람은 많고 땅은 적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점령한 구역이 넓지 않아서 힘을 다하게 된다면, 자연히 땅이 적다는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農所以勞, 區闊而力誦也。不察農利者, 每云人多地少, 臣則曰: “區闊而力誦, 故民病地少也。” 昔程子論井田曰: “天地生物, 常相稱。” 豈有多地少之理? 大抵占區不闊, 而用力得盡, 則自無地少之患矣。)

다산 선생이 조정 관료로 있던 1700년대 말은 기후의 변화가 극심하고 흉작이 거듭되어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인구마저 줄어들던 가혹한 시기였다. 당시의 임금 정조는 농업생산을 진흥시킬 정책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컸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관료들에게 지시하여 그 결과로 다산이 제출한 보고서가 “응지농정소”였다. 위의 구절을 읽어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아서 늘 식량난에 시달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늘 좁은 땅과 많은 인구, 부족한 자원이란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온 우리에게서 매우 익숙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조건을 설명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런 설명은 오늘날의 생태주의자들에게도 이어진다. 땅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반도 안에서도 그렇고, 지구 전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땅의 생태적 수용용량(bio-capacity)에 비한 인간경제의 소비량 부하를 늘 비교하고 있으며, 그 함의는 결국 땅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코로나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지구에 짐이 되는 존재이니 인간들이 없어져야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농담 비슷하게 꺼낸다.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정색하여 말하는 것도 생태적 토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다. “천지가 만물을 내는 데는 항상 서로 알맞게 한다”는 정자(程子)의 가정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심각한 문제는 땅이 너무 좁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 것이다. 양반계층 사람들은 과거 시험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일을 안 하고, 다수의 농민들은 농지소유의 무질서로 인해 경작할 농토를 얻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금 상황과 연관되는 면이 없지 않다.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교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 졸업을 몇 년씩 늦추고, 졸업한 후에도 상당 시간을 취업 경쟁을 위한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농업이나 제조업 등 어떤 사업체이든 창업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안쓰럽게 보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 웬만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TV에 나오는 성공한 가수, 연기자, 개그맨, 모델 같은 직업만 비현실적으로 선망하고 학교에서 배운 과학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일을 하려는 의욕은 상실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 같은 선망하는 일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이들은 아르바이트 이외에 사회에 아무런 유익한 재능을 발휘하는 일도 안 하고, 희망도 없이 단지 충실한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인공지능과 스마트 디지털 문명, 플랫폼 같은 것들로 생산에서 사람이 별로 필요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좌절한 젊은이들의 입지를 더 옹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배경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얼치기 전문가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기업경영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산 활동이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은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처해 가면서 순간순간 판단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어서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의 본질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고 망치질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쓸 것과 못 쓸 것을 분리하고 잘못된 것을 골라내고 대처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의 분야가 사람의 일의 핵심적인 분야이고, 언제나 사람은 모자란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이변 추세에서 농업, 공업, 무역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현장에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직 전체를 위해서 대처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나라에서도 생태계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할 실무와 정책 분야는 넘쳐난다. 모두가 제대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분야다.

그런데 지금의 이상한 경제학에서는 사람은 더 이상 유익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생산한 물건을 소비하는 기계쯤으로 취급하는 듯하다. 이러한 경제적 사고로는 점점 더 커져 가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애덤 스미스가 《여러 민족들의 부의 성격과 원인에 관한 연구》라는 작품을 써서 경제학이란 학문을 창시하던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부가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무역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서 나온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도 당연시되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나라의 부가 노동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주된 경제 학설로 내세웠다. 그 후에 이는 고전적인 학설로 인정받아 리카도, 마르크스, 밀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노동가치설로 발전했는데, 19세기 후반에 수학적 표현을 좋아하는 신고전 경제학이 나오면서 효용가치론이 우세하게 되어 더 이상 노동가치설을 신봉하는 사람은 어느 학파에서도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다산 선생은 물적 자원의 기반인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국 당시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된다는 논리로 당시의 고정관념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 노동가치론은 가치라는 것이 노동에서만 나온다는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학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제문제의 핵심에 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궁극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한 경제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산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생태계 이변현상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두뇌는 정부 관료나 대학교수나 대기업의 경영진이나 은행의 전문가 엘리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가 없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로 녹색경제를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것으로 생태계의 이변과 기후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가당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서 대중들을 이끌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생태계의 모든 종들은 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해서 생태계 안에서 자리를 지키며 겨우 생존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그대로 놀리고 지원금이나 주어 가면서 소비자로 살아가게 하는데, 인간 종이 생태계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자연의 원리상 맞지 않을 것이다.

생태계 이변현상이든 기후변화이든 만인의 지혜와 역할로만 극복이 되고, 생태계 내의 인간 종의 생존도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는 생각을 “천지가 만물을 내는 데는 항상 서로 알맞게 한다.”라는 명제에서 은연중 읽게 된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역할과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군대식, 독재적인 기업과 산업 문화에서는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진화해 온 민주주의적 방식에서 겨우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 시대에 시급한 것은 디지털 기술로 국가의 녹색 경쟁력을 높인다는 허구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능력 발휘를 하게 만들어 줄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산업의 운영 논리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와 그 안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쇠퇴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인간과 토지, 원재료, 에너지 등의 생산 요소들의 조합을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에서도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 집단의 교육 수준과 건강, 정신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전경제학의 애덤 스미스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경제학 체계에서 모두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인이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 간에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켜 왔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관점을 떠나서 보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의 불확실한 변동의 가능성 앞에서 이에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은 외부에서 도입되는 기술이나 자금이 아니라 역시 인구집단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을 지혜나 지식, 창조적 능력에서 소외되어 피동적이고 지시받은 대로 행하는 단순 작업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는 노동을 최대한 절약해야 할 비능률적인 생산요소로 취급하는 금융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진 결과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논리에 따

른다면 불확실한 자연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유일한 길은 첨단 기술을 국내의 역량으로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도입하여 자본투자를 통해 돌파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적응 방식은 지구환경을 더 악화시키며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노동자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집단적인 힘으로 기후변화의 진행에 적응해 가야 하는데, 이는 생태환경의 건강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같이 중시하는 산업 운영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자들의 의사결정상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하고, 건강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식과 문화가 노동 문화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엘리트나 자본가들이 아니라 다수 인구집단의 의사에 의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에 따른 엘리트주의적 산업 운영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협동조합 등의 대안적 기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가 생태계의 온전성(integrity)을 저해하는 형태였다면, 순환 경제에 따른 물질 흐름에서는 지역의 에너지원과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토지이용 형태가 크게 달라져야 하고,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토지가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토지 사유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각 단위지역별로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순환 경제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의 기존 교육 형태를 절반 정도는 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의식주 문화와 공예, 기술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녹색전환은 지금의 자본 중심 체제에서는 시도하기가 물론 어렵다. 예컨대 이에 필요한 토지 부동산 개혁 자체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상당한 정도의 지방분권이 가능해야 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한 토지 공개념, 경제학 지식 및 교육 내용의 전면적인 재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 체계의 수립, 국가의 산업정책,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의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환경 대변동의 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중심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지식생산과 기술적 응용 체제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노동하는 인구 저변의 지식과 의식 수준, 그리고 창조적 역량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이 모여야 한다.

노동정책과 교육정책, 보건복지정책, 사람들의 먹을거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농림수산물 정책, 깨끗한 물과 공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정책, 건강하고 충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는 주택정책, 에너지 공급정책 등이 인적 자원의 건강과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와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과제다. 민주주의는 최대 다수의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정치이므로 인구 전체의 고른 발전과 복지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대처하는 데서 더욱 더 절실하다.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마을목회 사역

이도영 / 더블어숲동산교회 목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부재”라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더욱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가톨릭은 발 빠르게 전쟁 중에도 멈춘 적 없던 미사를 멈추는 결정을 하고 전체 성당이 미사를 멈추었다. 하지만 개신교는 개 교회들이 각자 소견 옳은 대로 행했다. 또한 공적 성격을 가진 공간이나 단체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려움을 감내할 때 그것을 ‘종교탄압’이라며 거부하고 대면 예배나 대면 집회를 강행하여 전염병 대유행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공적 종교로서의 마인드 자체가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더욱 하락하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는 동안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했음을 알 수 있다. 신뢰도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개신교인은 70%, 비개신교인은 9%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비개신교인이 10%도 안 되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바는 뭘까? 공공성 회복이다. “향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1위는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이다. 개신교인은 39%가 비개신교인은 49%가 이렇게 답했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역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마을 목회’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였다.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을 목회를 하여야 하는가? 뽀족한 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왜 마을 목회를 하려 했는지 그 근본을 다시 붙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분별하고 세상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책에서 이미 말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문명사적 전환’을 도모하라는 도전을 던지고 있기에 생태·정의·평화라는 본질적인 가치 위에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사역을 하면 된다. 코로나19 이전의 ‘마을 목회’는 『뺨어 처치』, 『성자와 혁명가』에 충분히 기록해놓았으니 여기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마을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역을 했다. 먼저 어려운 교회나 이웃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부활절 절기 현금을 나눔 현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교인들에게 공고를 하고 부활절 현금을 했다. 감사하게도 온라인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 교인들이 마음을 내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현금하셨고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단체들을 섬길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스크 대란이 터지고 정부에서 먼 마스크도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열기로 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마스크 나눔 프로젝트>는 두 달 동안 약 100여 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귀한 여정이었다. 2,680,630의 후원금이 모아졌고 11곳의 기부처에 5차례에 걸쳐 1,600여 장의 마스크와 함께 150상자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주신 마스크는 물론이거니와 기부해 주신 물품들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나눔이었다.

대구에 있는 장애인 교회뿐 아니라 밀양 시각장애인협회를 섬길 기회가 생겼고, 이것이 인천과 이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화성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섬긴 일이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들이 이곳 화성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발안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생필품과 마스크를 전달해 드렸는데 사진을 찍어 보내주신 일이다. 신분 노출을 꺼릴 것이 당연하였기에 사진은 민감한 일이니 괜찮다 말씀드렸는데도 일부러 얼굴은 나오지 않게 찍고 그중 고른 사진이라 하신다. 여러 사람이 마음 모아 보내주신 것이니 누가 받았는지는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 더군다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다며 외국인노동자분이 다문화센터 대표와 발안만세도서관장과 함께 직접 교회까지 와서 인사를 나눈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이처럼 마을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소외된 이웃들을 눈여겨보라. 그럼 사역이 보일 것이다.

둘째, 돌봄 사역을 하였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사회가 무한경쟁 사회일 뿐 돌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초창기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였던 대구의 한 요양원 모습을 통해 우리는 떠넘기기식 돌봄, 시설입소식 복지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목도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돌봄 대란이 일어났다. 전업주부도 ‘돌밥(돌아서면 밥)’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아이들과 밀도 있는 생활을 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 ‘코로나 블루’에 걸릴 지경이고, 일하는 여성은 ‘돌봄자-노동자-연결자’라는 다중의 역할을 하느라 탈진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요양, 돌봄, 급식, 청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40~60대 중년 여성의 해고가 50~60 퍼센트 급증하고 고용감소율이 남성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등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졌다. 아이들은 집에 방치되기 일쑤였고 혼자 편의점에 가서 컵밥을 사 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때에 교회야말로 집도 아닌, 학교도 아닌, 마을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공간이 되어주

어야 한다. 모두가 경제의 회복을 말할 때 교회는 생태계의 회복과 돌봄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생명과 생태계를 ‘돌보는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보여주어야 하고,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가능한 한 완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는 지역사회 돌봄’, 즉 마을 안에서 안전한 제3의 공간을 열어 공동체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모델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돌봄 마을돌봄 집밥학교”를 하였다. 페어라이프 센터 공간에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밥을 함께 먹는 프로그램이다. 집밥학교는 방학마다 해왔던 것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기 중에 진행했고, 방역지침을 지키느라 소수로 제한하여 진행했으며, 매일 하던 걸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줄여 진행했다. 방역단계가 올라갈 때는 센터 공간에 모이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되어 ‘집밥학교 호스트’를 모집하여 진행했다. 집밥학교 호스트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다. 또한 교회 청년 중 한 명은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돌봄을 부탁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동네 언니가 되어 두세 명의 아이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네 언니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이들과 안전하고 친밀한 멘토링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다. 생태와 생명을 돌보는 노동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것이다.

작년 가을에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화성시가 주최하는 ‘돌봄 정책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부미경 은평상상 이사장, 김정한 노원구청 아동친화정책팀장, 유은희 마을공동체 마션 테이블 대표 등의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집밥학교와 멘토링 사역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 2부 토론 시간의 발제자인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1부 발표들을 들은 것 중 페어라이프 센터 사례를 아주 좋은 사례로 언급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복지의 페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레디컬 헬프』다. 이 책의 저자 ‘힐러리 코텀’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한 전후 영국 사회를 구제한 프로그램이나 복지에 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의 영역을 민간에 맡긴 신자유주의식 해법 모두 문제라고 말한다. 국가가 책임지든 민간이 책임지든 거기에 ‘관계’와 ‘역량’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동체라는 관계의 힘을 통해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레디컬 헬프는 한 마디로 국가나 민간사업체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시스템이다. 지역공동체가 섬기지만 그곳에서는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다. 국가든 사업체든 돕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던 것을 역전시켜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권력을 넘겼다. 그들에게 책임성과 주도권을 넘겨주자 ‘영구동토층’ 사람들조차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를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어디일까? 교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 교회는 바로 이 사역을 해야 한다.

셋째, 생태적 실천을 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파괴한 결과 동물들이 사는 야생과 인간들이 사는 마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인수공통 질병(zoonotic diseases)이다. 한마디로 코로나19 팬데믹은 환경파괴와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코로나19가 던지는 최고의 화두는 ‘생태’

다. 생태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명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 멸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온다. 성경에서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다. 노아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노아나 그의 가족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만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노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의 구원이다. 재창조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이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16:15을 바로 해석해야 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만민으로 번역한 단어는 영어로 “all creation”(모든 창조물)이다. 주님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럴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그 기쁜 소식은 만민뿐만이 아닌 만물에게 선포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바울은 골로새서 1:23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도 천하 만민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every creature’(모든 피조물)이다. 복음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 성취되었고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다. 그러니 교회는 ‘생태 회복’이라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이면 “경건한 40일 탄소금식”을 실천하고 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제공하는 ‘40일 계획표’와 매일 실천사항이 담겨있는 ‘카드뉴스’를 활용한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올리는 카드뉴스를 보고 각자 실천한 것을 사진 찍어 ‘인증 샷’을 교회 밴드에 올려 공유한다. 매우 창의적인 실천들과 그날의 실천사항과 관련된 정보가 올라오곤 한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때에 각자 실천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식을 공유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할 만한 실천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2020년 여름 10주년 기념 예배를 하면서 특별헌금을 했다. 특별헌금 중 일부는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에게 사용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헌금의 사용처는 ‘공유 냉장고’였다. 우리는 특별헌금으로 구입한 공유 냉장고를 10층 로비에 설치하였다. 누구나 음식을 가져다 넣고 누구나 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 음식을 넣은 사람은 이름을 기입하고 가져간 사람은 품목만 기입한다. 이를 통해 매우 다양한 나눔이 이루어졌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많아지고 있다. 그곳에 ‘공유 찬장’을 함께 설치하였다. 상은 보관 식료품이나 생필품 혹은 다양한 용기와 그릇을 공유한다. ‘공유 쌀독’을 사용할 때는 용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비치된 면주머니 혹은 소분 용기를 사용 후 다음 방문 시 가져오면 된다. ‘그릇 도서관’은 큰맘 먹고 마련했지만 일 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한 티팟과 테이블 웨어, 혼수로 가져 온 귀한 그릇, 쓰지는 않지만 버리지도 못하던 소중한 추억을 이웃과 공유하며 삶을 연결하고 확장하도록 한다. ‘텀블러도서관’은 개인 텀블러를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용 텀블러는 일회용기 대신 대여해준다. 카페 맑은샘은



‘무포장 가게’ 1차 라인업에 동참하며 제로 웨이스트 카페로 나아가고 있고, 너무 작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병뚜껑과 병목 고리를 가져오면 함께 모아 서울환경연합의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내 재활용하도록 한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교회 청년이 사장으로 있는 동네 책방인 ‘모모책방’과 페어라이프 센터가 콜라보하여 “지구를 생각하는 한걸음”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4월 22일(지구의 날)에서 6월 5일(환경의 날)까지 45일간 진행되는 “지구를 생각하는 한걸음”은 외부의 자금을 지원받지도 않고 그저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단체와 개인이 실천하는 생태적 실천 프로그램이다. 카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광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참여하였다. 우리 교회는 종이 주보를 완전히 없애고 카드뉴스 형식 주보만을 사용하였고 어린이부는 어린이달 선물을 제로웨이스트 제품과 유기농 & 공정무역 간식 선물꾸러미로 준비하였다. 모모책방과 페어라이프 센터는 ‘제로웨이스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였고, 동네청년들과 주부들이 그리고 조그마한 단체들이 다양한 실천으로 여기에 참여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 소식을 듣고 아리랑TV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셔서 “지구를 생각하는 한걸음! 우리 동네 기후변화실험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기도 했으며, 2차 모집에는 ‘화성환경운동연합’, ‘한살림 환경위원회 화성’, ‘그랑드발전소’, ‘소다미술관’ 등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메인 단체들이 행사를 하면 시민들은 참여하던 형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된 운동에 메인 단체들이 참여한 형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간단하게 말하자면, 온라인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온라인 성도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놀랍게도 최근 온라인 교인 두 명이 등록했고 그때 마침 시작된 “감사노트 100일 챌린지”에 참여하며 매일 감사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 깊이 있는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 교회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기독교신문에 기고된 환경원고 [1~10]

송준인 / 청량교회 목사

### [1]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31)

#### (1) 들어가는 말

환경과 관련된 날로는 3월 22일 물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등이 있다.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므로 대개는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 혹은 생태주일로 정해 지키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무관심한 교회들이 많다. 따라서 생태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필자는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생태신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출석하는 교회에서 생태주일, 혹은 환경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에 생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 (2) 생태계의 위기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과 공기를 마음 놓고 마실 수 없고, 우리가 버린 폐기물이 부메랑이 되어 독성 물질로 우리 몸에 축적되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경계로 그어 놓으신 동물의 영역에 인간이 무단 침입하여 동물의 몸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으로 장소를 옮겨 온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인간이 청정 에너지라고 쾌재를 부르며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개발하고 유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자연재해를 입거나 노후 되어 방사능이 누출되는 바람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호수에 번식하는 모기를 죽이려고 뿌린 DDT가 먹이 사슬을 타고 호수 인근에 살던 병아리들을 폐죽음으로 몰아넣고 근처에 서식하던 새들도 폐죽음을 당하게 했다. 이 DDT를 남극이나 북극에 뿌린 일이 없음에도 먹이의 순환 법칙을 타고 온 지구로 확산되어 지금은 에스키모인들, 남극의 펭귄의 알에서도 DDT가 발견된다. 이 DDT는 칼슘의 대사를 방해하여 많은

새들이 껍질이 없는 알을 낳게 되었고, 알을 부화시키지 못해 멸종하고 있다. 전 지구상에 생물종이 3,000만 종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1년에 4~5만 종이 멸종하고 있다. 한때 일본에서는 미나마타병이 유행을 했는데 이 병은 비료공장의 폐수에 누출된 수은으로 인한 병이었다. 조금씩 흘러나가 태평양에서 완전히 희석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다로 나가 플랑크톤에 흡착되었고, 그 플랑크톤을 조개와 물고기가 먹었다. 그 조개와 물고기를 지속해서 섭취한 사람 안에 수은이 축적되어 팔이 없는 기형아가 태어나고, 미나마타병 같은 것이 생긴 것이다. 환경 호르몬은 화학물질의 범람으로 동물의 성호르몬을 교란시켜 생식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와 함께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여 결정적으로 생물종을 감소시키고 있다. 환경 호르몬의 폐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바다고둥의 수컷이 유기 주석에 오염되어 암컷으로 변하고, 미국에서는 악어의 알이 부화하지 않는 현상이 생겼고, 어느 호수의 거북이의 경우는 아예 수컷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인간의 경우에도 정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원인이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3)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과 문화명령

사실 생태계는 엄격한 질서와 균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땅 만 평(가로 180m×세로 180m)에 풀을 심으면 천만 포기가 난다고 한다. 거기에 소를 키우면 소 네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울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 더 많은 소를 키우다 보니 소가 풀을 너무 많이 뜯어 먹어서 풀밭이 사막이 되고 결국에는 소도 굶어 죽게 된다. 이처럼 자연환경은 그 조화와 질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키고 잘 가꾸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과 환경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혹자는 인간이 자연과 다르다는 우월함이 환경 파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가들은 하나님a인간a자연이라는 위계질서를 하나님a자연a인간, 또는 자연=하나님a인간과 같이 자연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이것은 생태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생각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a인간a자연이라는 위계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존재 목적이 단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등장한다. 문화명령이 무엇일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정복하다’라는 말과 ‘다스리다’라는 말이다. 먼저 ‘정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쉬’(kabash)로 파괴와 착취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문맥상 “땅에서 나는 식물을 음식으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다스리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radah)인데, 이는 “어떤 것

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권은 독재자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의 주 되심은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삼고 또 사랑과 관심으로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2장 15절과 조화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대신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관련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본뜻이 무엇인지 확연히 밝혀진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다.

#### (4) 우리의 사명

환경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머리를 화학제품인 샴푸로 감느냐 환경친화적인 식물성 비누로 감느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문제이며 오존층 파괴의 문제이기도 하다. 너무 작고 사소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너무 커서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엄청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도외시하거나, 방대한 문제라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가꾸고 돌볼 책임을 부여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나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원을 아껴야 한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비옥하던 땅들이었는데 지금은 황폐한 사막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땅의 단물만 빨아먹고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땅이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 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뿐이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이 땅과 인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를 회복하는 한걸음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무섭게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계11:18). (\*\*\*)

## [2] 불편한 진실(An Uncomfortable Truth)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로마서 8:21-22)

### (1) 들어가는 말

2019년 1월 북반구인 미국에서는 폭한이, 남반구인 호주에서는 폭염이 동시에 발생했고, 유럽도 그해 여름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건조지역이 늘어나면서 재작년 호주 남동부 지역과 작년 미국 서부지역에서와 같은 대규모 산불도 증가했다. 대형 태풍과 허리케인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다. 지난해 여름 지루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한반도 상륙, 2018년 여름의 기록적 폭염, 한반도 연안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최신 연구 결과 등 기후변화의 증거는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차고 넘친다.

기후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주제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다. 이 글에서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오늘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국제적 관심사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이 무관심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는 생명의 터전이다. 자연환경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창조질서가 깨어짐으로써 엄청난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 생태계가 멸망해 가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잘 보살피고 돌봄으로써 지구를 구원하는 일이다.

### (2) 지구 온난화란 무엇인가?

지구 온난화란 대기 중에 증가된 온실가스가 지구 표면의 열을 가두어 둠으로써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인 석유나 석탄을 뿜 때 생긴다.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일은 휘발유를 넣을 때, 도시가스로 난방을 할 때, 전기를 사용할 때 등이다.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처럼 대기권 안에 머물며 지구 전체를 덥게 만드는 것이 온난화 현상이다. 또한 육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식습관 때문에 세계적으로 축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2009년 월드워치 보고서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축산업(51%)이라는 통계가 있다. 수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UN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식용 가축들이 소화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 때문이다. 양식장의 생선들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동물들의 약 98%가 가축이고, 나머지는 야생동물이다. 그러므로 식용 가축들을 키우는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다. 대략 4월 10일쯤의 개나리 개화 시기가 3월 20일쯤으로 바뀌었고, 난류성 물고기가 동해에서 잡히고 있다. 그리고 80년 전에 비해 겨울이 한 달가량 짧아졌다.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열병에 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병에 걸렸을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듯 지구 역시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된다. 앞으로 기존 에너지 정책이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 태풍, 홍수와 가뭄, 쓰나미, 기근 등을 포함하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 질병의 만연, 멸종, 환경난민, 전쟁, 인류문명의 종언 등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초래될 것이다.

### (3) 지구 온난화의 결과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평균 섭씨 0.74도 올랐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겨우 0.74도의 지구 온도 상승이 지구 곳곳에 태풍과 홍수, 가뭄 등 각종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더라도 금세기 말에는 온도가 섭씨 1.8도 올라가며,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대량 사용할 경우 최대 6.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해수면이 최대 64cm까지 상승하게 된다. 제주도 연안의 해수면은 지난 43년간 22cm나 상승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 보면, 2100년 한반도는 서울시 면적의 4배가량이 바다에 잠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기온 상승은 1.5도로 세계 평균보다 2배 정도 높다. 기상청에 의하면 해마다 평균 기온이 0.5도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18조 2천억 원으로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높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한국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당사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휘발유 등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이다. 우리나라 사람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2,500kg 내지 3,000kg이라고 한다. 일 년간 3톤 트럭 한 대 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세계자원연구소는 1999년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사무실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4년 만에 100% 달성했다고 한다. 어떻게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무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퇴근할 때마다 컴퓨터와 모니터의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 종이 사용량을 10% 줄였더니 이산화탄소 4톤이 줄었다. 출장을 가는 대신 화상 회의를 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를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나무를 심어 해결했다고 한다.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은 우리의 일

상생활에서부터 가능하다. 플러그를 뽑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는 절약 생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 (5) 그리스도인의 책임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재난이 빈발하고 피해도 커지면서 인류에게 기후변화는 어느덧 발등의 불인 기후위기가 돼 버렸다. 또한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결과인 2015년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대응의 의무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참가국 전체에 부여한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체계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을 천명, 이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나왔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여 실용 단계에 이르렀다.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녹색 에너지가 주체적인 시민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얻고 있는데 우리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충격이 미래세대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다. 구원의 복음 전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더불어, 탄식하며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다. 아담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게 된 후로, 세상은 타락과 오염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썩어 있고 영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중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바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6) 우리의 행동 지침

첫째는 개인의 행동 지침이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하며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중고품을 애용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권장해야 한다. 일회용 제품 사용과 음식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육식을 줄이고, 다소 비싸더라도 유기 농산물로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하수나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폐식용유,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을 정해진 곳에 폐기해야 한다. 녹색 시장을 개설하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는 교회의 행동 지침이다. 교회는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배제, 절제 생활 장려, 음식 쓰레기 줄이기, 녹색 시장 운영, 유기 농산물 공급, 나무 심기 운동 등에 힘써야 한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 지나치게 화려한 예배당 건물,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버리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과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한다. 최소한 일 년에 한 번만이라도 환경주일을 지키고, 성도들을 계도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청지기의 삶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기업과 정부의 행동 지침이다. 우리는 기업이 지구 생존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및 내구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정책적으로 힘쓰도록 촉구하고, 환경 재난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로서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솔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

### [3]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9)

#### (1) 심각한 지구 환경

현대인은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유일한 삶의 공간인 지구 환경이 훼손되어 공기, 물, 땅이 오염되고 유한한 자원이 개발로 인해 고갈되고 있다. 각종 배기가스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기독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이집트는 땅이 비옥해서 유럽의 곡창이라고 불렸고, 이스라엘 자손도 비옥한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이집트가 지금은 사막이 되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는 어부들의 생업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되었고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만으로 살 수가 없다. 이 예들은 우리가 땅의 단물만 빨아 먹고 땅을 돌보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됴를 말해 준다.

#### (2) 기후 문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의 위력은 인류를 수십 번 죽이고도 남는다. 그런데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남극 상



공의 절반, 칠레 상공의 1/4의 오존층이 파괴되었다. 북극 상공에도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북반구의 오존층도 평균 3% 정도 얇아졌다.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 및 분무추진제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 등이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석유와 석탄을 때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구에 있는 석탄과 석유를 다 사용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금보다 5배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지구의 빙하는 다 녹고 해수면이 60m 올라가게 되어 세계 대부분의 농경지와 주거지가 물에 잠기게 된다. 엘니뇨란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다. 처음에는 남미의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경 지대에서 온난한 해수가 유입되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어종이 나타나서 페루 어민들이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아기 예수를 뜻하는 ‘엘니뇨’라고 불렀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2~5도 높아진 상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자 이번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격감하여 멸치(앤초비)가 멸종을 했는데, 이것이 엘니뇨 현상이다. 그 반대되는 현상이 ‘라니냐’인데 해수면의 온도가 5개월 이상 평균 수온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동남아시아에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페루를 비롯한 남미는 심하게 서늘해지고 건조해져 가뭄이 들게 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겨울철에 이상 추위가 지속되는 것도 라니냐 현상 때문이다.

### (3) 동식물의 멸종

또한 산성비로 인하여 삼림과 호수가 죽어가고 있는데, 1년이면 남한 면적의 땅이, 30년이면 인도 대륙만 한 땅이 울창한 삼림에서 완전한 사막으로 변한다. 현재 전 대륙의 1/3이 거의 사막이 되어, 곳곳에서 동식물들이 놀라운 속도로 멸종하고 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멸종 위기 동식물 목록’을 발표했는데, 총 11,167종의 동식물이 위기에 놓였고, 영양(사슴)의 일종인 아시아의 사이가saiga와 야생 쌍봉낙타, 이베리아의 스톱소니가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이다. 현재 아시아 코끼리는 수컷 중 일부만 상아를 갖고 있는데 중국, 한국, 일본인의 상아 탐욕 때문에 암수 균형이 깨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코뿔소는 그 뿔이 녹용보다도 좋다는 소문에 1kg도 안 되는 작은 뿔을 얻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포획하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소위 정력제라고 알려진 해구신을 얻으려 물개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가죽과 뼈를 얻기 위해 호랑이를 밀렵하여 씨가 말라가고 있다. 밉크코트 한 벌을 위해 밉크 40마리가 포획되고, 샥스핀 중국요리 때문에 상어가 멸종되고 있다. 이렇듯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과시욕, 건강보조식품 등이 동식물 멸종의 원인이 되고 있다.

### (4) 덜 쓰고 더 나누자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는 무제한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소비 생활 양식에 있다. 소비의 증대와 더불어 제한된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서 오염 배출량이 늘어남으로써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환경위기는 풍요로운 소비 생활에 대한 대가인 셈이다. 물론 소비계층은 제한되어 있다. 세계 인구의 20%밖에 안 되는 서구 산업

국가 국민들이 지구 자원의 80% 이상을 소비하기에 지구 환경 위기의 대부분의 책임이 이들 계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세계의 모든 사람이 현재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소비 생활을 영위한다면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소비수준을 지탱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윤리 원칙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그러기에 소비계층의 에너지 사용방식과 자원사용, 상품구매 등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그들의 물질적 소비수준을 한 단계 낮추면서도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 기독교 환경윤리는 무엇보다 각 개인을 윤리의 주체로 파악한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사회,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등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환경 문제는 각 개인의식과 삶의 방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 윤리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덜 쓰고 더 나누는 것이다(Less Consumption, More Sharing).

### (5)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땅이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밖에 없다. 그 작은 일들이 이 땅과 인류를 살리는 데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힘들이 모여 큰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와 자원을 아껴 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냉매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무 약품의 사용도 삼가야 한다. 중금속이 든 건전지나 농약 같은 화학 약품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들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싱크대나 하수구에 함부로 흘려버려서도 안 된다. 이런 작은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곧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비록 전망이 비관적이라 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이다.

### (6) 작은 일부터 실천을!

어떤 목사는 지금까지 샴푸 대신 비누로만 머리를 감는다. 어떤 음식점 주인은 폐식용유를 모아 가정소다와 물과 폐식용유의 비율을 0.152kg: 0.28리터: 1리터의 비율로 정확하게 맞추어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 사용한다. 어떤 주부는 한 주일 동안 모은 쓰레기가 가장 작은 쓰레기봉투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환경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밥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건강한 먹거리로 밥상을 차려 공손히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음으로 몸과 마음,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살리는 운동이다. 우리도 이런 삶의 방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환경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약식을 거행해 보자.

## 서약

1. 우리는 인간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가치관을 지닌다.
2. 검소하고 나눠 쓰는 생활방식을 귀한 믿음의 덕목으로 여기며, 이를 널리 확장해 나가는 운동을 펼친다.
3.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편의주의적 삶의 문화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을 재창조하고 보존하는 일에 투자한다.
4. 오염된 물과 공기와 땅을 회복시키는 생활지침을 정해 신앙실천으로 지킨다.
5.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 온 생명이 기쁜 날(희년)을 맞이한다는 이 말을 간직하고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한다.

## [4]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7-28)

### (1) 자연의 고통과 반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 그 창조세계가 요즘 고통을 겪고 있다. 특별히 이 지구는 엄청난 상처를 입고 비명을 지를 정도이다. 오늘날 지구는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중환자와 같은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구, 기아, 식수, 쓰레기, 에너지 문제 등은 계속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창조의 청지기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오히려 창조세계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철저한 돌아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자연관은 인간의 죄성의 결과로 자연이 타락했다는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3절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거기 거하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로 인해 가뭄이나 자연재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이사야 24:3-5)

이처럼 땅의 황폐함은 인간의 죄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만, 자기 영광, 풍요, 탐욕과 탐심 같은 자아중심에서 비롯된 인간의 죄악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덕 법칙과 어긋난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태어난 폭설과 기상이변, 인도에서 일어난 히말

라야 빙하의 붕괴로 말미암아 발생한 강물 범람으로 200명가량이 실종된 사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진과 쓰나미, 자연재해와 미세먼지, 코로나와 같은 각종 질병과 관련된 바이러스와 세균 등은 인간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고통에 처하게 된 자연의 반란이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준다. 첫째는 전체 피조물이 상호의존적이어서 공동운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치유하는 데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진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 (2)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 한편으론 흥분이 되고 다른 한편으론 위협할 수 있다. 흥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이다. 위협하다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과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나는 땅을 짓밟고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오늘날 생태학적 재앙을 가져오는 데 한몫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한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김과 돌봄으로 일하는 정원사요, 청지기의 역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간이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복지가 번성하는 지구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식량이 풍족하게 생산되는 지구, 모든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과 숨쉬기에 적합한 공기와 계속해서 공급되는 숲이 있는 지구, 중요한 용도에 가장 오랫동안 아껴 쓸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 있는 지구여야만 인류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수용해야 한다. 인류가 생존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공급 받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

### (3) 자족의 가치관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인간이 자신의 소유욕과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환경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지구 자원의 물리적 한계 및 생태학적 한계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요

청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강조한다.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언 30:8)라고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립보서 4:11-12)고 고백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교훈한다. 지구환경 위기에 직면해서 인류는 금욕과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금욕과 절제는 구원 받은 자의 새로운 생활양식이니 중세 수도원주의에서와 같은 구원을 위한 업적이 아니다. ‘새로운 금욕’이란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모든 신앙인의 덕으로(벧후 1:6),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가르치고 있다. 생존의 위협 아래 있는 빈민들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금욕과 절제의 강조는 무리한 요구이지만, 초대교회가 풍족해서 금욕과 절제의 덕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는 기원후 125년경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기독교적 절제의 참 의미는 축적하기 위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선한 구체적 행동이다. 금욕과 절제는 인간이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윤리적 삶의 방식이다.

#### (4) 한국 기독교의 절제 운동사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사회의 뿌리 깊은 미신 문화, 축첩 제도, 음주, 흡연의 폐해 등을 고치고자 청빈 절제 검약과 경건 생활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금욕적인 종교로 인식되었다. 초기 한국교회의 생활강령 7개조는 예배, 주일 성수, 효도, 순결, 인가귀도, 근면, 정직, 술과 담배, 도박과 아편의 금지로 되어 있었다. 특히 일제 통감부가 전매사업으로 민족의 자본을 수탈하려 하자 교회가 금주운동을 벌였다. 1930년대 한국교회에 있던 절제부에서 각 교회에 요청한 내용에도 그 절제 운동의 방향이 잘 나타난다. 첫째, 창기, 담배업, 주조업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점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 것 둘째, 각 교회에서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금주 및 금연 교육을 시킬 것 셋째, 주일 학교 공과 중에 절제 공과를 넣어 절제를 교육할 것 넷째,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제 생활을 교육할 것 다섯째, 교역자들이 이 일에 모범이 될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였던 한국의 초대교회는 시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의 썩은 문화를 변혁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방법으로 절제 운동을 일으켰다.

#### (5) 예언자적 사명

지금 생태계 위기로 인해 지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그다지 큰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회개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끝까지 바른 진리를 외쳐야 할 선지자적 사명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권리는 없다. 세상이 오염된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깨끗한 물 한 바가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작은 노력을 다 함께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

## [5] 시대를 분별하라(Discern the Age)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54-56)

### (1) 환경의 날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다. 총 113개 나라와 3개 국제기구, 257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 회의(스톡홀름회의)를 기념하여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창설과 국제연합환경기금 설치를 합의함으로써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이후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는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기구들이 환경보전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2020년 우리나라의 환경의 날 주제는 “녹색전환”이었다. “녹색전환”은 저탄소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녹색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국토의 건강성 강화 등 탄소사회에서 탈탄소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녹색전환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2030년까지 건축물과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만들고, 2035년까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와 교통 부문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나라다.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문제 등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등의 이상현상으로 이어지며,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켜 빙하를 녹이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 생태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을 때 우주에서 지구 사진을 찍었는데 미세 먼지들이 사라져 있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줄어서 너무나도 맑은 하늘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본다면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고 할 수 있다.

## (2) 지구온난화의 문제

우리는 순례자들이다. 우리는 지구 생태계를 잠시 빌려 쓰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돌아갈 사람들이다. 지난 2007년 환경전도사인 엘 고어와 유엔 산하 기후변화 협의체인 기후변화정부간 위원회(IPCC)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것은 근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문제임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기후가 변화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 재앙을 경험하고 있다. 쓰나미, 태풍, 지진, 해일, 가뭄, 폭우, 폭염, 한파, 산불 등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사람들이 많은 화석연료를 쓰기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각종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화석 연료를 소비하였으며,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식량과 주거를 위하여 삼림을 훼손하였다. 매년 목재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 내고, 농경지와 목축지를 늘리기 위해 20억 제곱미터(서울시의 3배, 제주도의 면적)의 삼림이 사라지고 있다.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산업과 농업 활동은 연간 약 7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데, 이 양들의 대략 반 정도가 해양이나 식물 및 토양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기에 그대로 축적된다. 현재 어떠한 기술도 대기 중에 한 번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더불어 태양 에너지를 받아 뜨거워진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공기 중에 붙잡아 두어 지구를 뜨겁게 한다. 최근 100년 사이에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5℃ 상승하여 해수면이 30~40cm나 상승했다. 또한 지구 온도가 섭씨 1도 상승하면 생물종의 10%가 멸종한다는 보고가 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은 극 지역의 빙하를 녹이고, 적도 지방을 사막으로 변화시킨다. 만약 3℃ 정도의 기온이 상승할 경우, 북극에 있는 빙하는 대부분이 물에 뜬 빙산으로, 녹더라도 해수면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지만, 남극의 경우 대륙 빙하이기에 녹으면 약 7m 정도의 해수면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럴 경우 각 대륙의 해안가를 따라 실제 물속에 잠기는 면적이 약 3%에 불과하지만, 해안가에 위치한 세계 대도시 대부분과 인류의 약 1/3의 해안 지역이 엄청난 재앙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후변화로 환경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은 물론 음식쓰레기의 양과 포장지 등 사무용지의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증가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도 심각하다. 지구는 이렇게 열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에는 인색한 것이다.

## (3)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은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딱 잘라 말해, 지구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그 답이다. 이미 확인된 생태계 변화로는 빙하의 감소, 영구동토층의 해빙, 강과 호수가 늦게 얼고 일찍 녹는 현상, 중위도 지방에서 농

작물의 성장 기간이 길어짐, 동식물의 분포대가 극지와 고지대로 이동함, 일부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 수목의 개화 시기가 빨라짐, 곤충의 돌연변이, 새들의 산란 문제 등이 있다. 앞으로 곤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반해 물고기와 파충류의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철새의 이동 양태에 교란이 일어나, 그 결과 새들이 찾아오는 때와 열매와 씨앗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일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빙하는 계속 녹아서 사라지고 그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도 급격하게 상승해 해안의 습지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산호초와 열대우림, 대초원과 고산지대의 툰드라, 사막과 강과 바다 등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수많은 형태로 우리 행성의 생태계가 변형되고, 그 안에 사는 거주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4) 지구온난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농작물의 수확이 줄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이 감소하고, 말라리아와 같은 매개성 질병과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증가하고, 빈번한 홍수로 많은 도시와 마을이 물에 잠기고,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일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기 짝이 없는 국가와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고, 현재의 빈부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기후변화 모델에서 내린 예측과 딱 들어맞는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훨씬 더 심해진 무더위와 길어진 추위, 혹독한 가뭄과 강력한 홍수, 파괴적인 폭풍우와 쉽게 잡히지 않는 산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집단 전염병의 발생 등이다. 해마다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고, 그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재난으로 인해 죽는 사망자의 수도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참으로 많고 엄청나며 파멸적인 재앙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5) 시대를 분별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자연현상에 따른 일기변화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 책망하신다. 당시의 군중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은 그 지역의 일기변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모순 속에서 그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는 무관심했다. 어쩌면 우리도 시대의 징조를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름에 온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기업가들은 여름 상품을 만들어 돈을 버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가정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미리 사는 데 열중한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에는 무관심하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우리 삶의 방식인 소비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개발과 성장 위주의 생활방식의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여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초록의 별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구 생태계



에 폭력을 행사하며 살고 있다. 이것을 회개하고 절제와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종이 한 장조차 아껴 쓴다면 결과적으로 숲을 보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광합성 작용으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나무 심기를 실천한다면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사막화와 황사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기를 아껴 쓰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닌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생태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미래 세대의 것이다. 미래 세대의 자원까지 다 고갈시킨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시대를 분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올해에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6월 첫째 주일인 6일을 환경주일로 정해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6]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For the Beauty of the Earth)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시편 148:3-6)

### (1) 신음하는 지구

우리는 날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살아간다. 환경 호르몬, 지구온난화, 유독성 폐기물, 원유 유출, 산성비, 식수 오염, 열대우림 파괴, 포화 상태의 쓰레기 매립지, 표층토의 유실, 종의 멸종, 스모그, 방사능 유출 등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세계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다. 한 해에 어느 정도 열대 숲이 파괴될까? 불행하게도 남한만 한 넓이로 매년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파괴된다. 삼림 파괴의 주원인은 벌목과 목장, 대규모 농장, 빨감 채취, 도로 건설 등이다. 삼림을 파괴하는 행위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숲에 의존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숲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땅의 황폐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사막화이다. 사막화는 대체로 자연적 원인, 곧 오랜 가뭄과 이상 고온 현상, 강풍 등으로 일어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과도한 방목과 한계 경작지의 개간, 삼림벌채 등의 인간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다.

### (2) 소비와 환경

전체적으로 보아, 지난 50년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는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러한 화석 연료의 소비는 자연스럽게 대기오염, 특히 산성비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산성비는 자동차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과 석탄, 석유 등의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황산화물 등과 같은 대기 오염 물질 탓에 산성화된 비를 의미한다. 이것은 물고기의 폐사로 이어지거나, 땅에 쌓여 산림 황폐화를 일으키고, 토양의 영양소 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산성비의 농도는 정상 수치에 비해서 약 7배나 높은 수치이다. 문제는 이토록 심각한 산성비는 대기오염의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더 광범위하게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심각해지는 기아(飢餓) 문제, 생물다양성의 감소, 삼림 파괴, 물의 부족과 오염, 땅의 황폐화, 늘어나는 쓰레기, 에너지 소비의 증가, 산성비, 지구의 기후 변화, 이러한 것들은 생태계가 쏟아놓는 탄식의 긴 목록이다. 만일 이렇게 상처 입은 지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를 이토록 신음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3) 창조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앞의 글에서 이 문화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그러니까 애당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잘 보살피고 가꾸어야 하는 사명, 곧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창세기의 첫 장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참 좋다”(토브 메오드)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질서정연한 창조 행위로 인해 다양한 피조물은 하나로 어울려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게 된다. 시편 104편은 창조세계의 온전함과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 들나귀와 백향목, 너구리와 젊은 사자가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삼나무는 새가 둥지를 틀 장소로서 가치가 있고, 산은 야생 염소가 쉴 장소로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148편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비길 데가 없으며, 모든 피조물은 그 영광을 찬양하는 교향곡에 참여하여 노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무시하여 파괴하는 것도 죄악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도 죄악이다. 인간은 결코 자연 세계와 동떨어져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호하고 보전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 (4) 절제와 검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그러나 이 복은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유한한 지구 위에서 모든 피조물이 번성할 수 있게 하신 능력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상관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치의 만나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유한성과 만족이라는 주제를 가르친다. 우리는 그 날에 족한 양식을 구하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지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족이라는 윤리적 원리로 구체화할 때 우리는 소유한 수단 내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 생물의 종들도 잘 보존해야 한다. 이 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와 검약이라는 덕목이다. 절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태도가 몸에 밴 것을 말한다. 검약은 다른 이들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껴서 사용하려는 열망이다.

#### (5) 겸손과 정직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피조물인 인간은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고,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흙은 이 인간의 유한함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피 부는 질문들 앞에서 흙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유한성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흙은 눈이 쌓여 있는 곳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며, 까마귀를 먹이지도 못한다. 그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또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해주는지도 알지 못한다. 매가 하늘을 날고 독수리가 높이 치솟는 것도 흙이 하는 일이 아니다. 흙의 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지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고 하는 시편 8편조차도 우리가 피조물이며, 따라서 유한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과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는 유한성뿐만 아니라 죄라는 흠결이 있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 자신들의 유한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책임 전가로 인해 깨어졌다. 더 나아가 그들은 땅과 어울렸던 관계도 깨어져 땅을 경작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현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책임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겸손하게 우리가 땅에 속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참된 영성은 영혼의 구원만 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독교의 진리는 영혼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영적 갱신과 교회의 갱신, 사회의 갱신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원리이다. 개혁주의의

원리는 행동하는 영성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영성,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생태계 전체가 신음하며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창조 세계의 돌봄과 지킴, 이것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하나님 나라는 만물의 회복을 말한다. 나라에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체적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이며 교회의 사명이다. (\*\*\*)

## [7] 창조보전(The Integrity of Creation)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6-9)

### (1) 지구 생태계의 위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환경보전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과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조 세계에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최근 복음주의자들은 ‘창조세계 보호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환경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강과 호수와 공기가 오염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박한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을 훼손하고 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최근 ‘인류를 향한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문’에 서명했는데, 104명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70여 개 국가에서 온 1,500명의 탁월한 과학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오기 전에 오염을 줄이고 과소비를 그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다의 물고기를 남획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며, 신선한 물을 고갈시키고, 표토와 수림, 특이한 생물 종을 모두 멸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의 주요 어장 17개가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러시아의 아랄 해는 한때 1년에 44,000톤의 어획량을 올렸지만 이제는 고기가 거의 죽었다고 한다. 대규모 관개 사업으로 염분 함량이 치명적인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산하는 토양이 황폐화되고 오염되어 지난 60년 간 인도나 중국의 국토보다 더 큰 녹지대가 사라졌다. 열대림은 전 세계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로 바꿔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 소중한 열대림이 해마다 우리 대한민국 땅 만큼씩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절반은 주로 열대림과 야생 식물에서 추출한 물

질로 만들어져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그 열대림과 야생식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좋은 꿀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겔 34:18)

## (2) 창조 세계의 청지기

환경문제 과학자들은 이런 위협에 경고하면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청난 인류의 재앙을 막고 이 지구촌이 회생하려면 이 땅을 비롯한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려면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을 알아야 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초월하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욱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침을 명하시고(38:12), 독수리가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명령하시며(39:27),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38:41). 창조세계는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으며 종속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무제한적이며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면서도 독특한 존재다. 우리는 날마다 삼림과 대양과 대초원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쬐이고 강이 흐르고 하늘과 바다가 존재함으로 만물이 지구 생태계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살아간다. 최소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또 다른 사실을 가르친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인간에게만 특별한 지배권을 주신 것은 다른 피조물을 돌보라는 청지기적인 사명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지구를 잘 보살필 책임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다른 종들을 쓸어버리거나 파괴시키거나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세심하게 돌보고 지키는 것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인간의 올바른 일일 것이다.

셋째, 우리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의 독자적인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오직 인간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가치 있다는 덫에 빠진다. 성경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 받았다”(골 1:16)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피조물이 인간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피조물이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피조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 19:1-4). 하나님

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도 언약을 세우셨다.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창 9:10). 예수님께서서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백합화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배려에 경의를 표하셨다. 이처럼 다른 피조물들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 외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은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들도 포함한다. 로마서 8장은 육체와 강과 나무를 포함한 모든 창조질서가 하늘나라의 일부가 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성경이 물질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조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지니고 창조세계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은 또한 무덤에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창조 질서가 선하다는 사실은 성경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물질세계는 선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에도 떡과 포도주와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즐기는 모습을 연상하는 게 당연하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창조 세계가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난 악을 몰아내고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임을 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하고, 신음하는 피조물은 변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21).

### (3) 지혜로운 동산지기

우리에게는 창조의 신학과 구원의 신학이 모두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창조의 신학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을 돌보는 지혜로운 동산지기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언젠가는 이 땅이 회복되리라 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위험에 처한 지구촌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과소비와 물질주의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다. 빈 병이나 신문을 재활용하는 일이 출발점이기는 해도,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물질이 더 많을수록 더 큰 성취감을 얻게 된다는 암묵적인 신념에서 돌이켜야 한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돌보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먼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의 풍요로운 생활방식을 검소하게 바꾼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더욱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균형 잡힌 성경적 관점을 확고하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붓물처럼 터지고 있는 소비주의와 향락주의와 같은 파멸의 달음질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오염을 줄이고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의 파괴를 막는 데 앞장선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8] 지구공동체를 위한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for Earth Community)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9-13)

### (1) 본문의 선정 배경

6월 5일은 1972년 유엔에서 정한 환경의 날이다. 작금의 환경 문제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데 이의가 없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탐험가인 빅터 베스코보(Victor Vescovo)는 지난 2019년 5월 1일 특수 잠수정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서태평양의 판 인근의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챌린저 해연의 수심 10,928m 지점까지 잠수하는 데 성공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의 손길이 한 번도 닿은 적이 없던 그 깊은 바닷속에서 비닐봉지, 사탕 포장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베스코보는 거기에서 반투명한 갑각류의 몸속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변압기 절연체로, 그리고 화재 방지가 목적인 난연재로 사용된 물질로 수십 년이 지나도 분해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를 통해 바다 밑바닥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해구에서 채집한 생물체에서 방사성 물질인 C14가 검출되었는데, 그것은 핵실험에서 나온 것을 추정된다고 한다. 빅터 베스코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 감격보다는 그곳까지 오염된 지구의 환경 문제를 보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지금 지구는 그만큼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 (2) 주기도문과 생태계 위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다. 이 기도는 지구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로서 새롭게 해석될 가치가 있는 기도다. 이 글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지구적 위기, 즉 생태 정의의 위기에 응답하면서 우리 삶의 방식을 위한 영적인 보물인 주기도문을 생태학적으로 묵상해 보고자 한다. 우리 시대에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불의라는 위기가 무섭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국지적인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또한 생태계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절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환경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깊이 유념할 때, 우리는 이런 도전에 맞설 신앙적인 세계관과 일관된 행동 방식을 분별하게 된다.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대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빛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태계와 정의를 위해 창조세계의 보전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연과 사회의 건강을 무시하면서 편협하게 자신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관점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세계가 곧 끝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빈곤한 사람들과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 그리고 갈수록 파괴되어 가는 생태계의 복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지구공동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생태학적 의미를 설교문으로 들어보자.

### (3) 주기도문의 생태학적 의미에 대한 설교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에 이름을 직접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을 친밀한 개인적인 이름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준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를 온 지구공동체 안에 위치시키며, 그것에서 거룩한 존재의 근거와 만나게 한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분과 그로부터 나온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에게 말을 걸게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와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를 풍성하게 연결시켜준다.

둘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한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친족(kin)이며, 우리는 다 함께 친족의 나라(kingdom)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창조세계를 돌보며 올바른 관계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표지는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그 정반대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피조물의 친족관계를 깨뜨리고 건강한 지구공동체를 파괴한다. 사회적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환경 파괴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지구공동체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갖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억압과 절망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며 그 탄원을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

셋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의 필요에 대해 기도할 것을 요청 받는다. 오래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우며 배웠듯이, 음식을 축재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썩는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래리 라스무센은 “충분은 기준이고, 평등은 기능성이며, 나눔은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는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눔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 기본적인 필요, 이를테면 식량, 의복, 보건,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을 채워줄 자원들을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회는 정의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다.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운동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넷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 간의 중요한 지침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이기도 하다. 주님의 기도에서 죄는 사실상 빚(debt)을 말한다. 이 용서의 탄원, 즉 빚의 탕감에 대한 탄원은 성경에서 보면, 회년 전통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주 식탁 교제를 나누신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빚진 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최저 수준 이하의 임금으로 말 그대로 채무의 악순환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빚진 자들의 빚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라는 것이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이런 억압적인 빚을 용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생태보전, 노동자의 인권보호, 사회정의, 생태정의 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

다섯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탄원은 가정과 직장과 여가 등에서 나날이 마주하는 유혹의 목록을 끊어내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험(temptation)은 유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소유, 안락한 시설, 에너지 소비, 가족의 행복, 직업과 관련된 성취, 더 큰 주택, 더 큰 자동차,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고 믿는 우리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 (4) 도전과 응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지구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개인적인 삶을 위해 실제로 지구와 사람들을 향한 돌봄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님의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지셨던 비전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 비전과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것은 지구공동체를 위한 복음이 된다.

### [9] 생태정의로의 회심(Conversion to Eco-justice)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1-9)

### (1) 본문의 선정 배경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가르쳐준다. 코로나19는 인간의 문명이 무한성장, 무한생산, 무한소비,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문명이었음을 가르쳐준다. 또한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회집 예배만을 중요시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가르쳐준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음을 가르쳐준다. 이제 우리는 깊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생태정의의 위한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탐욕을 회개해야 한다. 자연의 번성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태정의에로의 회심을 통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생태정의에로의 회심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본문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분기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생태정의에로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의 큰 분기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 (2) 생태정의(Eco-justice)

생태정의란 말은 우리의 삶이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고갈시키고 파괴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다시 말해서, 생태계의 번성과 인류의 복지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자각에서 생긴 말이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지구에 대한 돌봄, 창조세계를 위한 청지기직을 우리의 도덕적 영적인 관심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처 입은 지구가 상처를 입힌 인류를 향해 반격을 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태적 회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창조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이 지구를 치유하는 대업에 기꺼이 헌신해야 한다.

### (3) 설교 본문

#### 첫째, 창조의 단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태적 회심에는 대개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조의 단계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을 때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놀라움, 감사, 경이, 경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우리의 호흡과 피와 뼈와 살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와 연결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단계는 창조세계를 거룩한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발견의 단계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창조의 단계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창조의 단계, 이것은 우리가 하나

님과 창조세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리고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 창조의 단계에 들어간 시편 기사는 이렇게 노래했다. 시편 95편 4-6절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 둘째, 십자가의 단계

생태적 회심의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단계이다. 아무도 이 여정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은 갈수록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창조세계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 할수록 자연세계를 향한 무자비한 폭력을 우리는 보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라지는 숲, 멸종하는 생물들, 옅어지는 표토 층, 말라가는 습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 하늘에서 내리는 산성비 등은 폭력의 긴 목록 중의 일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주목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짐짓 그것들로부터 눈길을 돌려버린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이 단계를 회피할 수 없다. 교회가 참된 성소가 되려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슬픔을 표현할 뿐 아니라 죄를 고백하기도 한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는 일에 일조했다는 사실과, 지나친 소비와 낭비를 반복적으로 행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의와 무지와 최악 된 행동들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 19의 상황과 같은 생태적 위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전에 없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고난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태적 회심의 첫 번째 단계인 창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이름다움에 빠져들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에서 우리는 창조세계의 상처를 슬퍼하며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고난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부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 셋째, 부활의 단계

생태적 회심의 세 번째 단계는 부활의 단계이다. 이 부활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온 창조세계를 통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피뢰침이 번개를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고난과 죄를 안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 힘을 얻어 우리는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 우리 주님은 무덤을 깨고 나오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죽음의 권세, 즉 바위를 굴러낼 힘을 주셨다. 우리가 부활로 인도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걷어내고 창조세계를 위한 돌봄의 과업에 동참하게 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확실한 표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고 치유의 행위자들이 될 때 나타난다.

#### (4) 창조-십자가-부활

우리의 행동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모든 수준에서 치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해야 하겠다고 느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은 출발하기 좋은 곳이다. 부활한 삶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고, 마침내 바울이 된 사울은 지중해 주변을 떠돌며 작은 공동체들을 세우고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부활한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이 불타오르는 공동체의 삶이다. 환경보전과 생태정의를 위해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중 대다수가 환경 위기를 무시하고 그 긴급성을 부정하고 살아간다. 심지어 코로나 19와 같은 전 지구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생태정의와 같은 문제는 다음에나 생각하기를 원한다. 코로나 19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멀리 왔다고 느끼지 전에, 이제 돌아설 수 없다고 절망하기 전에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시급한 것처럼, 상처 입은 지구별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일도 시급하다. 먼저 우리는 창조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 깊은 묵상을 통해 창조세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적 회심의 첫 번째 단계인 창조의 단계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두 번째 단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애도하며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깊은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인 부활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 곧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이 일에 침병이 되어야 한다. (\*\*\*)

### [10] 만물의 회복(Restoration of All Creation)

6.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었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6-11)

#### (1) 본문의 선정 배경

바이러스(virus)는 독(poison)을 뜻하는 라틴어 비루스(virus)에서 유래한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어 반드시 숙주 세포 안으로 침입하여 기생할 수밖에

없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돌기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의 코로나와 2019년도에 발견되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지만, 광견병이나,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염된 예이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은 대규모의 가축 사육, 환경 파괴, 야생동물의 살육이나 매매로 인한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벌목, 도로건설, 도시 확장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인간의 피박한 식생활 등으로 빚어진 환경재앙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학대하거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잡아먹으라거나, 그들의 서식지를 마음대로 파괴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의 청지기가 되어 다른 피조물과 조화롭게 살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도우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만물의 회복을 노래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본문으로 삼아 만물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 완성을 꿈꾸며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해보고자 한다.

## (2) 예수, 동물원에 가다

어느 날 아주 이른 아침, 여름 해가 막 떠오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동물원으로 걸어가셨다. 동물들도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공작새들은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의 깃털을 고르고 있었다. “안녕, 공작새들아, 잘 지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희는 잘 지내요.” 공작새들이 화답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예쁜 꼬리를 활짝 펼쳤다. 예수님께서 함박웃음을 지으시고 말씀하셨다. “애들아, 함께 걷자.” 그리고 이내 모두는 하얀색과 까만색의 예쁜 줄무늬가 풀밭에 서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곳에 다다랐다. “누가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야?” 공작새들이 말했다. 얼룩말들은 풀을 뜯던 일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공작새들아, 너희들 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안녕, 얼룩말들아!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니?” “힘이 넘치는걸요. 저희도 함께 가도 될까요?” 얼룩말들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예수님과 공작새들이 대답했다. 그들은 곧 사자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바위들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와, 사자들아, 우리랑 같이 춤출래?” 얼룩말들이 사자들을 불렀다. “끼워줘서 정말 기분 좋은 걸. 안녕하세요? 예수님!” 사자들이 포효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안녕, 사자들아, 오늘 아침 기분이 어때?” “가뽏하고 최고예요!” 사자들이 대답했다. 사자들은 얼룩말들과 공작새들과 예수님의 흥겨운 춤에 합류했다. 그 소리를 들은 코브라가 하품을 하더니, 모두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커다란 나무의 가지로 올라갔다. “안녕, 코브라! 우리 춤추는 데 함께 하지 않을래?” 사자가 물었다. 그러자 코브라가 대답했다. “그거 좋은 생각인 걸, 안녕하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녕, 코브라!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니?” “최고예요.” 코브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행복하게 웃으며 나무를 기어 내려와 사자들, 얼룩말들, 공작새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나는 춤을 추었다.

### (3)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좋은 소식

사실 동물원에는 코브라, 사자, 얼룩말, 공작새 말고도 많은 동물들이 있다. 코끼리, 고릴라, 퓨마, 악어, 원숭이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동물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동물들을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 살아남아서 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나무들에 물을 주시기 위해 비를 만드셨고, 새들이 둥지를 짓도록 나무를 만드셨고, 소들이 뜰어 먹을 수 있도록 풀을 만드셨다. 그리고 산양이 숨을 수 있도록 바위를 만드셨고, 그들 모두가 때를 따라서 먹고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를 바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홍수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 땅 위의 모든 동물들과 약속하셨어.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다. 그리고 언덕은 박수를 치고, 들판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소와 개와 고양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을 살육하고, 학대하고 파괴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오늘날 눈표범, 얼룩 이리, 푸른 바다거북이, 콘도르, 주걱철갑상어, 참고래 등 너무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세계를 파괴할 때 모든 피조물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 (4) 인간을 향한 좋은 소식

이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좋은 소식도 있다. 여러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도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다른 피조물이 번성할 권리를 몰아내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 수많은 동물들의 땅을 빼앗고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의 집과 이동 경로를 침입해서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밭을 일구라고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특별한 책임을 주셨다. 즉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거나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피조물 안에서 기뻐하며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 창조세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창조세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유일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며,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우월감으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이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 다른 피조물과 친구가 되기 위해, 또 함께 번성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모든 동물들과 사실은 친구처럼 지내야 하는 것이다.

### (5)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억압 받는 자들, 그리고 사회에 의해 상처받고 소외당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자신과 창조세계의 모든 만물을 화해시키기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모든 생명이 함께 번성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방식을 단순화할 수 있다.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그 행동을 멈추거나 줄일 수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한 안전한 집과 서식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다. 그것은 만물이 회복되는 그 날에 대한 실제적인 꿈이다. 이리, 어린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진 짐승, 어린아이, 찢먹이와 독사가 어울려 사는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상함도 없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날을 꿈꾸며 창조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



## 코로나와 친환경 구조토

장근조 / 장충교회 장로, 주식회사 리빙스톤 대표

### 〈들어가는 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장충교회(예장 합동) 원로 장로로서, 1979년 회사(리빙스톤)를 설립하여 40년이 넘게 친환경 건축 마감재, 특히 '실내 공기의 질'(IAQ ; Indoor Air Quality)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이나 생태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므로 이 글은 논문이 아니고, 저의 평소의 묵상과 사업 현장에서의 경험에 의한 에세이임을 밝혀 둡니다.

### 1. 코로나와 구조토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실내 생활의 비중이 더 늘어났고, 아울러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실 실내 환경, 즉 실내 공기의 질에 관한 문제의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새집 증후군'(SBS ; Sick Building Syndrome)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주택이나 빌딩의 입주자들이 새로 지은 건물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로, 현기증, 두통, 알레르기, 비염, 천식, 눈이나 목이 따가운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땐 '새집 증후군'이나 '아토피'란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기의 질뿐 아니라, 바이러스나 균을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항균, 항 곰팡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조토가 코로나의 백신처럼 직접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내 공기를 정화하여 건강한 공기를 늘 마심으로 병원(病原)을 예방하고 기초 체력을 보강하여, 코로나 이후 어떤 유사한 상황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자는 것입니다. 구조토로 실내 생활이 급증한 현실 가운데, 아래에 설명드리려는 구조토의 생성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조토가 펜데믹 상황의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 2. 구조토는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황토가 많이 알려져 있고 구조토는 생소한 편입니다. 황토는 원적외선, 탄산칼슘, 미생물 등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흡착 분해하지는 못합니다. 구조토는 황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조토’란 한마디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화석입니다.

호수나 바다 속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플랑크톤(부유생물)이 존재하는데, 플랑크톤이 있어야 고기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랑크톤은 단세포로서 수명이 다하면, 육질은 바닷물에 용해되고 규산질(SiO<sub>2</sub>)의 껍질은 호수나 바다 밑에서 침적하여, 800~1천만 년 화석화된 퇴적토가 바로 규조토입니다. 생성은 바다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각 변동에 따라 융기된 산에서 채굴합니다. 이 규조토의 입자는 아주 작아 **숫의 5천 배 이상의 초 다공질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더러워진 입자를 걸러내는 여과제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월남 전 때는 이 규조토가 미군의 필수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맥주, 콜라, 간장 등의 여과제로 사용되고 있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일본에서, 이 규조토를 공기를 여과하는 건축 마감재로 개발하여 지금까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데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3. 실내 공기의 중요성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2000년 5월에 새로운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실내 공기를 호흡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The Right of Healthy Indoor Air)

그리고 건강한 실내 공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52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의 허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포름알데히드는 0.08PPm 이하가 건강한 공기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는 바깥 공기의 7배 이상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5년에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것뿐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고,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호흡(=숨,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 공기로 호흡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으로는 음식을 먹고 코로는 숨 없이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음식물의 양은 물을 포함해서 하루에 3~5kg인데 비하여, 코로 마시는 공기의 양은 15~20kg입니다. 음식물은 먹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공기는 단 3분도 끊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될 때까지 많은 정화기능이 있지

만, 공기는 코로 들어가 폐에서 바로 피와 만나게 됩니다. 좋은 공기를 마셔주면 그만큼 폐가 활기를 띠고 피가 깨끗해지며, 따라서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현대 건축물의 특징은 시멘트와 석유화학 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밀폐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밤에 문을 닫고 잠을 잘 때, 실내 공기는 급격히 오염이 됩니다. 건축 자재, 페인트와 접착제, 벽지, 가구, 가전제품, 의류에서 배어 나오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의 숨을 통하여 체내로 흡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구조토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조토와 같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자연 정화하는 물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토를 만드는 사람들은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번.

‘건강과 웰빙’에 구조토가 가장 이상적인 제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 4. 구조토와 구조토 제품의 특징

구조토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 다공질체입니다. 그래서 흡착 분해력이 탁월합니다. 그 흡착 분해력은 벽면에 발린 표면적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면적을 발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토는 결합력이 약하여 구조토 단독으로는 실내 마감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합제(Binding Agent)를 만나야 하는데 이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 제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천연 결합제와 점토, 탄산칼슘, 지오라이트 등 특수 천연광물을 혼합하여 아래의 기능을 반영구적으로 발휘하는 완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기의 질 이외에도 단열, 불연, CO<sub>2</sub>의 흡착 등 탁월한 다기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 1) **습도 조절 기능:** 습기가 많으면 먹고 건조하면 뱉는 흡습, 방습 기능이 탁월하여 40~60%의 쾌적 습도를 유지해 줍니다.
- 2) **유해물질 흡착 분해:** 포름알데히드, VOCs 등 유해 물질을 흡착 분해하며, 흡착 후 재방산하지 않습니다.
- 3) **탈취 기능:** 음식 냄새, 약품 냄새, 사람 냄새, 담배 냄새, 화장실 냄새 등 모든 냄새를 잡아 줍니다.
- 4) **단열 기능:** 초다공질체 이므로 1~2 mm 두께로 벽, 천장에 발라주면 엄청난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 5) **CO<sub>2</sub> 흡착 기능:** 제품 중 K-Mortar+ 는 하루에 1m<sup>2</sup>당 3.33g의 CO<sub>2</sub>을 흡착 분해합니다. 30평 아파트에 구조토를 바르면 50년생 삼나무 26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 6) **흡음 기능:** 역시 다공질체이므로 상당한 흡음, 차음 효과가 있습니다.
- 7) **항균, 항 곰팡이, 해충 방지:** 이를 입증할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 8) 불연재: 흙과 천연 광석이므로 불에 전혀 타지 않습니다.
- 9) 정전기: 무기 재료이므로 정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서 때가 타지 않고 미세 먼지의 유동이 적습니다.
- 10) 원적외선과 음이온 방출: 양질의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제품은 자기 자신이 독성이 없거나 적다는 것인데, 규조토는 자기 자신도 깨끗하지만, 주위의 냄새나 유해한 것을 흡착 분해하기 때문에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WHO에서 발표한 52가지 화학물질 모두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 유일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특성들은 일본 OneWill사의 상품 설명서와 기술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 5. 내가 규조토를 만나기까지

회사 설립 초기에는 일본의 (아크릴)탄성도료를 많이 취급했는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현장에 가면 작업자들의 인상이 일그러져서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독일 선교사님으로부터 독일의 아우로 천연페인트를 소개받았고, 그들이 천연페인트를 개발한 동기와 철학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지구가 열을 받아서 (지구 온난화) 이대로 가면, 인간과 지구가 공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좋다’ 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창조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지구촌을 방문하신다면, 지금도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실까?

나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무지로 그 아름답고, 완벽하고 조화롭던 창조물인 지구촌이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거의 회복 불능 상태로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인데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예레미야 14장 17절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밤낮으로 눈물 흘리시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서 말했듯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창조명령에 대한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창조명령, 문화명령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 독일에 자주 가서 Eco House, Eco Village, Eco City를 탐방하게 되었고, 천연 페인트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Eco Product)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인트만으로는 무

언가 부족하여 찾던 중,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규조토를 소개받게 되었고, 이 규조토를 만나 지금까지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 〈글을 마무리 하면서〉

얼마 전, 어느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회사(리빙스톤)와 원주 산돌자연학교, 영월 산돌자연 마을을 취재하였는데, 사회자가 마지막에 “장로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서슴없이 “오늘을 위하여 규조토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규조토를 통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여,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청정 건강 주택, **Eco House**를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나아가 **Eco Village**를 만들어 예수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Eco City, Eco World**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대한 꿈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이 꿈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